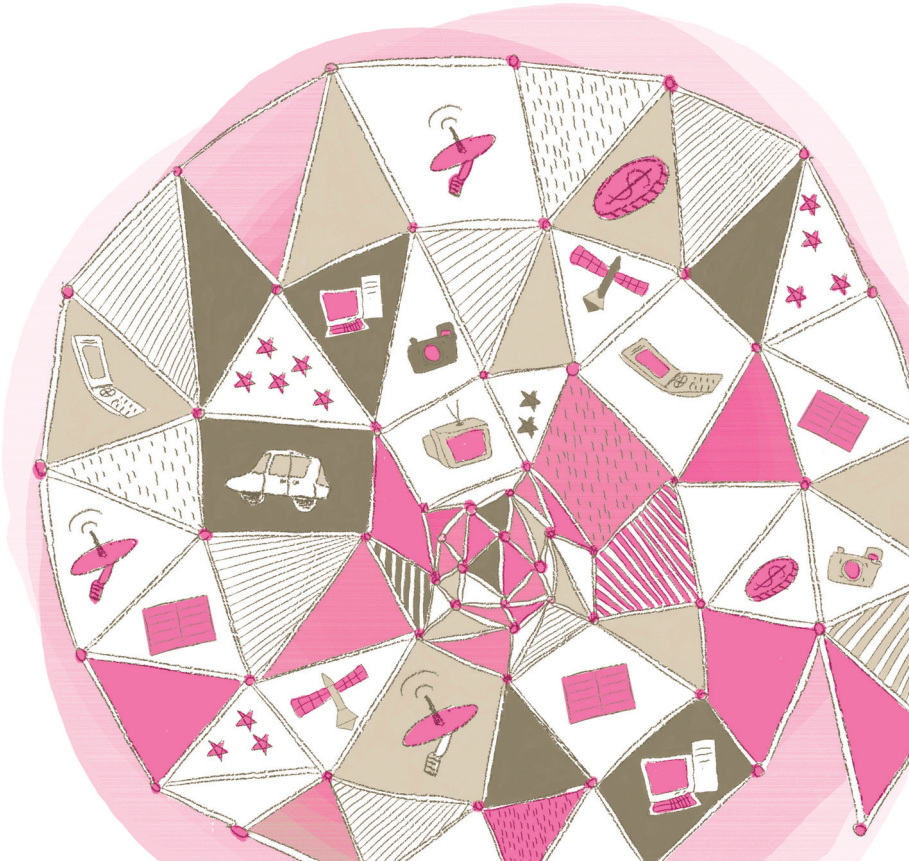
경기도도서관총서 1

도서관 특화서비스 개발과 사례

모든 도서관을 특별하다

심효정 · 이용훈 · 박효주



경기도도서관 총서 1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 도서관 특화서비스 개발과 사례 |

심효정 · 이용훈 · 박효주

본 서에 삽입된 사진의 일부는 필진이 직접 찍은 사진이며 대부분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음을 밝힙니다. 또한 부록 자료는 필진들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문에 기술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으나, 현장에 계신 사서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내용을 덧붙입니다.

목차

발간에 즈음하여 ····· 9

들어가는 글 ····· 11

01 모든 도서관은 특별해야 한다 ····· 19
- 주목받고 있는 공공도서관 ····· 19
- 공공도서관은 새롭게 변모 중 ····· 22
- 도서관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 ····· 30

02 도서관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 37
- 특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조건 ····· 37
- 특화 서비스 원칙 ····· 40
- 특화 서비스 개발 실제 ····· 44

03 사례분석에 앞서 ····· 55

04 시설이 특별해서 매력적인 도서관 ····· 59
- 도서관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다 여수시립환경도서관 ····· 59
- 특색 있는 건축물로 도서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기적의 도서관 ····· 64
- 농촌지역 마을사랑방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 67
- 과거를 현재에 재현한 세계적인 걸작품 알렉산드리아도서관 ····· 71
- 모두를 위한 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 ····· 73
- 미래의 주역을 위한 특별한 체험 공간 세리토스도서관 ····· 77
- 지혜의 길로 안내하는 도서관 지혜의 등대 ····· 78
- 공동체 성장을 위한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리드 네팔 ····· 80

05 다양한 장서로 서비스하는 도서관 ····· 83
– 도서관간의 협력을 키우자, 분담수서 ····· 83
– 향토자료 발굴과 보존을 위한 노력 속초도서관 ····· 87
– 친환경정책과 도서관을 엮는 함평의 나비 · 곤충도서관 ····· 91
– 예술전문도서관을 만들다 경기 부천예술정보도서관 '다감' ····· 92
–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도서관 뉴욕공공도서관 ····· 99
– 지역대표도서관의 보존프로그램 미국 주(State) 도서관 ····· 103
– 미국을 기억하다 미의회도서관의 "American Memory" ····· 106
– 지역별 전문분야 장서를 구축하는 네덜란드 공공도서관 ····· 107

06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특별해진 도서관 ····· 109
– 인문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 109
– 이용자를 위해 취업의 장을 마련한 인천중앙도서관 ····· 114
–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텍사스주도서관기록보관소위원회 ··· 117
– 사랑과 용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샌디에고공공도서관 ····· 119
– 도서관의 장벽을 뛰어넘는 멀트노마시립도서관 ····· 120
– 이용자밀착프로그램 체트윈트공공도서관 ····· 122
– 지역밀착프로그램 프린스턴공공도서관 ····· 123

07 이용자와 눈높이를 맞춘 도서관 ····· 127
– 다문화서비스를 개발하는 청주기적의도서관과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 127
–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 인천화도진도서관과 대전한밭도서관 ··· 143
– 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의 공공도서관 ····· 151

나가는 글 ····· 157

참고문헌 ····· 161

부록자료 ····· 176

표목차

〈표 1〉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역사 ····· 24
〈표 2〉 library 1.0과 library 2.0의 개념 비교 ····· 30
〈표 3〉 안양시와 수원시의 도서관별 장서특화분야 ····· 85
〈표 4〉 부천소재 도서관 장서특화분야 ····· 93
〈표 5〉 다감의 장서 규모 ····· 94
〈표 6〉 부천 지역문화예술정보화사업 단계별 세부내용 ····· 95
〈표 7〉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 ····· 128
〈표 8〉 다문화 장서관리 현황 ····· 141
〈표 9〉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직무 분석 ····· 143

그림목차

〈그림 1〉 도서관 패러다임의 변화 ····· 27
〈그림 2〉 서비스 개발 과정 ····· 49
〈그림 3〉 기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일반적인 순서와 내용 ····· 52
〈그림 4〉 여수시립환경도서관 환경홍보전시관 ····· 60
〈그림 5〉 구마모토현 환경센터 ····· 62
〈그림 6〉 환경홍보전시관을 견학하고 있는 아이들 ····· 63
〈그림 7〉 기적의 도서관 ····· 64

〈그림 8〉 청주기적의도서관 ····· 66
〈그림 9〉 제천기적의도서관 ····· 66
〈그림 10〉 진해기적의도서관 ····· 66
〈그림 11〉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외관과 주변 ····· 69
〈그림 12〉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내부 ····· 70
〈그림 13〉 알렉산드리아도서관 외관 및 내관 ····· 72
〈그림 14〉 시애틀공공도서관 외관 ····· 74
〈그림 15〉 시애틀공공도서관 내부 ····· 75
〈그림 16〉 시애틀공공도서관에 입장을 기다리는 시민들 ····· 75
〈그림 17〉 시애틀공공도서관 서고와 강당 ····· 76
〈그림 18〉 세리토스도서관 외관과 어린이실 ····· 77
〈그림 19〉 세리토스도서관 어린이실 내부 ····· 78
〈그림 20〉 꾸리찌바시 로고 ····· 79
〈그림 21〉 지혜의 등대 외관 ····· 79
〈그림 22〉 지혜의 등대 내부 ····· 80
〈그림 23〉 리드 네팔 ····· 80
〈그림 24〉 Shree Jhuwani Community Library ····· 82
〈그림 25〉 북수원도서관의 특화자료(예술)코너 ····· 85
〈그림 26〉 부산연산도서관 특성화 자료코너 ····· 87
〈그림 27〉 속초도서관 향토자료 디지털화 방법 ····· 89
〈그림 28〉 속초연감 E-Book ····· 90
〈그림 29〉 속초초등학교 제15회 졸업앨범 ····· 90
〈그림 30〉 함평군의 자연 ····· 91
〈그림 31〉 도서관 전경 ····· 92
〈그림 32〉 다감 웹서비스와 발간물 ····· 96

〈그림 33〉 자료를 기준으로 한 다감의 서비스 ····· 97
〈그림 34〉 뉴욕공공도서관 전경 ····· 99
〈그림 35〉 뉴욕공공도서관 내부 ····· 101
〈그림 36〉 무대예술도서관의 Miro Ito 사진 전시회 ····· 102
〈그림 37〉 캘리포니아 역사자료실 장서 가이드 ····· 105
〈그림 38〉 Coquille Indian Tribe ····· 106
〈그림 39〉 미의회도서관 “American Memory” ····· 107
〈그림 40〉 인문학 강의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 ····· 112
〈그림 41〉 수요 인문학 홍보 전단 ····· 113
〈그림 42〉 수요 인문학 인터넷 홍보 ····· 113
〈그림 43〉 사랑과 용서 캠페인 ····· 120
〈그림 44〉 디지털 스토리 스테이션 ····· 120
〈그림 45〉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 121
〈그림 46〉 청주기적의도서관 다문화 안내자료와 다국어 동화 ····· 133
〈그림 47〉 청주기적의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계획 ····· 133
〈그림 48〉 청주기적의도서관 다문화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서비스 ····· 134
〈그림 49〉 청주기적의도서관 다문화 자료와 프로그램 서비스 ····· 135
〈그림 50〉 청주기적의도서관 ‘멘토와 멘티의 만남’ ····· 136
〈그림 51〉 안산 소재 도서관 ····· 137
〈그림 52〉 점자도서 제작 과정 ····· 145
〈그림 53〉 화도진도서관 프로그램 ····· 147
〈그림 54〉 잭슨빌공공도서관의 ASPIRE 프로그램 ····· 152
〈그림 55〉 퀸즈공공도서관의 입시관련 강좌 ····· 154

부록자료

〈목차〉

〈1〉 예술정보전문도서관 다감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 ····· 176
〈2〉 소설가 헤르만 헤세를 기억하다 목원대학교 헤세도서관 ····· 181
〈3〉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 ····· 184
〈4〉 국내 도서관 특화서비스 내용····· 195
〈5〉 국내 도서관 다문화 장서개발 ····· 206

〈표 목차〉

〈표 1〉 다감 문화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178
〈표 2〉 다감의 이용자 개발과 서비스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 180
〈표 3〉 결혼이민자 통계 ····· 191

〈그림 목차〉

〈그림 1〉 다감 문화프로그램 홍보전단····· 179
〈그림 2〉 헤세도서관 자료 ····· 184

발간에 즈음하여

2008년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도서관에 많은 새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1회 경기도 도서관대회" 개최와 "경기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이 있었고, "경기도 도서관 · 독서콘텐츠 창작공모전"을 통해 많은 일반인들이 도서관에 보다 애착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경기도 도서관 향유지표" 개발 연구를 통하여 도서관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실제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어떻게,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56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한 16개의 우수한 공연단체와 연계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5회의 걸친 "경기도 도서관 정책개발 작은 세미나"에서는 매회 100여명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이제는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도서관 직원을 위한 정기적인 토론과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이주민을 위해 9개 나라의 언어로 경기도 도서관을 안내하는 다국어 웹페이지가 제작 중이고, 어린이 방송을 통해 잘 알려진 '방귀대장 뿡뿡이'가 사서로 등장하는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및 도내 도서관을 순회하여 전시할 목적으로 도서관과 책을 주제로 한 조형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해를 뒤로하고 2009년 새해 초에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가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경기도 도서관 총서』입니다. 작년 초 공모를 거쳐 선정된 주제인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와 "지식의 관문, 도서관 포털"이 각각『경기도 도서관 총서』1권과 2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총서 발간 사업을 기획하면서 여기에 부여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 도서관 현장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도서관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책을 발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면,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면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저자가 의도한 바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도서관 현장에 의한 글쓰기를 시도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현장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도서관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입니다. 그간 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수많은 노하우들을 동료, 후배, 선배 사서들과 지면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기도 도서관 총서』를 발간해 나가면서 이 두 가지를 꾸준히 견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도서관 총서』가 부디 도서관의 업무 현장을 개선하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서관 현장에 복무하시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총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저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의 한국도서관협회 심효정 팀장님, 도서관발전재단 이용훈 사무국장님, 박효주 선생님, "지식의 관문, 도서관 포털"의 심경 박사님과 윤정옥 교수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9년 1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들어가는 글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아니 특별할 수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특정한 지역과 주민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해야 한다. 모든 도서관은 자신이 서 있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그래서 어떤 도서관도 다른 도서관과 같을 수 없다. 요즘은 누구나 자기만의 독특함을 무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도서관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특별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오직 그 도서관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필자들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서 모든 도서관은 특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만의 독특함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몇 가지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은 우리가 지금 도서관의 특별함을 이야기함에 있어 과연 모든 도서관이 특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하는 점에 대해 질문해 보고자 했다. 우리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도서관은 특별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가치와 방법, 기술 등에 근거해 존재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우리 개개인은 특별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편성을 가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또 다른 이유는 도서관끼리 협력을 잘 하기 위해서다. 최근 다양해진 이용자들의 요구에 한 도서관만으로

는 제대로 이를 수용하고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들끼리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협력을 하려면 도서관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원칙이나 기술, 또는 접점이 필요하다. 즉, '도서관' 으로서의 가치와 기본 기술 등에 있어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함은 반드시 일반적인 원칙을 근거로 만들어져야 한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로봇들 중 많은 것은 변신 또는 합체로봇이다.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것들이 하나의 강력한 로봇으로 합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다. 이제 도서관들도 그렇게 각자는 특색있는 도서관으로 발전하되, 반드시 필요할 경우 하나의 거대하고 강력한 '큰 도서관' 으로 합체하여 서로의 힘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따라서 지나치게 특별한 것만을 찾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수성은 보편성과 긴밀한 연계 속에서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특별한 도서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늘 전체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체 또는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연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생각은 특별한 서비스는 반드시 일반적인 서비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것이 도서관의 일반적인 서비스가 되고,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어떤 것이든 특별한 것이 영원히 특별한 것으로 남을 수는 없다. 늘 도전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도서관의 일상적 모습으로 정착시킴으로써 도서관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애써 시행한 도서관의 특별한 서비스는 그저 일시적 성과나 기억으로 남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특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현한다면, 많은 준비와 실제 수행 과정에서의 진지한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반성과 재구성

등의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두 차례 서비스가 아닌 도서관의 일반적인 서비스로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면, 그만큼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하고, 대상에 대해 분석하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여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천 과정에서는 더욱 세심한 준비와 실행, 그리고 철저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는 적절하게 궤도와 방법을 수정하면서 하나의 특별하면서도 일반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도서관, 특히 도서관 관리자는 유용하고, 질 좋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외국 사례에 대해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요즘 다른 나라 도서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외국까지 가서 그들의 상황이나 서비스를 보고 오는 일이 자주 있다. 물론 다른 나라 도서관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 도서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유용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요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들이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북스타트 사업, 북토큰 사업, 아침 10분 독서 등등이 그렇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할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결국 이들 프로그램의 형식이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시행되고 있는 나라와 국민들의 문화적 차이 때문이 아닐까? 책을 같이 읽고 토론을 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사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도입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토론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토론 보다는 그저 책을 한 권 정해 읽는 일차원적 독서운동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독서는 물론 도서관 서비스 또한 그 사회의 문화적 분위기나 수준, 일상의 방식 등에 근거해서 기획되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례는 보다 철저한 조사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계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성급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 도서관 문화에 맞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으로 가공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이 특별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은 사람이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같은 옷이라도 입는 사람에 따라 그 분위기는 많이 다를 수 있다. 도서관 서비스도 이와 같다. 같은 서비스나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도서관,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특색을 가진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한다. 옷을 잘 입는 사람은 별로 특별하지 않은 옷으로도 아주 세련된, 자신만의 모양새를 만들어 내지 않던가. 도서관도 굳이 서로 다른 것을 찾지 않아도 일반적인 서비스로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들과 같은 것을 가지고도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지식과 정보자원을 수집해서 잘 정리하고 관리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나 정보, 때로는 문화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독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평범한 것을 가지고도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품격과 수준을 갖춘 제대로의 실력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 필자들은 도서관이 추구하는 특별함 속에서 보편적인 것을 찾아보고자 했다. 아직 우리 도서관의 역사는 그리 풍부하지 않고, 또 공부방을 벗어나 도서관다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도 대부분 실험적인 사례들이라 것이 한계지만, 그래도 우리의 도서관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하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은 사례라고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우리 도서관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도서관의 수준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우리는 이 책을 쓰면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특별한 것은 보편적인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의 기본을 먼저 생각했다. 이에 선택한 사례는 도서관 3요소, 즉 시설과 장서, 그리고 사람(사서를 포함한 직원 모두와 이용자까지를 아우른다)이라는 세 가지 요소와 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 낸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우리가 수집한 사례의 선정기준이나 내용에 대해 몇몇 분들이 과연 그 어떤 사례가 정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에 적합한 것인가, 과연 그 사례가 일반적 사례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가 등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다시 강조하건데, 우리가 선택한 사례가 다른 도서관과 비교하여 더 꼭 좋기 때문에 선택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그러한 서비스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인지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잘 준비해서 실제 실천한 과정, 그 자체다. 결코 도서관과 도서관 서비스 사이를 비교하고 우열을 가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서술방식과 독자층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우선 이 책은 학술서적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학술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글을 쓰지 않았다. 도서관은 학문의 대상이기 이전에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평가받고 인정받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학술적 연구방식이나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벗고 현장에서의 고민을 함께 한다는 생각에서 다소 자유로운 글쓰기,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도전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서관 현장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현장에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목소리로 적극적으로 말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참 모습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현장에서의 모든 것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과 도서관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도서관 현장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 도서관 현장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도 이 책을 쓰면서 많은 경우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전화 인터뷰나 관련분야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 책에서 부족한 부분은 전적으로 필자들의 잘못이지만, 앞으로 도서관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고치고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 시대는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출판하여, 그것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도서관과 사서들도 도서관 현장을 넘어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

독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굳이 도서관 직원들이나 관계자로 독자를 한정

하지는 않았다. 도서관과 어떤 형태로든, 어떤 수준으로든 연결된 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우리 도서관들은 우리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 온 때문에 대중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만 아는 용어로,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말로는 결코 도서관을 이 사회 속 핵심기관으로 세울 수가 없다. 만일 그 동안 무언가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이라는 말이 어색했고, 또 잘못 인식되어 있었다면, 그건 일차적으로 도서관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연유로 전문성을 다소 희생해서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쓰기로 독자층을 일반인까지 확대하고자 했다. 다시 말하지만, 도서관 직원들이나 일반 이용자나 도서관을 중간에 두고 소통하고자 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같은 수준으로, 같은 내용으로 도서관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책을 쓰는 동안 세상이 복잡하고 길이 잘 안 보일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격언을 마음에 담았다. 우리가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은 혹시 우리 도서관이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부족함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이나 방식, 그리고 사례들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 주장할 순 없다. 다만 지금 공공도서관들이 서 있는 시점에서 도서관다움을 찾고 유지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도서관으로 거듭나는데 어떤 계기나 생각의 단초라도 제공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도서관 현장에서는 더욱 독특하고 의미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수행함으로써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믿는다. 도서관 현장에서 이 땅의 도서관 현실과 미래를 모두 짊어지고 있는 사서와 직원께 고마운 마음

을 전한다. 이 책을 쓰면서도 실제 도서관 현장을 모두 직접 다녀보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다. 세상 의미는 길 위에 있다고 한다면 도서관 현장을 찾아 길을 나서는 것으로 시작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이 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고, 열심히 도서관 현장을 찾아 길을 나서고자 한다. 행복한 미소로 현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도 도서관들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있어 더욱 행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필자들을 격려해 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찬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번에 도서관 현장을 위해 총서 출판 사업을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도서관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다. 필자들도 이 책을 쓰면서 내내 즐겁고 행복했다. 또한 다양한 사례 수집에 실질적 도움을 주신 도서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부족한 글을 끝까지 살펴주시고 독려해주신 이은철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2008. 12. 5.

심효정, 이용훈, 박효주

01

모든 도서관은 특별해야 한다

주목받고 있는 공공도서관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동네에는 공공도서관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이 600관이 훨씬 넘고, 앞으로도 몇 백 개 도서관이 새로 건립될 예정이다. 게다가 생활권역 속에서 활동 중인 작은 규모의 공립 또는 사립 문고나 어린이도서관 등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동네에 도서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어디에 살든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동네에 도서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모든 동네에 제대로 된 도서관이 있을 때까지는 도서관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마을단위로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정부의 도서관 정책에서도 이 같은 도서관 확충 정책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자.

2008년 8월 7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모든 종류의 도서관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부의 도서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002년에도 유사한 발전계획이 발

표되기는 했지만, 대체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국립중앙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정책중심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번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은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 같은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3대 정책목표, 즉 '도서관서비스의 선진화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서관 · 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로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 '유비쿼터스 환경에 따른 미래형도서관 구현'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도서관을 아우르는 8대 추진전략과 29개 중점과제, 71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2013년까지 공공도서관 900개관 확충"이라는 것이다. 현재 약 600여관이 설립, 운영 중에 있으므로 향후 5년간 추가로 공공도서관을 약 200~300개관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1관당 봉사대상국민수가 2007년보다 38%가 감소한 5만명 수준으로 낮아져 OECD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기 때문에 '세계 도서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밝히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획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도서관이야말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와 개인의 지식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처'이며,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최상의 '문화동력'이라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은 "도서관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선진 일류국가로 선도하기 위한 21세기 국가발전의 토대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관련해서 확충과 함께 이번 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도서관을 "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중심"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앞으로 지역단위 공공도서관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기도 한데 이러한 사회에

는 국민 모두가 생애주기별로 평생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필요로 한다. 국민 개개인의 자기 학습을 위한 여러 기반 시스템 중에서 도서관이야말로 가장 기본적 시설이다. 도서관은 다른 시설과 달리 자기주도형 학습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서 공공도서관은 평생학습의 기반 시스템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 성숙한 시민사회 성장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도서관이 지역커뮤니티로서의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이같은 사회적 기대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추진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는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작은도서관'의 진흥과 활성화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작아서' 좋은 도서관이 아니라 '접근하기 좋은' 도서관이어야 한다. 지역단위로 도서관 접근성을 고려해 지역전체를 수용하는 중앙관 역할을 하는 규모가 큰 도서관과 중간 규모의 도서관, 그리고 생활권에 위치하면서 양호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규모 도서관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치 · 운영 되어야 한다. 모든 규모의 도서관이 각자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이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처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원하는 자료를 언제든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시 품격있는 건축을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국가 문화역량, 문화 아이콘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의미있다고 할 것이다. 건축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좋은 도서관은 주민들을 스스로 도서관으로 오도록 하는 매력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21세기 공공도서관은 편리한 접근성과 함께 풍부한 자료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규모의 도서관을 통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다수의 도서관을 하나의 도서관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어느 도서관에서든지 다른 도서관의 모든 자료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지식기반사회 지식과 창조력의 원천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고, 또 앞으로 펼쳐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동네에 좋은 도서관이 있어 매력적인 장서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새롭게 변모 중

거듭 강조하지만, 공공도서관은 지금 더욱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미 21세기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문화사랑방이자 평생 자기 학습을 돕는 지식과 창의력의 원천이다. 그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이제 공공도서관은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고 이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도서관은 그 역사를 통해 축적해 온 기본적인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원칙은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서관이 감당할 시대적 요구를 파악하기에 앞서 도서관의 탄생과 발전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1] 역사를 잘 알아야 도서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도서관 탄생의 조건을 살펴보면, 도서관은 인류가 문명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유목생활을 벗어나 정착생활에 접어들면서 문

1) 이 내용은 방준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부장의 홈페이지 '도서관 역사'의 내용을 인용한 것임. 우리나라, 동양 및 서양 도서관 역사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bangjunpil.pe.kr/lec/histo.htm

자나 전달매체가 발명되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학문이나 과학, 식자층, 교육기관 등과 같은 문화기반 시설이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도서관도 함께 생성, 발전했다. 두 번째 배경은 경제적인 발전이다. 경제활동과 물류가 가능한 환경은 사회나 문화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었고, 그러한 경제력은 도서관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었다. 세 번째 배경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들 수 있다. 도서관은 국가 권력의 이동이나 전란에 민감하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종교와 왕권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다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오늘날과 같은 공공도서관으로 발전했다고 볼 때, 도서관은 사실상 정치적 환경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세 가지 관점의 도서관 탄생 배경은 오늘날 도서관 형성과 활동에까지 깊은 관련이 있다. 공공도서관들은 이같은 역사적 배경에 그 존립 근거를 기대고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운영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18세기 시민혁명시대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대중을 위한 기관으로 빌잔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물론 로마시대에도 공공도서관은 있었다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자료공유를 통한 대중을 위한 열린교육과 문화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서구 시민혁명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공공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들과 달리 지식공유사상에 입각해서 대중들에게 모든 지식과 정보를 공개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전파한다는 두 가지 역할이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통치기구로 공공도서관 역사가 출발했다는 점에서 서구의 역사적 배경과는 많이 다르다. 물론 우리에게도 개화기에 선각자들이 대중도서관 설립운동을 벌인 사례가 있지만, 이러한 운동은 결국 일제 조선총독부에 의해 좌절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오히려 공공도서관

을 일본의 황국신민화 정책을 펼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농촌의 사상적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문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혼란케 했다. 그러나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제 이념을 찾지 못하고 사상과 지식의 민주성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공부방 기능이나 책의 열람 · 대출 기능, 일부 사회교육적 활동에 치중함으로써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은 극복되어야 한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2)]

〈표 1〉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역사

연도	단계	성격	주요내용
1945 1960	1단계	도서관기반 조성기	· 일본으로부터 도서관 인수 · 국립조선도서관학교 설립 · 조선도서관협회 결성, 한국도서관협회 결성
1980	2단계	운동의 기초 다지기 : 제도화 노력과 민간도서관 운동 주력기	· 도서관법 제정, ·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 공공도서관부회 결성, 마을도서관 운동의 전개 · 대한도서관연구회 결성, 개가제 및 관외대출
1995	3단계	운동의 확대 심화기	· 입관료 폐지, 법 개정 운동, 전국사서협회 결성 · 도서관정책 소관부처 문화부 이관 · 공공도서관 관장의 전문직화
현재	4단계	새로운 위기와 기회의 시대	· 도서관 명칭변경 저지운동, 민간위탁 반대운동 · 창원지역, 경기지역 도서관운동 · 도서관운동연구회의 시도, 책사회 출범 · 기적의도서관 설립 운동, 도서관정보화 사업 추진 ·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운동 심화 · 도서관법 개정(2007.4.5.)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설치 (2007.6.19.) ·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2008.8.)

2) 이연옥. 2002.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최근 사항을 추가해서 다시 작성한 것임.

공공도서관이 이제부터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것, 둘째, 이용자들의 변화를 파악하고 수용하는 것이며, 셋째, 시대적 변화 발전, 특히 기술과 문화의 변화를 적극 수용한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도 어언 20년이 되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차근차근 주민자치가 자리잡아 가고 있고, 현 정부도 그동안 추진해 온 지방 이양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앞으로 중앙정부는 조직, 인사, 혁신 등 정부의 규모와 효율성을 결정짓는 정책을 적절히 활용해서 꼭 해야 할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지속적인 지방자치 확대로 인해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방향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할 지역의 문화 서비스다. 그러나 그동안은 중앙집중적 행정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역량 부족으로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에 기대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도서관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가장 빠르게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경기도청 내에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까지 두어 경기도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그만큼 발빠르게

도서관 정책과 행정의 지방분권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방분권 강화가 추세인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 같은 외적 변화를 앞서 선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정책이나 행정의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모든 공공서비스의 의미와 가치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지역주민들이 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알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 같은 서비스가 공급자(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제공되었고, 지역주민들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별 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 추세와 지방자치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역의 살림을 맡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그 가치와 성과를 평가하게 되었다. 이에 공공서비스로서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전과 달리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도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도 설득해야 한다. 최근 공공도서관들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케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각종 서비스에 대한 언론 홍보도 강화하고 직접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의 활동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법의 하나가 도서관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변화도 도서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용자인 지역주민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주민은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객체 또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는 점이다. 이제 공공기관 서비스는 반드시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획 ·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시대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와 도서관과의 관계는 〈그림 1〉로 설명할 수 있다(곽동철 2000).

〈그림 1〉 도서관 패러다임의 변화

세 번째로 고려할 점은 시대의 변화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의 혁신적 기술 발전을 반영한 '도서관(Library) 2.0' 개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 개념은 웹(Web) 1.0과 웹 2.0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근 도서관 분야에서도 도서관 1.0과 도서관 2.0 개념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연 도서관 1.0과 도서관 2.0은 각각 어떤 개념이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아마도 일반적으로 일방향성과 쌍방향성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도서관 1.0은 운영자 중심이

고, 도서관 2.0은 운영자와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도서관, 즉 이용자가 도서관 운영 전반에 참여하도록 개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도서관 1.0은 가치 중심의 도서관, 즉 공공도서관이 탄생하는데 기초가 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도서관이다. 이것은 누구나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에 대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공공도서관'의 이념에 철저하게 복종한다. 도서관 2.0은 디지털 혁명을 이용해서 발전된 개념으로 도서관 1.0을 기반으로 하되, 그 가치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즉 도서관을 이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발전한다. 이 공동체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또는 공개와 참여를 통해서만 성립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서관 2.0이라고 하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예전과 달리 앞으로 도서관 서비스는 언제나 이용자가 필요로 한 시점에 어떤 단말기에서나 이용이 가능하고 도서관 시스템에서 벗어나 인터넷 서점, 포털이나 원격교육 등 다른 시스템과도 통합되는 도서관이다. 요즘 인터넷 서점은 책이 없을 경우 그 책을 소장한 도서관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관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을 언제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계 없는 도서관의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요즘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국가나 언어 등을 모두 포괄하는 전 세계적인 종합목록 구축도 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이 같은 시대적 발달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방식(언어까지 포함해서)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적 모습은 '참여하는 도서관'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도서관 사서나 관리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파트너를 포함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까지도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용자가 참여해서 도서관의 자원을 풍요롭게 하

는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참여가 도서관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도서관 2.0 시대 도서관은 다양한 기술과 파트너나 이용자들 간 새로운 관계 형성 등으로 쉽고 빠르게 자신의 운영 또는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며 변모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 2.0은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 2.0은 기본적으로 웹 2.0의 다양한 개념과 기술을 도서관 운영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웹 2.0은 개방과 참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웹 2.0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기술은 블로그와 블로깅, 위키(Wiki), RSS, 폭소노미(Folksonmy), 팟캐스트(Potcast), 아작스(Ajax), 매쉬업(Mashups), 태깅 또는 태그 구름(tag Cloud), 사회적 북마크(Social Bookmark), 사회적 네트워킹(Social Network), 웹서비스 등이며, 현재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개념이나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웹 2.0의 개념이 도서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시맨틱 웹 등 웹 2.0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기반으로 이 같은 특성을 가진 상용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도서관 2.0이라는 새로운 도서관에 대한 개념과 실천이 확대되고 있다. 요즘 대학이나 전문도서관 등에서는 도서관 2.0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도서관 2.0 시대의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일까?(최호남 2006).

앞으로의 도서관은 유연하며 모듈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도서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도서관은 대체로 디지털도서관 또는 유비쿼터스 도서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반드시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즉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 시스템 등과 자유롭게 통합하여 거대한 도서관 시스템을 만들어 낼 때 도서관은 비로소 모든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 제공하겠다는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요즘 도서관과 포털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포털은 수많은 회사나 서비스를 통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을 만들어 내고 있어 도서관들도 앞으로 이 같은 포털의 방식을 배워 사회적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도서관 1.0과 도서관 2.0 도서관 개념이 도서관의 기술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가는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곽승진 2007).

〈표 2〉 library 1.0과 library 2.0의 개념 비교

구분	Library 1.0	Library 2.0
기본특징	도서관중심 상호작용이 낮은 정적 시스템	이용자 중심 상호작용이 많은 동적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와 시스템	이용자와 이용자 시스템과 시스템
사서역할	정보전문가	정보설계자, 정보 디자이너
서지정보표준	MARC, AACR	DC, GEM, RDF, FRBR
자료분류	KDC, DDC(taxonomy)	꼬리표 달기(Tagging) 집단분류(folksonomy)
SDI	E-mail, Push	RSS, Rull
대표적 기술	HTML, ActiveX	XML, Ajax, Mash-up, Tagging

도서관을 특별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문화기반 시설이자 공공서비스로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도서관, 그러면서도 시대의 기술과 문화의 변화를 적극 수용한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도서관마다 특별한

자기만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는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로서의 도서관 서비스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강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존립 이유인 지역주민이 도서관을 즐겨 찾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도서관을 주민들이 제대로 인식해서 잘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다른 여러 유사기관과 차별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특별한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개선된다면 공공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우선 공공도서관을 설립 ·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으로 그 서비스에 공공재정을 투입하는데 정당성 내지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떤 서비스를 먼저 제공해야 하는가를 판단할 때 일차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요즘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서관이 어떤 가치를 산출하는가가 큰 관심이라고 한다. 도서관이 좋은 서비스 가치를 산출해 낸다면 정책결정자에게는 공공재정을 투자할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좋은 서비스 가치 창출을 위해 도서관이 특별한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인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편 지역주민들에게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가정의 행복이나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게 한다. 도서관 자체로서는 서비스를 통해 좋은 공공서비스 제

공기관이라는 인식을 줌으로써 존립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도서관의 특별한 서비스는 도서관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정책결정자, 지역주민, 그리고 도서관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도서관 서비스를 모색하는 것은 공공도서관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마케팅은 사실 이용자이자 공공도서관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해시키고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특별한 서비스를 기획하더라도 반드시 도서관의 기본적인 철학과 내용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도서관 서비스 가운데 문화나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이끌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면서도 정작 그것이 도서관 기본 기능과의 연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재평가해 봐야 한다. 평생학습 기능에 있어 무엇보다도 도서관 자체가 다양하게 구성된 장서를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필요와 수준에 맞게 학습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전문가인 사서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돕는, 즉 참고봉사라는 전통적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스스로 적합한 자료를 찾아 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서관의 학습지원 활동 방식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강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과의 차별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도서관이 다른 일반적인 평생교육 기관과의 차별성을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 자료를 우선하는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 인문학읽기라든가 한 책 읽기 같은 프로

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책을 통해 자신의 사고와 인식을 확장해 나가도록 돕고 있어 도서관의 기본기능을 확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특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할 때 반드시 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도서관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별한 서비스 기획에 앞서 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확인해 보면 우선적으로 「도서관법」을 참고할 수 있다. 법에서는 도서관을 도서관자료를 수집 · 정리 · 분석 ·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 조사 · 연구 · 학습 · 교양 ·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제2조 1호)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도서관의 기본적인 존립 목적은 정보이용과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는 도서관자료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법에서는 도서관자료를 "도서관이 수집 · 정리 ·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제2조 2호)"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정보가 축적된 것이면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도서관자료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제 사람까지도 빌려주는 도서관이 생겼다는데 이처럼 앞으로 도서관자료에 있어 그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서관이 이같은 도서관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이 도서관서비스다. 이 역시 법에서 그 의미를 정하고 있다. 즉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 · 열람 · 참고 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 입수 및 정보해독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국민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 · 무형의 서비스(제2조 제4항)"다. 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도서관서비스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도서관의 가치와 책무, 구체적 운영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2007년 개발해서 발표한 『2007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표준안』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당 지역 내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표준안을 개발해서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가 제시한 공공도서관 운영의 비전과 운영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민주사회의 유지 · 발전에 필요한 성숙된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자치의식을 함양하여 평생 필요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도움으로써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적정의 시설, 인력, 자원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도서관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지식 · 정보활용, 생활, 문화, 학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③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공공재원으로 누구나 제한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도서관의 개념에 충실하여야 한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국제적인 기본이 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원칙 "UNESCO/IFLA 공공도서관 선언"의 정신도 고려해야 한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공도서관의 기본 목적은 교육, 정보, 그리고 오락 및 여가활동을 포함한 인간적 발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개인과 집단에게 다양한 유형의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식과 이념과 견해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Gill 2002). 근대 여러 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은 그 나라와 국민들의 지식과 정보, 문화와 생활의 발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해 왔다. 그러나 그 기반은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과 같이 이미 공공도서관의 긴 역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강조되어 온 원칙과 비전, 신념 등에 기인한 것이며, 그러한 공통의 기반이 오늘날 전 세계 도서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원인이자 힘이 된 것이다.

개별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안에서 튼실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 도서관 전체의 발전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개별 도서관의 발전은 국가 내 도서관 전체의 발전이 되면서도, 또한 국가 도서관 시스템 발전이 개별 도서관 발전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원리는 개별 도서관 내에서도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사명, 그리고 기능을 최대한 수행하는 것이 특별한 서비스의 개발과 실천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속해 있든 한 도서관 내에서의 일반적인 기능 수행과 특별한 서비스 실천은 늘 같은 공공도서관의 원칙과 사명에 근거해야 하며,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행되어야만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은 공공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많아지는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적자금 지원이 어렵다.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이외에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커졌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더욱 도서관답게, 도서관이 다른 문화시설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특별한 가치와 성과를 창출해 냄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확고한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오랜 공공도서관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도 최근 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공공도서관은 앞으로는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한다. 현재 영국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의 경우에는 도서관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서관을 재단장하거나 건물 설계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도 한다. 즉 랜드마크가 되는 다목적 건물을 건립하거나 지역사회 공간을 만들거나, 도시 중심부의 도서관을 현대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① 비전과 목적 ② 지역사회의 세분화 ③ 조직의 변화 ④ 효율적인 의사소통 ⑤ 실제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⑥ 조사 방법과 측정이라는 6개 영역을 핵심적인 개선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도서관 프로그램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도서관 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5가지 핵심 권고안도 제시하고 있다. ① 비전은 협력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적절하게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② 지역사회 세분화는 점차 행동양식에 따른 세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달은 결과물에 더하여 서비스 체험의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③ 직원에 관하여 조직 변화의 잠재적인 영향력은 인식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연계 과정은 주체성을 적절하게 보장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외적인 의사소통은 창의적이어야 하고 신중하게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추가로 일반적인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지역사회 연계 계획은 좀 더 확고해야 한다. 동시에 그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8).

이제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적극적으로 자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을 찾아 그것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먼저 다가서야 한다. 그런 노력의 가장 구체적 방안이 바로 도서관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02

도서관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특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조건

공공도서관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도서관 분야에서 특별히 개발되고 활용되는 통일된 도구는 없다. 그동안 도서관에서 인력, 재정, 시설 등 모든 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기능을 수행하기에도 벅차 특별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큰 관심을 두지 못한 때문이다.

도서관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문화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한정해 생각하기 쉬우나, 도서관의 3가지 기본적인 요소 모두를 대상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즉, 자료와 시설, 그리고 인적 요소별로 따로, 또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모두를 기반으로 한 특별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3가지 요소에 기반한 도서관 기본기능은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개발될 수 있고, 현재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대상별로도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현재에도 영유아나 어린이, 청소년, 주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는 많이 개발되고 실시되고 있다. 다만 아직 공공도서관 봉사대상자 중 대학생이나 청장년 등 일부 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제대로 개발되고 있지 않으며 다문화서비스는 이제 첫걸음을 내딘 상태이다. 앞으로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비전과 3요소를

계층별로 결합한 서비스도 좀 더 많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역시 도서관의 기본적 목적과 가치, 의무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도서관 관련 법률이나 국제적인 지침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작성한 공공도서관 운영 표준안에서도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가치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①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경기도의 지식관문으로 개인과 집단의 평생학습, 자율적 의사결정 그리고 문화적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을 제공하며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식기반을 공고히 하는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②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정보센터로서 모든 종류의 지식과 정보를 지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어떤 이유로든 도서관서비스나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지식 ·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지역사료의 보존센터로서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이용시킬 의무가 있다.

⑤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주민자치활동, 문화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도민의 사회적 통합 및 지방자치발전에의 적극적인 기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세 번째 고려점은 모든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모두 그 나름대로의 대상과 기간, 내용 등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존재하지만, 한 도서관 안에서는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과 연계를 고려

하면 프로그램들간 연계와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별 프로그램들이 시행하는 도서관 이미지로 통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모든 도서관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으로서 규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 10가지는 다음과 같다(Robertson 2005).

① 다른 도서관 사서들과 관심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② 함께 일하는 협력자들과의 유대, 즉 스탭들 간 팀워크, 자긍심과 의욕을 강화시킨다.

③ 때로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즐길 수 있다.

④ 프로그램은 사서, 참가자, 그리고 개발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더욱 풍부해지고, 지적으로 만족을 준다.

⑤ 프로그램은 그 주제와 자료의 연계성, 즉, 해당 주제에 대한 자료 이용을 높여줌으로써 도서관의 성과를 높인다.

⑥ 문화 프로그램은 도서관과 협력기관들의 존재 이유를 더욱 강화시킨다.

⑦ 도서관 재정지원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도서관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부터 도서관의 차별성에 근거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⑧ 누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증가한다.

⑨ 도서관 사서에게 있어 장서(자료)의 해석이나 독자에 대한 조언이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

⑩ 도서관이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프로그램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서비스가 더욱 중요하다.

특화 서비스 원칙

공공도서관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도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기획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획을 하는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기획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도서관에서 특화 서비스를 기획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앞으로 도서관 사서들도 기획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기획이라고 하면 간단히 말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계획을 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요소는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는 것과 그 목표를 위해 앞으로 할 구체적인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기획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목표하는 바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기획은 일종의 정책이다. 즉,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정확해야 한다. 목표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기획서는 가능하면 숫자 또는 도표 등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획은 개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의 목표로 모아 사회적 의미를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의 특별한 서비스를 기획한다는 것은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 도서관의 정책에서 출발해서 그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시기와 대상, 목적과 목표, 그리고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하는 방식, 장소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비스를 기획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획을 하는 사람과 그 역량이다. 기획은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도서관 3요소에서처럼 사람과 관련된 요소이다. 여기서 사람은 기획을 하는 사람과 실제 서비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야 할 다양한 역할을 가진 사람까지를 포함한다. 기획에 있어서 그 목적과 내용 등의 전 과정은 사실상 사람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요소는 중요하다. 특히 좋은 기획은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참여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잘 조직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처음 기획할 때에는 한 사람이 시작할 수 있겠지만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실행, 마무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요소를 고려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참여할 사람이 확인되면 각자가 최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여러 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기꺼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해시키며,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외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나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섭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능하면 도서관이 제공하는,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사전에 전문가들을 확인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 도서관이 하기 어려운 작업이라면 지역 내 여러 도서관이 모여 인력풀을 공동으로 유지 · 활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중요 요소는 서비스를 마케팅 하는 것과 사후 평가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기획 초기단계에서부터 개발한 서비스를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 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사업 수행 후의 평가는 다음 서비스 개발이나 시행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기획 의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평가 역시 기획 초기부터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평가기준은 어떤 것인지 등을 미리 잘 정해 두어야 한다. 평가는 서비스 기획과 진행 전반에 관여한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을 조사 · 분석해야한다. 평가와 함께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특히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서비스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좋은 인상과 평가는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지지로 이어질 것이다.

서비스나 행사 등을 기획함에 있어 몇 가지 고려할 점은 우선 기획하는 사람은 모든 분야를 다 다룰 줄 아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서관 내 다른 직원이나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를 기획할 때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부문의 시민단체나 심지어 기업들까지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수행에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개방적 인식과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늘 도서관의 일상적인 서비스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 뿐 아니라 주변에서 화제가 되는 일 또는 지역사회의 소식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행사 등에 참여해 보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서관 일상이 바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새롭고 특별한 것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일상이 아닌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롭게 접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것은 반드시 정리해 둠으로써 자신만의 정보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을 위해서 다른 부문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서관 직원들도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에 자주 참여해 봄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다. 또는 도서관에서 지역 내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 단체 등이 발행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어렵지 않게 지역의 요구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기획은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기획은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기획은 일반적으로 5가지 단계, 즉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창조성이 요구되는 단계,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 분석과 검토를 시행하는 단계, 분석결과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단계, 논리적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 실시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대체로 이 순서를 따라 시행하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기획을 중단하고 폐기하거나 보류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에서 잘 된 기획은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Gill 2002). ①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한다. ② 행정당국, 경영진, 그리고 직원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한다. ③ 지역사회 기금이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지출된다. ④ 서비스의 지속성이 인사이동에 관계없이 유지된다. ⑤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로 지역사회의 기대를 증가시킨다. ⑥ 도서관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채택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기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행

정당국이나 재정지원 기관, 도서관직원, 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들과 연계해서 수립해야 한다. 전략적 계획은 이용자 지향적이어야 하며, 다음의 요소, 즉 ① 실적 검토 ② 요구 조사 ③ 우선순위와 단기 목표 확인 ④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 개발 ⑤ 주요 성공요인 식별 ⑥ 예산 배정 ⑦ 최적 성과를 위한 직원배치 ⑧ 투입과 산출성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 ⑨ 요구와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갖추어야 한다.

좋은 서비스는 잘 된 기획에서 출발한다. 좋은 기획을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획서를 작성해 보고,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도서관과 사서들의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특화 서비스 개발 실제

공공도서관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는 일차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사명인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고, 지역사회의 성격과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성격과 요구 조사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각종 역량을 조사하는 것과 이용자 연구나 문화수요 조사 등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조사는 사실상 서비스 개발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 존립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도서관 경영과 서비스 기획, 제공의 기초가 된다. 지역사회조사는 가급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항상 최신의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파악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인구통계 정보.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연령 및 성별 분포, 직업과 경제상태, 교육

수준, 민족 다양성 등에 대한 인구사회적 정보, ②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각종 발전계획 등, ③ 지역사회 단체 정보. 지역사회에 있는 행정기관, 교육기관, 보건기관, 행정기관, 자원봉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병원이나 교도소, 군부대 등의 활동범위나 보유자원 등에 대한 데이터, ④ 기업과 상업 정보. 지역 내 기업이나 상업 활동에 대한 정보, ⑤ 도서관 영향권.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과 연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범위와 성격, 내용 등에 관한 정보, ⑥ 교통 정보. 지역 내 교통 패턴과 주민들의 일상적인 동선 등, ⑦ 지역 내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교육 및 문화 서비스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 ⑧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에 관련된 정보, 예를 들면 지역의 독서실태나 문화 향유 실태 등도 광범위하게 수집하면 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조사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가능하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일차적으로 수행한 연후에 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갱신 · 관리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것은 도서관 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도서관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기존의 서비스나 추후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 등과의 관련성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설정하는 목적과 목표는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 번째는 서비스 대상을 설정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대상 이용자 집단은 세분화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서비스 내용 등을 정교하게 기획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이 정해지면 그 다음은 대상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야 한다. 대상인구의 수나 거주지역, 교육이나 문화수준 등에 대한 정보는 서비스 기획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대상집단이 도서관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때에는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대상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도 있으나, 대상에 따라서는 그 대상집단을 잘 아는 전문가나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그들의 요구나 상황을 파악해 볼 수도 있다. 보다 지속적으로는 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평소부터 지역 내 다양한 대상자들의 상황과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네 번째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기획해야 한다. 이 단계는 대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대상과 서비스와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분포나 인구수 등의 인구사회학적 데이터 뿐 아니라 그들 나라의 문화적 특성 등도 폭넓게 확인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한 연수나 한국에 대한 인식 등도 알아봐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이 소장한 자원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인력 요소나 기타 각종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할 조건이 아니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만일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오히려 실패에 따른 사회적 부담과 책임만 커질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기획이라고 하더라도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꼼꼼하게 확

인해야 한다. 가용 가능한 예산과 인력, 공간 등과 구체적인 실행 시기, 회수, 강사 섭외 등의 계획을 확실하게 확인한 연후에야 비로소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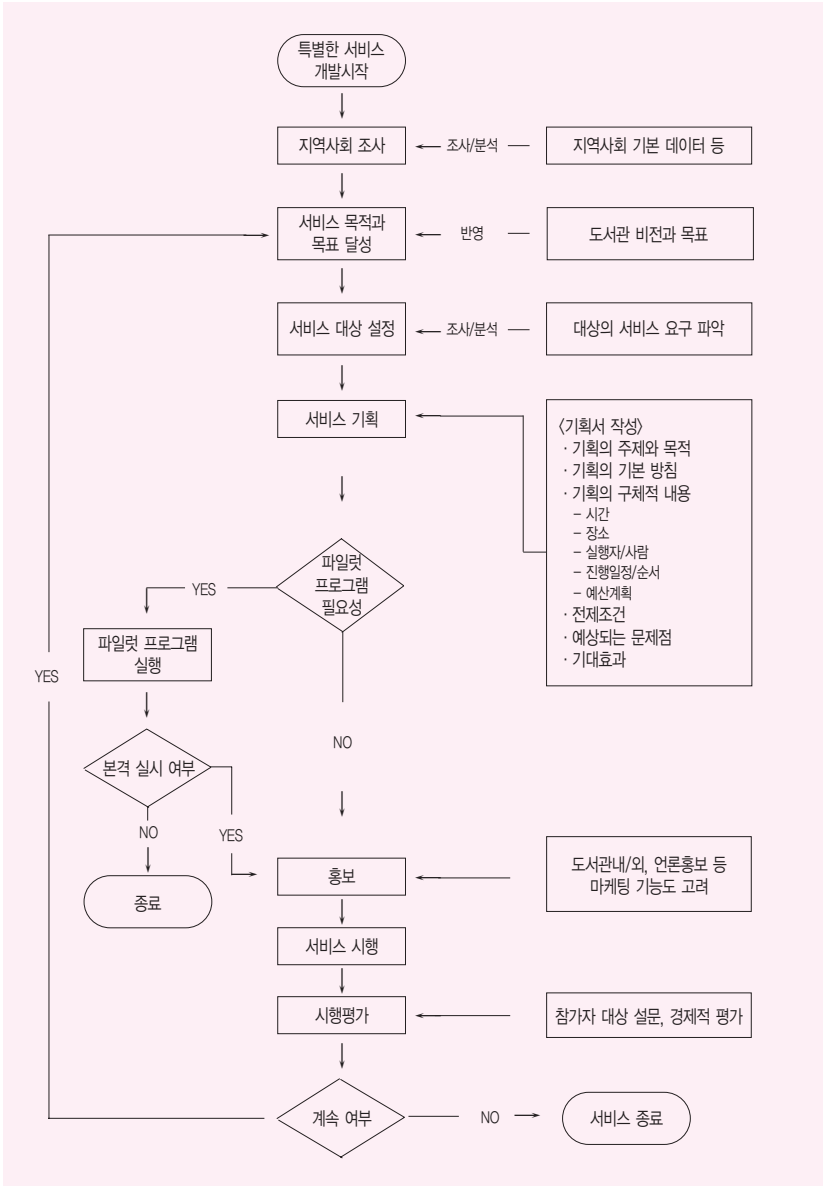
서비스를 기획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홍보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적절하게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들의 일상 공간 속에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지역 언론을 통해 서비스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언론홍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를 잘 써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 자체 홈페이지나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방안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보통 홍보는 진실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제공하는 쪽과 수용하는 쪽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간적인 접촉을 통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한 홍보를 통해 공공이익이 증대되도록 세밀하게 고려되어야 한고, 전략적으로 남들과 다른 차별성도 있어야 한다. 과감하고도 대상자의 시선을 잡을 수 있어야 하고,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되도록 해야 한다. 홍보는 그동안 기업 경영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시행되어 온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공공도서관과 같은 비영리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역량을 투입해야 할 분야이다.

기업 홍보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은 홍보 4모형(Public Relations Four Models)이라고 한다. 이를 개발한 제임스 그루닉(James E. Grunig) 메릴랜드대 교수는 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300개 이상 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이 우수한 홍보팀을 유지하면서 이들을 전략적 경영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홍

보팀은 최고 경영진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홍보기능이 통합적으로 유지되고, 홍보부서의 리더는 경영자적 마인드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홍보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갖추고 있다는 등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우수한 홍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홍보활동은 양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관에서도 앞으로 홍보를 할 때에는 반드시 도서관 경영의 관점에서 다른 서비스들과도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홍보를 전담할 직원의 배치와 같은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뉴욕공공도서관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지역주민의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전문가를 두고 적극 노력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기 전에 소규모 실험 프로그램(파일럿)을 시행해 보는 것도 필요도 있다. 특히 일회적인 서비스가 아닌 지속적 실행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새로운 고려점을 발견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 전에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 파일럿 프로그램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 또는 실무자와 접촉해서 철저히 벤치마킹을 시행해서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서비스 개발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특별한 서비스 개발시작
지역사회 조사
조사/분석
지역사회 기본 데이터 등
서비스 목적과 목표 달성
반영
도서관 비전과 목표
서비스 대상 설정
조사/분석
대상의 서비스 요구 파악
서비스 기획
〈기획서 작성〉
· 기획의 주제와 목적
· 기획의 기본 방침
· 기획의 구체적 내용
– 시간
– 장소
– 실행자/사람
– 진행일정/순서
– 예산계획
· 전제조건
· 예상되는 문제점
· 기대효과
파일럿 프로그램 필요성
YES
파일럿 프로그램 실행
YES
NO
본격 실시 여부
NO
YES
종료
홍보
도서관내/외, 언론홍보 등 마케팅 기능도 고려
서비스 시행
시행평가
참가자 대상 설문, 경제적 평가
계속 여부
NO
서비스 종료

〈그림 2〉 서비스 개발 과정

공공도서관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준비해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 기획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 서비스를 기획한다는 것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과 함께 서비스 실시에 관계된 행정당국이나 도서관 내 직원들, 이용자 등에 대한 설득과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서를 통해 이들 관계자들이 기획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해야만 필요한 제반 자원을 동원해서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몇 가지 점을 확인해야 한다. ① 왜 기획을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기획의 배경, 이유, 의의 등이 명확해야 한다. 또한 기획을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도서관 이용자 또는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 대상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기획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등의 기획목표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Why). ② 무엇을 기획하는가, 즉 내용을 정해야 한다(What). ③ 수단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How). ④ 누가 기획의 내용을 실행하는가, 즉 주체나 관계자 등을 정리해야 한다(Who). ⑤ 언제 시행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When). ⑥ 어디에서 기획을 시행할 것인가도 검토해야 한다(Where). ⑦ 끝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가를 산정해야 한다(How Much).

구체적으로 기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획의 목적과 종류, 기획서를 검토하는 사람들의 범위나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는 것이 좋다. 기획의 내용이나 범위 등을 고려해서 가감할 수 있다. 우선 기획서의 전반적인 틀을 만들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① 기획의 전체적인 조건을 생각한다. 즉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확보하거나 기획서를 보게 될 대상을 고려한다.

② 기획서에 담을 내용들을 큰 항목별로 구분하고, 배열 순서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키워드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구도를 그리는 방식이 적합하다.

③ 전체적인 구도가 그려지면 이어서 항목별로 담을 중간 또는 세부 항목을 결정한다. 이때에는 장황하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야 한다. 꼭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④ 기획서 전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각 항목별로, 또는 중요도에 따라 균형을 잡기 위해서 상세하게 기술할 부분이나 간략하게 또는 생각할 부분을 찾아본다.

⑤ 이상의 검토를 기반으로 기획서의 틀을 결정한다.

⑥ 최종적으로 재검토를 통해서 제안하는 목적과 내용은 명확한지, 기획을 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제대로 드러냈는지, 기획서의 핵심이 잘 드러나 있는지, 항목 간 균형은 잡혀 있는지, 무엇보다도 기획서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전체적으로 기획서의 틀을 확정하고 나면 직접 기획서를 작성한다. 기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일반적인 순서와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이 내용은 여러 곳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획서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도서관의 관점을 반영, 일부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대체로 기획서는 내부용인가 외부용인가에 따라, 즉 일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목적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기획서는 작성하는 내내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며,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 모든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잘 만들어진 기획서라고 하면 도입부가 매력적이고, 결론이 앞부분에 위치하여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논리적

표지부분

기획의 명칭 입안자 기획일자	· 명칭 : 쉽고 이해가 빠른 용어를 사용. 필요하면 부제 또는 슬로건을 이용 · 입안자 : 대표자 또는 개인의 이름, 부서, 연락처 등 · 기획일자 : ○○년 ○○월 ○○일
머리말	기획의 의도나 간단한 인사말, 경위 등을 간략하게 소개
목차	기획서의 순서대로 적고 쪽수를 기재

도입부분

기획의 목적 및 배경	· 도서관의 일반적 또는 지역적 현상 분석 · 도서관 부문의 미래예측 활용 · 해당 도서관의 정책, 경영방침과 전략, 절차 등과의 합치되는 점을 설명 · 기획의 목적, 목표, 필요성 등을 기술
기대효과	· 실행에 따른 기대효과나 예측효과, 도서관 내외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술 ※ 때로는 본론부분의 끝에 포함시킬 수도 있음
기획의 개요 (기획 전체의 요약)	· 기획의 컨셉, 기본구상의 개요 등을 기술 · 기획 전체의 이미지, 핵심 아이디어 등을 설명 ※ 강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해서 관심을 유도

본론부분

기획 내용	· 과제해결책 또는 구상안 설명 – 방안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 안의 장단점 비교 · 구상안의 타당성, 현실성 검토 결과 기술 · 실행전략, 방법론, 수단 등을 제시 · 실행에 대한 제약요인 설명 및 해결 방안 ※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표현
실시계획	· 실시를 위한 조직화, 구체적 계획 – 실시에 필요한 자원의 명세, 투입량, 조건 등도 상세하게 기술 · 실시 시간표 등 일정계획 – 세부작업, 인력 등 전 실시기간에서의 순서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예산	· 실시에 필요한 예산(소요경비) 산출 · 자금 조달 방법 제시 ※ 설득력 있게 가급적 현실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

보충부분

잠재요인에 대한 대책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책 · 예상하지 못한 일의 발생시 대책(절차 등) ※ 본론부분에서 기술할 수도 있음
관계자료	· 참고한 자료나 통계 등 · 타 도서관, 기관, 부문 등의 사례 · 참고문헌 등 ※ 장황하지 않으면서도 기획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조직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기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일반적인 순서와 내용

으로도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균형을 맞추고 있고, 전체 분량도 적절해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레이아웃이 세련되고, 데이터나 이미지 등도 적절하게 사용하여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며 문장도 틀림이 없으면서도 논리적이어야 한다. 준비한 기획서는 최종적으로 실천과정에서 그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기획서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실행과정에서 계속 수정 · 보완해가면서 완성해 가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특화 서비스 개발 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방법이 아직 없고,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의 사례도 찾아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처한 지역적 또는 주민들의 특성, 개별 도서관의 상황 등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일반적인 내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특화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실천되는 과정에서 개발방법도 정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03

사례 분석에 앞서

최근 많은 도서관이 지역사회를 고려해 다양하고 특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좋은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좋은 사례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가, 우리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역량은 가지고 있는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같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아무리 좋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다음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 책에서 특화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우선 사례를 살펴보는 기준을 크게 2가지로 나누었다. 한 가지는 도서관의 3요소를 고려했다. 즉 시설적 측면에서 특별한 점이 있는 경우, 장서를 이용해 특별한 점이 있는 경우, 그리고 사람(직원과 이용자)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특별한 서비스에 대해 찾아보았다.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국내외 대규모의 도서관 건립이나 리모델링이 시도되고 있는데 좋은 건물, 매력적인 건물과 시설은 그 자체로 특별하다.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전용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건축에서도 그대로 반영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매력적인 도서관 건축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대학에서도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좋은 도서관들이 속속 건립되고 있다.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지혜의 등대'는 아름다우면서도 효과적인 도서관 건축이고, 최근 개관한 시애틀공공도서관(2004)

은 독특한 건물 그 자체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도서관 건축은 도서관의 철학과 서비스 내용을 담아내는 외형으로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건물은 도서관을 특별하게 한다.

장서를 이용한 서비스는 가장 보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주제별 특화도서관 사업을 통해 여러 도서관이 주제별로 장서를 구성하고 협력하여 더 나은 자료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장서 구축은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은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전문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에 대한 균형 있는 장서 구축이 우선시 된다. 그런 연후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소장한 장서가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는 다양한 노력도 필요한데 매월 특정한 주제를 정해 소장한 장서를 소개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지역의 관심사에 관련된 자료 목록을 만들어 이용을 촉진할 수도 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는 요즘 들어 도서관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필수 분야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는 하나의 종합적인 서비스에 적합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한 도시 한 책 읽기 프로그램의 경우 사서는 전체 프로그램 진행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조율하는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점차 도서관의 장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변 사람이나 단체, 지역주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를 하나의 문화적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사서들이 지역과 도서관을 연결하고 프로그램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코디네이터로 발전하고 있다는데 그 핵심이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연령이나 계층 등을 고려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경우다. 요즘 우리사회가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데 어

린이라는 특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차츰 성인에 대한 서비스도 다양화해야 하며 도서관 서비스에서 가장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도서관법」이 지식정보소외계층이라고 규정한 장애인이나 노인, 사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으며 요즘 우리사회의 주요한 과제인 이주노동자나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도 시급하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과 같이 연령이나 직업, 사회적 신분 등을 고려한 서비스는 더욱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한 연령층이나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지역 공동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가급적 서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할머니가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본다든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다문화 서비스를 통해 인종과 국가를 넘어 현재의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친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의미가 있다.

도서관 3요소를 고려한 서비스나 연령과 계층 등을 고려한 서비스는 서로 융합시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사실 어느 한 서비스를 명쾌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주로 어떤 점을 고려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정도를 고려해서 대략 구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사례들은 그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다른 도서관들도 새로운 서비스, 의미 있는 서비스, 차별적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시도하고자 할 때 최소한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또한 이 사례들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해 보고 개선을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어

느 도서관이든 특별하다. 아무리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과 도서관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서와 이용자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특별한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지역사회 속에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데 적합한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것만이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고 시행하는데 중요한 목적이자 의미가 될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공공도서관과 우리도서관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도서관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보물을 발견하고 잘 가공해 이용자에게로의 서비스로 연결시켜야 한다.

도서관마다 저마다의 특별함과 보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관의 3요소를 고려해 시설이 특별해서 매력적인 도서관, 다양한 장서로 서비스하는 도서관,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특별해진 도서관, 이용자와 눈높이를 맞춘 도서관 등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사례가 될 만한 도서관들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자! 이제부터 특별한 도서관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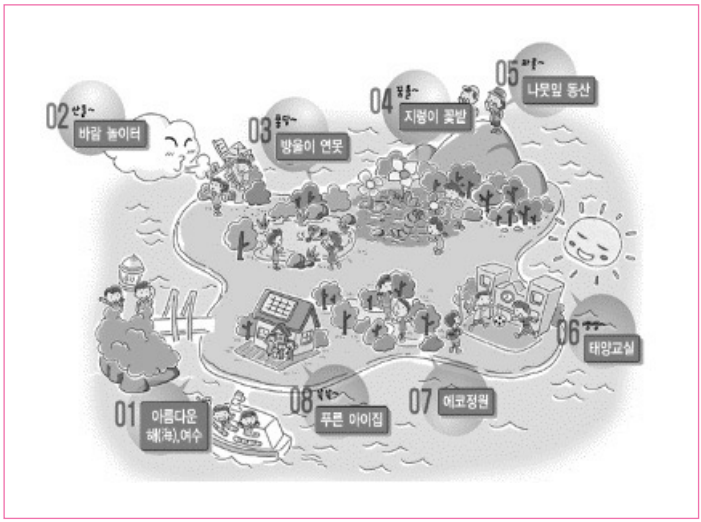
시설이 특별해서 매력적인 도서관

도서관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다 여수시립환경도서관

시설별 특화사례를 찾기 위해 자료를 모으던 중 우리나라에 환경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환경도서관이라는 특이하고 낯선 이름은 도서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왜 만들어 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모든 것이 궁금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담당 사서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취합된 자료로 구성했다.

환경도서관은 여수산단 산남석유화학㈜이 기탁한 7억원과 국비, 시비 등 총사업비 33억원을 들여 인구 밀집지역에 환경테마 중심의 도서관을 건립한 것으로 문수동 여문공원 내에 지었으며 2007년 8월에 임시 개관했다.

여수시립환경도서관은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도서관과 환경을 하나의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테마 도서관이 중심이 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환경홍보전시관, 꿈열림터(아동자료실), 지혜 열림터(일반자료실), 환경자료실, 강의실, 어울마당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도서관 내의 환경홍보 전시관은 크게 8개의 코너로 구성하였으며, 각 코너별로 최첨단 멀티미디어와 영상 매체를 활용해 생동감 있게 만져보고, 듣고,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꾸몄다.



〈그림 4〉 여수시립환경도서관 환경홍보전시관

특화된 환경도서관을 설립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민한 부분은 첫째, 친환경적으로 건축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환경관련 도서와 자료 등을 소장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점, 셋째, 환경학습시설 기능을 위한 특화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점, 넷째,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다섯째, 주변 공간에 생태학습장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친환경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태양열 바닥 난방, 태양열 급탕, 자연광 채광, 광파이버 조명, 빗물의 중수도 이용, 풍력발전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하여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친환경적 건물로 만들어야 한다. 이중외피, 태양열이용시스템, 조명자동제어시스템 등 다양한 건물 에너지 절약 요소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시켜 건축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건물이나 태양열 이용 냉동기 설치, 태양열을 직접 난방, 급탕에 활용, 단열 강화로 인한 열손실 방지시설 등이 반영된 대우건설기술연구소

등을 사례로 삼아 볼 수 있다(강흥순 2005).

환경 관련 장서구축과 환경 학습을 위한 시설 구상을 위해서는 일본의 구마모토현 환경센터가 모델이 될 수 있다. 구마모토현 환경센터 정보플라자에는 일반 환경도서 5,700권, 아동도서 2,000권, 비디오 470개, 교육, 행정자료 900권, 기타 잡지, 신문, 각종 단체들이 제작한 자료집 등 다양한 환경자료들이 소장되어 있고,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환경정보의 검색과 비디오 시청 공간이 별도로 있다. 환경학습을 위한 시설은 쓰레기, 자원재활용, 물 절약, 가정용 배수, 하천오염, 하수처리, 빗물의 중수도 이용, 숲의 기능, 나무와 종이의 절약, 멸종위기 동식물, 지구의 생성과 인류의 삶 등에 관한 시설물과 영상들을 통해 생활과 환경과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독립적인 학습공간으로 구성했다. 이 공간은 현관에서부터 주방, 화장실, 거실 등을 보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구마모토현 환경센터

현관 에콜로지 하우스의 교육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코너이다.

쓰레기 문제와 자원재활용에 대해 배우는 코너이다. 쓰레기의 성상에 맞게 재활용 구분을 맞추는 퍼즐 놀이가 있는데 퍼즐을 정확하게 맞추면 그 부분의 대한 자세한 설명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놀이와 환경공부를 결합하여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부엌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하천의 오염 등에 대해 배우는 코너이다. 재미있는 영상과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주방기구들이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위생 공간 물 절약의 필요성과 빗물의 중수도 이용, 정화처리 시스템에 대해 배우는 코너이다.

정원 나무와 숲의 기능, 산성비 등에 대해 배우는 코너이다. 신문지 한 묶음을 나무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계측해 볼 수 있는 나무 저울도 있다.

어린이방 환경문제와 생명의 역사, 해양 생물 등을 PC게임을 통해 배우는 코너이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숙제를 위해서) 자료들을 따로 모아 전시 열람할 수 있게 도와준다.

거실 지구의 생성과 인류의 역사, 환경문제에 대해 배우는 코너이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편리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환경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는 코너이다.

환경퀴즈 각 코너마다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환경 인식도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코너이다. 아이들은 에콜로지 하우스에 들어올 때 퀴즈에 참여할 수 있는 카드를 받게 되는데 각 코너마다 있는 퀴즈의 답을 쓰면 자신의 환경 인식도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정보카드 코너마다 그 코너의 교육 내용에 맞는 다양한 정보카드를 제공한다. '생활의 지혜 카드'라 불리는 이 카드는 25종이 있다.

환경 극장 170인치 스크린이 설치된 환경학습 실이다. 비디오 프로젝트, 170인치 스크린, 해설 테이블, 슬라이드 영사기 등의 시설이 있다.

학습실 지구 환경문제에서부터 생활주변의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테마의 실험 또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트, 슬라이드 영사기, 70인치 스크린 등의 시설이 있다 (강흥순 2005).

〈그림 5〉 구마모토현 환경센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을 특화한 도서관의 경우 건축, 장서, 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해결형 환경학습을 위해서는 센터 실내 교육, 움직이는 환경 교실, 환경교육 지도자 파견, 환경세미나 등이, 자연체험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바다 어린이 교실, 갯벌관찰 교육, 별자리관찰 등이,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넓혀 나가는 다양한 활동에는 어린이 환경축제, 자원재활용 체험행사, 환경문화공연, 기획 전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6〉 환경홍보전시관을 견학하고 있는 아이들

마지막으로 도서관 주변에 생태학습장이 조성되면 더욱 좋을 듯 싶다. 여주시립환경도서관의 경우 근처에 여문공원이 있어 여문공원을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향후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에서 환경을 배울 수 있는 여수시립환경도서관은 개관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본의 구마모토현 환경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시설을 더욱 특별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환경 분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와 관련한 장서를 갖추며, 또 시설과 장서를 연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색 있는 건축물로 도서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기적의 도서관

〈그림 7〉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순천기적의도서관, 금산기적의도서관, 순천기적의도서관, 정읍기적의도서관, 제천기적의도서관

시설 특화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사례로 소개하고 싶었던 곳이 바로 기적의 도서관이다. 기적의 도서관이 처음 생긴 2003년만 해도 전국의 도서관은 대부분 네모반듯한 관공서 건물 비슷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대부분이었다. 기적의 도서관 건축에는 유명한 건축가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브라질 꾸리찌바시에 있는 '지혜의 등대' 같은 상징적인 도서관 건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에 기적의 도서관은 도서관 내부의 특징뿐 아니라 외형적인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적의 도서관이 처음 만들어질 때 사람들은 그 명칭에 의아해 했었다. 왜 하필 '기적의 도서관'인가? 때론 '기저귀 도서관'으로 부르는 사람도

생겼다. '기적의 도서관'은 주 이용계층이 어린이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적의 도서관은 그 시작부터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도서관문화를 이야기할 때 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있지 않아서' 등 많은 말들을 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우리사회에서는 별로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민간방송,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전국 여러 지역에서 추진해 온 어린이 전용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은 많은 인기를 끌었다.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즐거운 쉼터, 만남의 장소로 만들고자 애썼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자기 고장의 문화와 역사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점은 민과 관이 함께 세우고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이라는 점이다. 이 도서관은 한 민간 텔레비전 방송의 책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모아진 시민성금,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간영역이 기부한 각종의 자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낸 분담금으로 지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민간 인사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운영의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담당한다. 이것이 바로 질 높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의 창의'와 '관의 자원'이 결합하는 새로운 민관협력체제이다.

'기적의 도서관'이 참다운 의미에서 '기적'의 도서관일 수 있는 것은 건립 정신과 취지이다.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창조적 성장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회의 사회적 평등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모형의 어린이도서관을 제시하고 구현한 것이다. 이런 정신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적의 도서관'은 건축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델의 공

간구조를 설계했고, 비건축 부분에서도 획기적인 프로그램 운영모형과 봉사의 모형을 설계했다.

건물과 공간구조의 차원에서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설계되어 한 살인 갓난아이도 보호자와 함께 올 수 있도록 따뜻한 온돌마루가 깔려있으며, 엄마, 아빠와 아기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아가의 방'도 있다.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이야기방'을 만들었고, 책 읽기 외에도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새로운 매체 환경을 구현하는 다매체실, 장애아동들을 위한 시설과 콘텐츠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직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가고 싶은 친숙한 도서관"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일반 공공도서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운영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정성어린 서비스 체제를 갖추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책읽기를 비롯해서 이야기 들려주기, 노래, 춤, 그림, 영상, 공작, 낭송, 연극, 디지털 문화활동, 탐방, 놀이 등 온갖 종류의 창조적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의 길을 터주고 가정과 도서관을 이어주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고, '북스타트' 같은 프로그램도 도입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림 8〉 청주기적의도서관 발표회

〈그림 9〉 제천기적의도서관 흙피리 만들기 수업중

〈그림 10〉 진해기적의도서관 엄마와 아기랑~북스타트운동

기적의도서관에 구현된 최소한의 공간 및 시설의 종류

1. 열람실 1, 2(2는 고학년 아동용)
2. 사서 데스크
3. 사서/직원 사무공간
4. 이야기방 1, 2
5. 영유아 수면실
6. 서고
7. 강당 혹은 다목적 공간과 무대 : 영사실, 조정실 포함
8. PC 등 전자매체실
9. 자원활동가들의 방, 세미나실
10. 생명재배 공간
11. 오목 공간과 다락방
12. 화장실(남녀)
13. 입구 카페 공간
14. 신발장 공간
15. 열람실 초입의 손 씻는 곳
16. 외부 베란다 혹은 테라스
17. 전시 공간
18. 소형 창고/탕비실
19. 사용 가능한 옥상
20. 아이들의 모임방/동아리방

(출처 : 안찬수 2005)

농촌지역 마을사랑방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시설별 특화사례를 살펴보면서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의 사례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본 사례는 안남배바우 작은도서

관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옥천신문 황민호 기자의 인터뷰 기사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명희 간사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인구 5만4천의 옥천군, 옥천군 중 가장 적은 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아담한 산골이 바로 안남면이다. 안남면에 살고 있는 사람은 1,600명이 채 안 되고 초등학교 학생 수는 전교생이 50여명을 겨우 넘는다. 옥천군 중 가장 작은 면인 안남면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 만들기에 애착을 보였다. '대한민국 주민자치 1번지' 라고 불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2002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2003년에는 안남어머니학교 개교, 2007년에는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개관, 2008년 '안남면 100년 미래 컨설팅' 까지 안남면은 주민자치가 그동안 곳곳에서 펼쳐졌었다.

이러한 안남면에서 2006년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를 구성하고 활동한 결과 안남농협(조합장 민종규)이 535㎡의 터를 제공했고, 2억원의 지원기금으로 225㎡의 복층 건물을 지었다. 또한 군은 추경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 2천7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했다. 주민자치로 일궈 낸 작지만 큰 성과이다.

농촌지역 도서관에서 도서관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농촌 마을의 도서관은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아이들의 방과 후 신나는 놀이터로, 농촌 여성들의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으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도서관은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실과 청소년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교환하고 토의하는 동아리방, 회의 및 영화감상과 프리젠테이션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 마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사랑방, 아이들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맛있는 음식을 손수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부엌, 동네 어린아이들의 책방이나 이야기방으

로 사용되며 저녁에는 작은 천문대가 있어 별자리구경이 가능한 2층 다락방, 수중생태계를 담은 연못, 책 읽는 야외 원두막, 안남어머니학교 강의실겸 마을 사진 전시실 등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림 11〉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외관과 주변

이러한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이 다른 곳에 비해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마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꼼꼼하게 반영되어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도서관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책을 보관하고 이용시키는 것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기관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도서관에 이런 기능들이 많이 중요시되고는 있지만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작은 마을일수록 더욱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른 어떤 기능보다 지역청년회 모임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은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색을 드러낸 좋은 예이다.

이제 주민들은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안남어머니학교에 다니는 할머니들, 어린이들도 도서관이 제2의 삶의 공간이 되었다. 4월에는 '배바우' 라는 소식지도 처음 만들었다.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같이 소식지를 만들면서 어른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이렇게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은 날로 성장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도서관이 낯설어 방문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책이란 환경이 낯선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 저소득층 가정이 어느 면보다 많은 안남면은 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림 12〉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내부

농산어촌의 도서관은 좀 더 주민 밀착형 · 주민주도형의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공공도서관' 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도서관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센터' 가 되어야 하며, 시민의 대학이자 주민의 서재가 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단순히 문화정책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복지정책의 영역이기도 하다고 보아야한다. 최근 도서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도서관은 각 지역을 배경으로 한 문학, 연극, 영화, 무용, 오페라, 뮤지컬 등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서관에 풍부한 지역정보를 모으고 연구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다.

과거를 현재에 재현한 세계적인 걸작품 알렉산드리아도서관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은 과거를 현재에 재현한 세계적인 걸작품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도서관, 천문과학센터, 박물관, 전시관, 오디토리엄, 회의장 등의 복합시설로 이루어져 도서관을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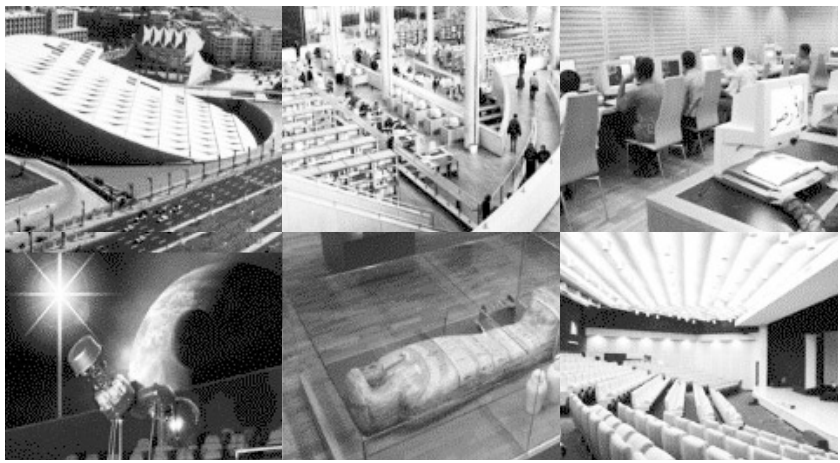
1974년 알렉산드리아대학교 무스타파 알 아바디(Mustafa El-Abbadi) 교수를 중심으로 캠퍼스와 해안가 사이에 새로운 도서관 건립계획을 세우면서,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이집트 대통령과 영부인 수잔 무바라크(Suzan Mubarak) 여사는 역사책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을 현대에 재현하자고 주창했다. 그들의 호소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1998년 UNESCO의 후원으로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재건을 위한 기구가 발족되었다.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노르웨이의 스노헤타(Snøhetta) 건축사사무소의 계획안이 선정되었으며 3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오만 등 아랍 국가들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의 다른 나라들 및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이 분담했다.

"세계로 향하는 이집트의 창, 이집트로 향하는 세계의 창",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기관", "학습, 관용, 대화, 이해를 위한 센터"를 목표로 2002년 10월에 개관한 신 알렉산드리아도서관(The Bibliotheca Alexandria)은 고대 알렉산드리아도서관 터로 추정되는 곳에 건립되었다. 지름 160m 높이 33m의 원기둥형 건물로 지붕 전체가 자연광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창으로 시공하였고 지중해를 향한 북쪽이 20°의 경사로 기울여져 있다.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한 원형(圓形)외관은 인류의 지식 전체를 상징한다.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은 도서관 건물 자체만으로도 세계적인 걸작품이다.

알렉산드리아 시의 고도제한으로 인해 도서관의 11층 건물 중 다섯 층은 지하에 지어졌다. 대열람실들이 모두 지하층에 자리 잡고 있지만 자연광을 살려낸 덕에 전혀 지하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설계돼 있다. 즉 기초공사가 대규모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하영식 2003).

도서관, 천문과학센터, 박물관, 전시관, 오디토리엄, 회의장 등의 복합시설로 이루어진 85,405m² 면적의 최대 8백만 책의 수장능력을 가진 이곳은 매년 8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전창호 2007). 첨단비디오, 영사시설을 갖췄고, 컴퓨터로 모든 서지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으로 거듭났으며 맹인과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국제학술회의장도 있다.



〈그림 13〉 알렉산드리아도서관 외관 및 내관

알렉산드리아에 신도서관이 개관한 후 대부분의 알렉산드리아 대학의 학생들은 신도서관을 대학도서관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유는 컴퓨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신도서관에는 2000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해놓았다. 컴퓨터실에는 많은 수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인터넷 사용에 열중하고 있으며 일 년에 30파운드(약 8000원)만 지불하면 일 년 동안 도서관의 컴퓨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단지 컴퓨터 사용만을 위해서라도 도서관을 찾고 있다.

현재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도서관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역사적 의미가 큰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은 건축 모형에 있어서도 세계적이지만, 장서의 질 부분도 최고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워낙 세계적으로 거대한 프로젝트이기도 했지만,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들, 도서관의 상징성 등 도서관에 관한 많은 부분을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온 과정들이 축적되어 탄생한 모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많은 도서관 건축물과는 차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들이 많다.

모두를 위한 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

미국의 시애틀공공도서관(Seattle Public Library)은 시애틀시가 1998년부터 "모두를 위한 도서관(Library for all)"을 목표로 2004년 5월 개관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세리토스공공도서관(Cerritos

〈그림 14〉 시애틀공공도서관 외관

Library)과 더불어 선진국 공공도서관 신축의 모범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 도서관은 네덜란드의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와 미국의 LMN Architects, 두 회사가 공동으로 설계한 독특한 외관으로 인해 도서관계와 건축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견학이 끊이지 않고 있다.

OMA의 대표인 해체주의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는 외관보다 건물 내부의 설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한다. 그는 도서관을 어느 공공시설보다도 변화의 속도가 빠른 건축물이라고 판단하고 33,700m²의 면적 가운데 사무실, 회의실, 시청각실과 같은 곳은 확정적인 기능으로, 서고는 비확정적인 기능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서고공간의 경우 계단을 두지 않고 바닥을 경사지게 하여 아예 층의 구분을 없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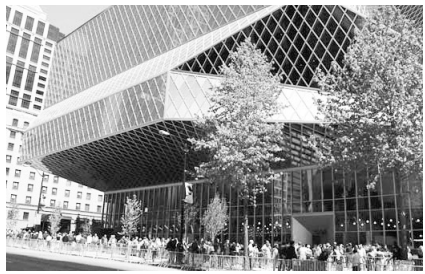
일반 건물과 달리 층간 구분을 없애는 대신 연두색 에스컬레이터로 각 층을 연결, 이용자들이 쉽게 이동하면서 도서대여, 독서, 도서검색 등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시애틀공공도서관이 미국 시애틀시가 '모두를 위한 도서관(Library for all)'이라는 목표 아래 지은 신 중앙도서관으로 문화 · 기술 · 지식 등 21세기 미국 정보사회 문명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애틀공공도서관 건립에는 시애틀 정부와 기업, 시민들의 힘이 보태져 있다. 시애틀시는 1998년 시민 투표를 통해 1억 6,550만달러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중앙도서관을 짓기로 결정했다. 1890년 처음 지어 1960년에 개

〈그림 15〉 시애틀공공도서관 내부

축한 기존 중앙도서관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 지어 시애틀의 새로운 상징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또 시애틀시는 3개의 지역 분관을 신축하고, 27개 기존 지역 도서관들을 신 중앙도서관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시애틀의 지식 인프라 전체를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시애틀시의 원대한 구상은 미국에서도 드문 사례였지만, 2만2,000여명의 많은 시민들이 동참함으로써 힘을 얻어 나갔다.



〈그림 16〉 시애틀공공도서관에 입장을 기다리는 시민들

특히 시애틀공공도서관재단(www.foundation.spl.org)은 8,200만달러를 모금해 장서확충과 첨단 기술 도입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돈 가운데는 시애틀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기부한 각각 2,000만 달러와 2,200만달러 이상의 거금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시, 정부, 기업, 시민들이 힘을 합쳐 모든 사람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었고 미래를 위한 원대한 구상이 실현됐다.

1층에 마련된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놀이방 같은 느낌을

준다. 도서관 측에서는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오도록 하기위해 컴퓨터, 입체북, 다양한 프로그램, 심지어 게임기까지 갖춰두고 어린이들이 도서관에만 오면 모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서관과 친숙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도서관 관계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어린이도서관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로비가 나온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컴퓨터를 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으며, 신문, 잡지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가끔은 공연도 볼 수 있으며 때로는 영화도 관람할 수 있다. 3층부터 7층까지는 도서관 서고이다. 서고의 디자인이 조금 독특한데 약간 경사진 면에 번호가 쓰여 있고 그 옆 서고에는 그 번호대의 책들이 꼽혀있다. 그렇게 7층까지 빽빽이 책이 쌓여져 있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구성돼 있다. 누구나 보고 싶은 책을 찾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 시민들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져 시애틀의 발전에 기틀이 되고 있다.

〈그림 17〉 시애틀공공도서관 서고와 강당

이곳의 하루 이용객이 500명~800명 정도이고 1살부터 90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용 코너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이곳에서는 도서관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 책을 읽어주거나 노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스토리텔링, 컴퓨터교실, 중국어교실, 스페인어 교실, 심지어는 시민권을 얻는 방법에 대한 교실까지 다

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이사, 이혼, 나쁜 짓, 죽음 등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일본, 인디언, 라틴, 흑인 등 다양한 문화에 대한 장서목록까지 갖추고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 주고 있다(조상원 2007).

미래의 주역을 위한 특별한 체험 공간 세리토스도서관

외국의 도서관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도서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곳이 많은데 1973년 개관하여 1990년대 말 대대적인 확장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공시켜 2002년 재개관한 캘리포니아 주 세리토스도서관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림 18〉 세리토스도서관 외관과 어린이실

세리토스도서관의 어린이실에는 길이 40피트, 높이 12피트의 실물크기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복제품과 "Spirit of Cerritos"라 불리는 NASA의 우주왕복선 모형,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15,000 갤런의 바닷물에 다양한 색깔의 물고기를 관찰할 수 있는 수족관이 설치되어있다. 게다가 이곳에 있는 열대우림나무는 아이들이 열대우림의 치유 성질을 포함하여 어떻게 나무가 공기를 정화하는 지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우며 나무 아래

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한 지질학적 연대에 대한 과학적인 상식을 자연스럽게 습득시킬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조명 효과를 통해 다양하고 신비하고 다채로운 하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9〉 세리토스도서관 어린이실 내부

세리토스도서관의 경우 특징적인 상징물을 도서관 내부에 만들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개발에 도서관 건축을 접목시킨 흥미로운 사례이다.

지혜의 길로 안내하는 도서관 지혜의 등대

브라질 꾸리찌바시를 방문한 사람들은 파벨라라 불리는 빈민촌을 비롯해 저소득층지역에 등대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이 등대는 망망대해에서 뱃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아니라, 세계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 가운데 하나인 브라질의 한 도시가 빈민들에게 '지혜의 길로 안내

〈그림 20〉 꾸리찌바시 로고

하는 동네 도서관'을 제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등대이다. 브라질 말로 '파로우 도 사베(Farol do Saber)'라 불리는 이 '지혜의 등대'는 지역사회에 있는 시립초등학교 근처에 건설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등대는 꾸리찌바시가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그림 21〉 지혜의 등대 외관

각 등대마다 약 5,000~8,000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는 '지혜의 등대'는 학생과 빈민들에게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도서를 대여해주고 있다. 꾸리찌바시의 통계에 따르면 평균 이용자수는 각 등대별로 약 3,000명이고, 책은 한 달에 최고 4만7천권을 대출해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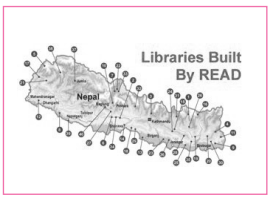
3층의 철골 구조물로 건설된 이 등대는 건축 기법도 매우 간단하다. 바닷가의 등대를 모방해 설계했지만, 불과 98㎡에 지나지 않는 작은 면적에 높이 16m로 건설되었다. 1층에는 책이 진열된 선반과 책상, 사서가 근무하는 컴퓨터가 비치된 진열대가 있고, 2층에는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적당히 구비된 조용한 방과 몇 개의 탁자,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다섯 대의 컴퓨터가 갖춰져 있다. 또한 나선형의 계단을 올라가면 경찰관 한 명이 밤 9시부터 근무하는 망루가 있고 비상전화가 가설되어 있다. 지식의 빛을 비추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의 등대'는 밤이 되면 지역사

회에 아름다움과 안전을 제공하는 '치안의 등대'로 변하는 것이다. 이는 등대가 위치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치안을 개선시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상당히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박용남 2006).

〈그림 22〉 지혜의 등대 내부

우리나라에서도 동두천시가 이와 비슷한 등대도서관을 세운 바 있다.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 등대를 이용해 두 가지 역할을 하게끔 한 꾸리찌바시의 지혜의 등대는 브라질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우리만의 도서관을 갖기 위한 기지를 발휘해 볼 때이다.

공동체 성장을 위한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리드 네팔



〈그림 23〉 리드 네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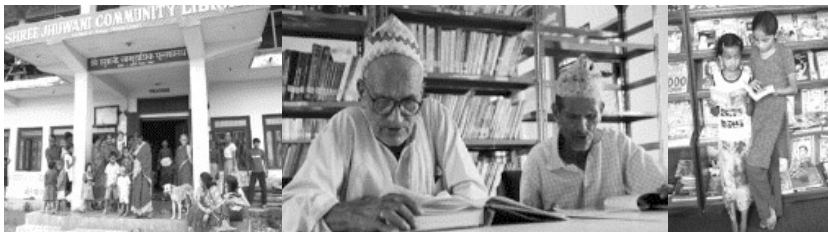
앞에서 소개한 안남면 사례와 비슷한 주민주도형 사례가 해외에도 있다. 바로 지난 2006년 빌 앤 멜린다 게이츠재단으로부터 '배움의 기회제공상(Access to Learning Award)'을 받은 '리드 네팔(READ Nepal, Rural Education and Development Nepal)'이 그러하다. 네팔은 세계

에서 산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속한다. 전체 인구 2,800만 명 중 90%가 시골에서 살고, 절반 이상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살며, 3분의 1이 저소득층이다. 또한 성인의 절반(성인 여성의 1/3)만이 글을 읽고 쓸 줄 안다.

'리드 네팔'은 지방 주민들의 교육, 경제, 공동체 개발을 돕기 위한 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1991년 카트만두에 설립되었다. '리드 네팔'의 성공 비결은 각 마을 공동체가 도서관을 고안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 그들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을 공동체는 '리드 네팔'에 관해(주로 구두로) 소개를 받고 계획서를 제출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는 도서관 부지와 20%의 초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주민들은 전에 살던 집을 내놓기도 하고, 쌀 한 되를 팔아 기부하기도 한다). 도서관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예상되는 도서관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가구공장, 인쇄소, 문방구, 방앗간, 인력거 등의 사업을 펼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금 중 도서관 운영에 쓰고 남는 돈은 다른 공동체 프로젝트에 쓰인다(육아시설, 보건소, 다리 건설, 장학금 등).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도서관을 운영하고, '리드 네팔'은 사전교육과 사후관리를 맡는다. 각 마을은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주민들 스스로 운영원칙을 제정한다. 또한 주민들이 건축 부지를 선정하고 건물을 디자인하며 건축을 감독하고 사서를 뽑는다. 이 방식은 "외부 지원 없이도 도서관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리드 네팔'의 사례를 보면, 외부 지원은 부분적인 것으로 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도서관 운영과 발전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주민에게만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라

는 것은 옳지 않다. 주민의 자치적인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이 결합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4〉 Shree Jhuwani Community Library

05

다양한 장서로 서비스하는 도서관

도서관간의 협력을 키우자, 분담수서

현재 도서관들은 장서에 관해 부족한 예산, 자료양의 증가, 가격인상, 공간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 간 상호협력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따로 자료의 협동 수집, 보관, 공동정리, 교환 등의 형태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협력을 통한 분담수서는 한 도서관에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져가고 있으며 자료 구입과 개발, 이용자 요구 충족이란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협력체제가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되었다(Markuson and Woolls 1980).

분담수서는 용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담수서, 협동수서, 공동수서(Cooperation Acquisition)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분담수서(Shared Acquisition)는 여러 기관이 다같이 구독하기 위해 컨소시엄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값싸게 구독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단일 도서관이 갖는 소장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수서 업무를 조정하는 시스템이다(사공철 1996). 즉 도서관간의 상호협정을 통해 자료를 분담해서 구입하는 것이 분담수서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공동수서나 협동수서란 여러 도서관들이 각각 수집하는 자료의 주제나 유형을 사전에 결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자원공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곽철완 2002).

본 서에서는 공공도서관 중 분담수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안양시, 수원시, 부산광역시)도서관의 사례 몇 가지를 그 주제 분야와 수서기준을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안양시는 인구 60만의 도시로 공공도서관 6개관이 건립되어 있어 인구 8만 명 당 1개관 수준이며 2007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도서관수준(607개관)을 볼 때 평균에 속한다. 게다가 2009년 2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어서 공공도서관 확충에 있어 모범적인 지역이다.

안양시 도서관에서는 1999년부터 특화장서주제를 지정하여 구축하고 있는데 정해진 주제에 대한 각 도서관별로 전체 장서의 10%를 채워야 하는 내부 방침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서는 연 4-5차례 진행하며(신청도서 제외) 안양시 도서관 사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료선정위원회가 있어 장서 구입 시 심의를 받는다. 장서 특화에 대해 특별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전자자료에 대해서는 온라인강좌학습, 오디오북, 전자책, 도서요약서비스 등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하고 있다.

수서담당직원은 직접 서점을 방문하거나 관련 전문 출판사가 추천하는 목록을 받는 등 특화장서 수집과 관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화장서 수집에 대한 원칙은 첫째, 안양도서관과 인근시의 타도서관의 장서구성 비율을 살핀다. 둘째, 안양도서관과 인근시의 타도서관의 자료이용비율을 살핀다. 셋째, 전년도 국내도서 발행종수비율을 살핀다. 이렇게 3개 항목의 평균 비율을 구해 구입에 따른 장서유별 구성비를 산출하고 도서관별 특화장서의 기본비율로 적용시키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의 도서관 사례 역시 안양시와 유사하며 수원시의 8개 도서관에서는 각 하나씩의 주제를 특화하여 수서를 하고 있다. 그 중 북수원

도서관과 선경도서관은 예술(미술)과 역사(성곽, 화성)에 대한 각종 발간물, 학회지, 도록 등을 수집하고 있다. 수원화성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선경도서관의 경우 지역적 특색에 따라 장서 주제가 결정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특화주제에 대해 소장하고 있는 도서목록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특히 선경도서관의 경우 화성에 관련된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한지에 인쇄 · 제본하여 소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원과 관계된 향토자료 수집, 성곽에 관련된 논문 및 학술지 수집 외에도 화성과 관련된 문화자료들을 전자책으로 볼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그림 25〉 북수원도서관의 특화자료(예술)코너

〈표 3〉 안양시와 수원시의 도서관별 장서특화분야

안양시 도서관	특성화분야	수원시 도서관	특성화분야
석수	순수과학, 전자자료, 외국자료	선경	역사(성곽)
만안	기술과학, 논문, 학술지	서수원지식정보	문학(수상작품)
박달	철학 및 어린이, 청소년	북수원지식정보	예술(미술)
평촌	사회과학, 지역사회(향토)	중앙	사회복지(노인복지)
호계	논술, 취업, 창업	영통	한국학 · 외국인
어린이	어린이	슬기샘어린이	천문 · 우주
		지혜샘어린이	환경 · 에너지
		바른샘어린이	멀티미디어

부산광역시에는 해양 · 수산관련 자료를 특성화하고 있는 연산도서관이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공공도서관 특성화 사업 시책에 따라 교육청산하, 부산소재 공공도서관 11곳을 도서관별 특화자료 분야를 결정해 시행해왔다. 연산도서관은 1998년 3월부터 해양, 해운, 항만, 조선, 수산, 물 가공, 수산양식 등 해양 · 수산관련 전 분야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

연산도서관 특화자료실의 운영목표는 국제무역항을 가진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을 살려 해양, 해운, 항만, 조선, 수산관련자료를 총체적으로 수집하여 일반시민, 학생, 수산업 관계자의 해양탐구 및 연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과 유관 대학과의 상호 공동으로 해양탐구 자료 활용 및 해양탐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성과 관심을 제고시키며 부산시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2층 종합자료실 내에 해양 · 수산 특성화 자료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해양, 해운, 수산, 해양오염 등에 관한 총체적인 자료, 해양지도자료, 해양관련사진, 해양그림자료, 해양관련법규집, 편람, 사전류 등 참고자료, 연구보고서, 논문, 세미나자료, 해양관련잡지 등 정기간행물, 팸플릿자료 및 각종 전시관소개자료 등을 볼 수 있다.

특성화 정보 모음인 '내고양의 해양'을 통해서는 지역의 해양정보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홈페이지 내(http://www.yeonsanlib.kr/design13/special/sub01.php)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등 특화자료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그림 26〉 부산연산도서관 특성화 자료코너

향토자료 발굴과 보존을 위한 노력 속초도서관 [3)]

천혜의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속초도서관은 1986년 5월에 개관한, 연면적 1,514㎡의 소규모 도서관이다. 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서관'을 지향하며,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및 화제의 신간도서' 코너를 특색사업으로 운영, 2주에 한 번씩 신간도서를 구입 · 비치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매일 들를 수 있도록 '도서관과 친구하기-1일 1스티커'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향토자료 발굴 및 보존사업에 주력하여 지역 역사의 지킴이

3) 본 사례는 도서관연구소에서 2007년에 발간한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서술

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토자료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도서관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집범위는 시청, 시의회,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자료로 한정적이었고 수집방법 또한 수동적이었다. 이에 2006년 하반기, 속초도서관에서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향토자료를 모아 디지털자료로 제작, 효율적으로 보관 · 관리할 수 있도록 '향토자료 발굴 및 E-Book 제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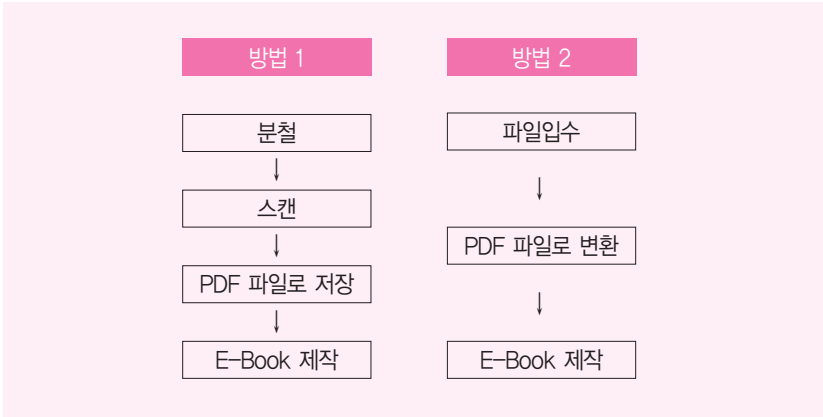
수집하는 향토자료의 범위는 연감, 시지(市紙) 등 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포함한 지역 학교의 졸업앨범과 문집, 개인 저작물, 전단지 등으로 넓히고 보존 방법도 원본 그 자체의 보존에서 나아가 E-Book으로 제작 보존하도록 하여, 제작된 E-Book이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속초도서관에서는 '향토자료 발굴 및 E-Book 제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다. 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3년간으로 예전에 발간된 자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집, 디지털 자료로 제작한다. 자료 수집범위는 첫째, 현재 향토자료로 인정받고 있는 연감, 시지, 속초시의회자료 등이며 둘째, 현재 역사적 가치가 없으나 미래에 희소성으로 인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자료로 학교의 졸업앨범이나 문집, 소식지, 선거유인물 및 개인저작물 등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첫째, 유관기관 및 학교와 '공동보존협약'을 체결하여 발간자료들을 도서관에서 공동으로 보존할 수 있게 하고 도서관에서는 그 자료를 E-Book으로 만들어 다시 해당학교에 제공하는 유기적 시스템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 둘째, 전국적으로 앨범을 전부 보관하고 있는 학교가 없는 실정이므로 총동창회를 통하여 졸업생들이 소

장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각종 향토 자료를 발간하고 있는 지역협회를 통해서 수집한다. 또한 홍보를 통해 지역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향토자료들을 발굴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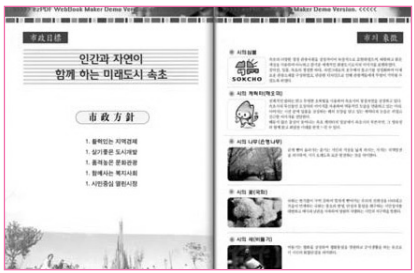
향토자료의 디지털화는 PDF파일로 디지털자료를 만들고 있다. PDF파일 리더기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언제 유료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PDF파일을 어떤 컴퓨터에서든지 자동 실행될 수 있는 E-Book으로 제작되도록 한다. 이미 발간된 자료는 원본 파일을 구하기 어렵겠지만 스캔한 자료들은 해상도가 떨어져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발간될 자료들에 대해서는 파일 자체를 입수하여 PDF파일로 변환하고 E-Book으로도 제작해 깨끗한 해상도를 가진 디지털자료를 만드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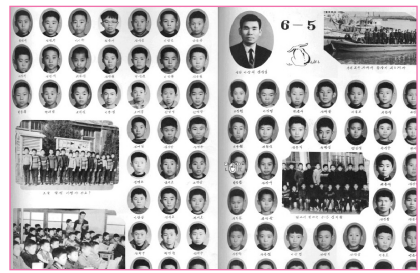
〈그림 27〉 속초도서관 향토자료 디지털화 방법

어떤 일이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속초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여러 차례 방문하여 노력하는 등, 다각도의 시도를 통해 2007년 운영비를 확보했다. 그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가장 먼저 스캐너(A4용, 2개)와 프로그램(Acrobat 7.0 Standard)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E-Book 솔루션은 워낙 종류가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솔루션을 선택하고, 업체로부터 데모버전을 받아 시범적으로 『속초연감 2000 · 2001』(592쪽,2002년 12월 발간)과 『속초연감 2003 · 2004』(731쪽,2006년 1월 발간)를 E-Book으로 제작해 보았다. 그 후 2007년 10월,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으로부터 '학교도서관 책축제' 예산을 지원받아 솔루션을 구입, 책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독서록을 E-Book으로 만들기'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1일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등 지역 학교와 어린이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속초초등학교 앨범 30권(1959년~2006년)을 E-Book으로 제작,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림 28〉 속초연감 E-Book



〈그림 29〉 속초초등학교 제15회 졸업앨범

자료실 규모도 적은 소규모 속초도서관에서 향토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해서 보존해 보겠다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시설 ·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DVD 한 장에 자료를 보관하고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가상공간을 통해 자료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자료 수집도 만만치 않고 장비와 프로그램 구입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 자료를 스캔하여 E-Book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일들은 속초도서관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유관기관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7). 이러한 내용들은 비단 속초도서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자료의 보존에 힘써야 하는 모든 도서관들의 고민이 될 것이며 더 나은 향토자료 보존환경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친환경정책과 도서관을 엮는 함평의 나비 · 곤충도서관

함평하면 나비축제를 제일 먼저 떠올린다. 그런 함평에 함평나비 · 곤충도서관이 2008년 8월 개관했다. 친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함평은 살아 숨 쉬는 나비, 곤충과 자연을 소재로 한 생태학습의 장인 함평나비축제와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 지역 곳곳에는 나비모양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나비와 곤충, 자연 전체를 생각하는 함평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림 30〉 함평군의 자연

함평군 함평읍 화양근린공원에 함평나비 · 곤충도서관이 2008년 8월 19일 개관했다. 아직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가 많은 것은 아니나 공공

도서관 특화사례로 앞으로 주목해볼만한 사례라 생각되어 소개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도서관으로서 미래 지식정보 사랑방 및 지역민의 평생교육공간으로 평생학습의 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정서와 인지발달을 위한 교육자료 등을 중점 비치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는 등 지역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나비 및 곤충관련 자료를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는 전자책과 단행본을 비롯한 외국학술지 등이 있으며 규모는 외국서 250여권, 기증된 도서가 300여권 구축되어 있다. 국내에 나비 및 곤충관련 자료의 발간이 많지 않아 수집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나 열정으로 가득 찬 도서관과 함평군의 의지는 계속되고 있다.

〈그림 31〉 나비 · 곤충도서관 전경

예술전문도서관을 만들다 경기 부천예술정보도서관 '다감'[4)]

뉴욕공공도서관의 예술도서관과 비슷한 도서관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바로 '부천예술정보도서관 다감'이다. 2000년 설립 · 운영되었던 '부천문화

4) 본 사례는 담당 사서의 인터뷰와 관련 자료를 수집 및 홈페이지(http://lib.bcf.or.kr)를 참고하여 서술

재단 문예자료실'이 2005년 경기도에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면서 정식으로 '도서관'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민과 예술인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정보를 제공하고자 '부천예술정보도서관 다감'을 개관하였다. '부천예술정보도서관 다감'은 지자체 단위로는 최초의 예술전문도서관으로 양질의 도서, 멀티미디어 자료제공과 온라인 예술정보서비스를 통해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고양 및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천문화재단 문예자료실 시절, 일반시민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말에도 문을 열었으나 이용자가 적었고 실제 도서관의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였지만 '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및 부천시로부터 자료 구입비 등을 지원받지 못했다. 신흥 공업도시인 부천시는 문화도시란 슬로건을 내걸고 경기도 최초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천판타스틱국제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등 문화 사업을 전개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감은 부천시의 타 도서관과 주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문학, 영화, 만화 등 구입을 자제하였으며(물론, 영화 음악 등과 같은 예술관련 비도서자료는 제외), 현재 부천소재 도서관 특화분야는 〈표 4〉와 같다.

〈표 4〉 부천소재 도서관 장서특화분야

도서관	특성화분야	도서관	특성화분야
부천시립중앙	컴퓨터·과학	부천시립꿈빛	아동·사회과학
부천시립북부	예술	부천시동화기차어린이	아동
부천시립심곡	역사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

다감의 자료는 크게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로 나뉘며 순수예술, 기초예술과 관련된 시각 및 공연분야의 음반, DVD 등 비도서자료의 비중이 높고 부천의 문화예술 및 지역자료를 수집해 디지털라이징을 한 후 전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서는 2008년 8월 현재 총 도서 10,848권, 비도서 7,501종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5〉를 살펴보면 된다.

〈표 5〉 다감의 장서 규모

(2008년 8월 기준)

분야	구분	소장권수	
도서류	단행본	10,848권	10,848권
	정기간행물	60종	60종
음악자료	CD	4,134종	4,163개
	Tape	29종	
영상자료	DVD	2,561종	3,338개
	폰	387종	
	VCD	325종	
	CD-ROM	65종	
합계		18,349개(정기간행물 제외)	

매년 4,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도서 약 2천권, 비도서 2천개를 구매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자료선정위원이 있어 분기별로 자료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재는 국내외 전문저널의 추천 음반 및 도서를 조사하고 인터넷 서점 및 음반사의 베스트셀러, '아트멘토'라는 각 분야별 전문자원활동가를 섭외하여 양질의 자료를 추천받고 있다. 비도서자료는 시중에서 쉽게 유통되고 있는 자료보다 예술에 치중된 교육적이고 우수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외 특이한 점으로 지역 문화단체와의 연계과정에서 대민서비스 공간이 없는 지역 예술단체인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장서들을 위탁·관리 협약을 맺어 이러한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감의 월 평균 이용자는 이용자 3,022명, 대출권수 974권 정도이다.

전자자료는 지역문화예술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예술DB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부천 지역문화예술정보화사업 단계별 세부내용

1차	2005년	부천문화예술인 및 단체 DB구축	총 840건 DB 구축 부천예술인 695명, 단체 145건 구축
2차	2006년	부천문화행사 정보 수집 및 제공	매월 다감 소식지 제작 및 발송(800여곳) 부천문화행사 및 예술인 동정 수록
3차	2007년	부천문화공간 DB 구축	80건 구축 및 웹서비스 갤러리, 도서관, 복지관, 공연장 등 포함
4차	2008년	부천문화행사 영상 DB구축	2007년 6월말부터 영상미디어교실 운영 부천문화행사를 영상화할 VJ동아리 육성

지역 문화예술 정보서비스는 총 947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예술인이 715건으로 가장 많고 문화단체 151건, 문화 공간 81건이 포함되어 있다. 형태로는 예술인 및 단체의 프로필 및 증빙자료에 대한 작품사진, 포스터, 기사, 팸플릿 등이 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예술단체·예술인에 대한 소식을 매월 50여건 정도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기록보존을 위해 지역문화예술자료를 수집하며 디지털라이징을 통해 웹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개관이래 개인 및 단체의 자료 기증을 유도하고 있어 현재 총 7,843건이 축적되었다.

전자정보(국회전자도서관, 국가전자도서관, 학술DB)를 통해 논문, 학술도서, 신문기사 등 원문을 볼 수도 있으며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적인 음반사 낙소스가 제공하는 온라인 뮤직 라이브러리로서 2005년 2월부터 다감에서 선보인 클래식 음악 온라인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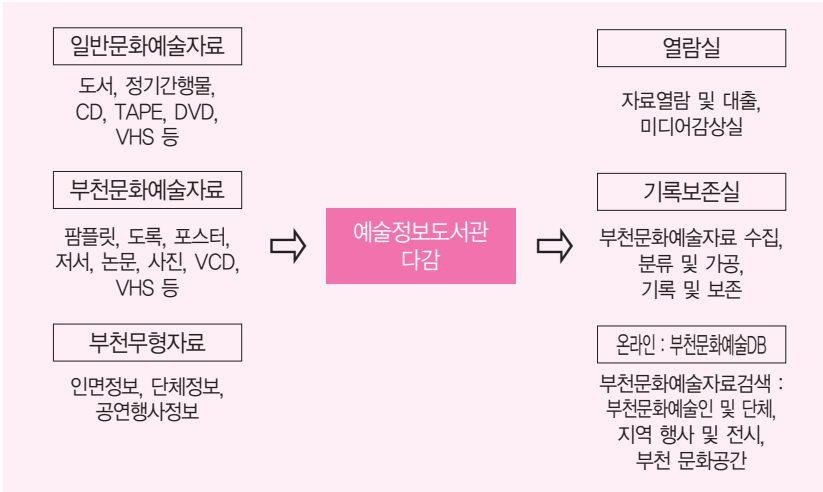
낙소스는 가장 많은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클래식 전문음악사로 2004년부터 온라인뮤직서비스를 선보임. 클래식, 재즈, 포크, 블루스, 뉴에이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또한 곡과 연주자, 작곡자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다감에서는 매일 음반 하나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영상자료를 볼 수 있도록 미디어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오늘의 음악

하루에 한 곡씩 베스트 음반이나 국내에서 공연 중인 연주가의 음반을 선정하여 추천 앨범, 수록곡,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팸플릿 작성

〈그림 32〉 다감의 웹서비스와 발간물



〈그림 33〉 자료를 기준으로 한 다감의 서비스

다감이 위치하고 있는 부천시는 문화도시를 표방하여 문화 · 예술에 관련된 인식이 높은 편이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서관의 규모가 다소 작긴 하지만 대신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과거 도서관이라 함은 소수의 계층에서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공공의 대중을 위한 대표적인 공간(시설)으로 다양한 계층의 모두를 위해 평등하게 서비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감은 이러한 도서관적인 특성에 고급 문화예술을 연계하여 소외된 시민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감은 이용자가 일반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특히 지역의 경우 더욱 문화예술 소비자 및 생산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이며 비단 다감만의 문제는 아니다. 거의 모든 예술단체 및 문화시설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거리로 순수예술은

향유층이 매우 얇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산술적 기준으로 말하면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로 나타나 이러한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는 지역의 예술단체 및 문화기반시설, 시민과 함께 미래의 문화예술 향유자를 육성 및 교육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세워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술특화도서관에서 장서별 차이를 주려면 비도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자료의 경우 분야(정치, 경제, 의학, 문학, 예술 등)의 스펙트럼은 넓고도 다양하나 비도서자료는 그러하지 못하다. 이는 지식의 평등기회가 무시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자료 축적이 요구되나 한편으로는 다른 매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중적인 자료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우수하며 교육적인 자료(해설이 들어간 자료 등)를 위주로 보유하여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관에 어울리는 서비스, 프로그램, 미디어를 수집하고 포함해야 하며 특히 자료에 근거한 활동 중 문화 · 예술과 연계하는 것은 탁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예술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여 나아갈 파트너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02년부터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나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기관 · 개인이 없고 여타할 사례가 없어 그로인해 아이디어 공유 및 기타 지원과 협조가 부족하다.

다감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지역예술전문도서관으로서 집중적 투자나 정책적 지원을 받진 못하나 예술전문도서관의 개척자로서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를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21C에 어울리는 특성 있는 도서관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자료에 대한 양적 · 질적 발전과 이용자들의 높은 활용도를 유도하기 위해 취약한 시설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자료수집에 있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기증되거나 수집된 자료 중에 어떤 자료가 더욱 가치가 있는지, 활용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도서관 뉴욕공공도서관 (The New York Public Library)

〈그림 34〉 뉴욕공공도서관 전경

뉴욕공공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은 1895년 애스터와 레녹스도서관이 합병, 설립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도서관이다. 980여만권의 장서 및 2,000여 만 종의 필사본, 지도, 마이크로필름 등을 포괄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뉴욕공공도서관은 한 개의 도서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로 특화시킨 대학원 수준의 4개의 연구도서관(research library)과 맨하튼, 스태튼아일랜드, 브롱크스의 지역 커뮤니티에 밀착한 86개의 지역분관(branch library)을 포함하고 있다. 4개의 연구도서관으로는 인문사회과학도서관(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Library)을 비롯하여 숌버그흑인문화연구센터(Schomburg Center for Research in Black Culture), 무대예술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과학 · 산업비즈니스도서관(Science, Industry and Business Library;SIBL)으로 이뤄져 있으며 무대예술도서관과 과학 · 산업비즈니스도서관을 살펴보았다.

과학 · 산업비즈니스도서관(SIBL)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비즈니스 특화 도서관인 '과학 · 산업비즈니스도서관(SIBL)' 은 마케팅, 광고, 바이오테크놀로지, 컴퓨터 등 소장 자료의 폭이 넓으며 기업 연감이나 각국의 무역 통계, 법 규제에 관한 자료 외에도 비즈니스 응용과학이나 테크놀로지에 관한 자료까지 갖추어진 대단히 실천적인 도서관이다. 또한 국내외의 정부 간행물, 국제무역이나 투자 정보 등을 망라하고 있다. 특허와 상표에 관해서는 전미 최고로, 1970년 이후 국내외 1800만 건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서적 이외에도 비즈니스 관련 카세트 북이나 비디오테이프, DVD,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해설한 CD-ROM 등도 관내 이용이나 대출이 가능하다.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창업가, 중소기업 경영자, 비즈니스맨, 개인 투자가, 학생 등 실로 다양한 사람들로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전문가에 의한 비즈니스 강좌(예. 창업과 관련된 비즈니스 플랜 작성법, 자택을 거점으로 하는 사업,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회계, 회사를 파는 방법, 인터넷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또한 창업 준비를 하거나 사업을 하던 중에 정보 수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부딪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은퇴한 경영자들이 모인 시민단체와 제휴하여 무료로 카운슬링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일하는 사서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시점, 기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비즈니스에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조성 능력이 필요하다.

〈그림 35〉 뉴욕공공도서관 내부

시블(SIBL)은 기존 도서관 이미지를 쇄신하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가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주식 정보 단말기도 비치하여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 뿐 아니라 레퍼런스 기능을 중시해 항상 몇 명의 사서가 대기하여 이용자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 레퍼런스는 전화나 편지, 이메일로도 접수가능하며 이용안내 투어도 한다. 웹사이트의 '리서치가이드'는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조사 주제에 따라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선택을 계속하면, 최종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14개 항목의 주제로 나누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블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풍부한 장서와 더불어 이용자와 장서를 연결하는 우수한 사서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디지털시대 사서로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전자미디어에 능통하며 뛰어난 기획 능력과 함께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무대예술도서관

음악, 무용, 연극 등의 공연을 하는 링컨센터에는 무대예술에 관련된 전문도서관인 무대예술도서관이 있다. 무대예술도서관은 음악, 무용, 연극, 녹음의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집 자료는 홀(Hall)에서의 세련된

공연에서부터 길거리 공연까지 다양하고 폭넓다. 음악은 르네상스 시대의 것부터 랩뮤직까지, 무용은 클래식 발레부터 피겨스케이팅까지, 연극은 셰익스피어 극에서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녹음자료는 대통령의 연설에서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인형극, 축제 미인대회자료까지 광범위하다. 도서관에는 책의 비율이 전체의 30% 정도로 대부분은 비도서자료를 수집 · 보존하고 있으며 그 종류로는 영화, 무대, 공연 등의 대본, 악보, 무대세트의 미니어처, 의상 디자인, 서간, 프로그램, 포스터, 사진, 비디오, 카세트테이프 등 무대예술과 관련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서관은 예술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학생, 유명 배우를 포함한 예술가, 예술과 관련된 기업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단순히 무대예술의 정보센터뿐만 아니라 박물관이기도 하고 영상제작센터이기도 하며, 컨설턴트이고 극장이기도 하다. 이 도서관의 사서는 도서관 직원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 전문 지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무대예술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수집할까, 어떻게 분류할까, 이용자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까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림 36〉 무대예술도서관의 Miro Ito 사진 전시회

무대예술도서관은 해외에서의 방문자도 많아 연간 40여만 명이 찾고 있다. 그 결과 이 도서관을 활용해 세상에 내보내진 영화, 연극, 무용, 음악 등이 무수히 많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예술 지망생들의 조사와 연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음악이 다음 세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도서관이 직접 공연을 촬영하고 자료화하는 일은 TOFT(연극부문의 '무대예술의 영상과 테이프 기록보관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곳은 미국의 무대 관계 조합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연극 공연을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다.

2001년 3,700만 달러를 들여 새로 개관한 무대예술도서관은 비용의 일부를 기부한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부르고 있으며 분산되어 있던 연극, 발레, 음악, 녹음의 각 부분을 한 층에 모아 장르에 구애받지 않도록 한 것이 큰 변화이다(스가야 아키고 2006).

지역대표도서관의 보존프로그램 미국 주(State) 도서관

지방자치가 발달한 미국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 도서관(State Library)의 경우, 대부분 행정부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장 장서 혹은 인력 측면에서 주 도서관은 대형공공도서관보다 적은 규모로 운영하나 도서관 발전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부분적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의 서비스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도서관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핵심기능으로 도서관에 대한 예산, 서비스, 교육 등을 지원하며 부분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주 단위의 역사 및 정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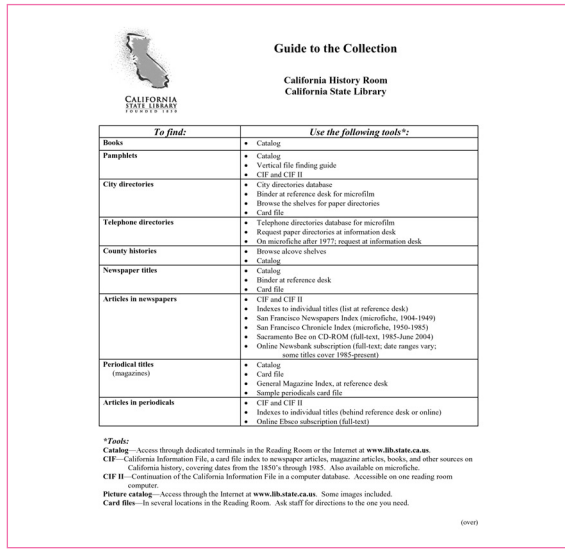
수집 · 제공 · 보존하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 도서관은 연방정부간행물보존도서관프로그램(FDLP)과 주정부간행물보존프로그램(SPDP)을 통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간행자료, 역사정보를 보존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내용으로 역사, 정부, 인물, 문학, 장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형태별로 도서, 신문, 잡지, 팸플릿, 지도, 포스터, 사진 등이 있다.

가계(genealogy)정보서비스는 주 도서관의 공공서비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독립공간을 만들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계정보원은 인구통계조사표, 군사기록, 지방정부의 기록, 교회 기록 등이 포함된다(곽철완 2007).

캘리포니아주 도서관

캘리포니아주 도서관은 캘리포니아 역사자료실(California History Room)을 주 도서관 내에 운영하면서 관련 도서, 연속간행물, 사진 및 동영상자료, 그리고 필사본등 선사 시대의 캘리포니아주부터 현재까지 주에 거주하였던 모든 생명체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있다. 특히, 이용률이 높은 족보 정보는 주립도서관 차원에서 접근이 용이한 인구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와 각 도서관에게 제공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CALIFORNIA STATE LIBRARY
FOUNDED 1850

Guide to the Collection

California History Room
California State Library

To find:	*Use the following tools*:*
Books	• Catalog
Pamphlets	• Catalog • Vertical file finding guide • CIF and CIF II
City directories	• City directories database • Binder at reference desk for microfilm • Browse the shelves for paper directories • Card file
Telephone directories	• Telephone directories database for microfilm • Request paper directories at information desk • On microfiche after 1977; request at information desk
County histories	• Browse alcove shelves • Catalog
Newspaper titles	• Catalog • Binder at reference desk • Card file
Articles in newspapers	• CIF and CIF II • Indexes to individual titles (list at reference desk) • San Francisco Newspapers Index (microfiche, 1904-1949) • San Francisco Chronicle Index (microfiche, 1950-1985) • Sacramento Bee on CD-ROM (full-text, 1985-June 2004) • Online Newsbank subscription (full-text; date ranges vary; some titles cover 1985-present)
Periodical titles (magazines)	• Catalog • Card file • General Magazine Index, at reference desk • Sample periodicals card file
Articles in periodicals	• CIF and CIF II • Indexes to individual titles (behind reference desk or online) • Online Ebsco subscription (full-text)

Tools:
Catalog—Access through dedicated terminals in the Reading Room or the Internet at **www.lib.state.ca.us**.
CIF—California Information File, a card file index to newspaper articles, magazine articles, books, and other sources on California history, covering dates from the 1850's through 1985. Also available on microfiche.
CIF II—Continuation of the California Information File in a computer database. Accessible on one reading room computer.
Picture catalog—Access through the Internet at **www.lib.state.ca.us**. Some images included.
Card files—In several locations in the Reading Room. Ask staff for directions to the one you need.

(over)

〈그림 37〉 캘리포니아 역사자료실 장서 가이드

메릴랜드주 도서관

메릴랜드주의 경우, 주도서관지원센터에 메릴랜드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는 Maryland Department라는 부서가 있다. 이 부서에서는 메릴랜드에서 역사적으로 전통있는 도시들(예. 볼티모어)에 관한 자료, 전국적으로 유명한 체사피크 만(Chesapeake Bay)에 관한 자료, 메릴랜드의 교육, 주의 법률관계자료, 사업관련 정보원, 각 카운티와 타운에 관한 통계자료, 메릴랜드 출신 유명인사에 관한 자료, 메릴랜드의 토박이족보정보자료, 메릴랜드의 날씨 등을 수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도서관지원센터에서는 또한 각 단위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메릴랜드 지역과 관련된 역사문서, 녹음자료, 영상자료 등을 디지털 자료로 전환해 이러한 디지털 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발굴하고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는 일은 보다 광범위한 이용자군에게 연구, 교육, 그리고 관광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오리건주도서관

〈그림 38〉 Coquille Indian Tri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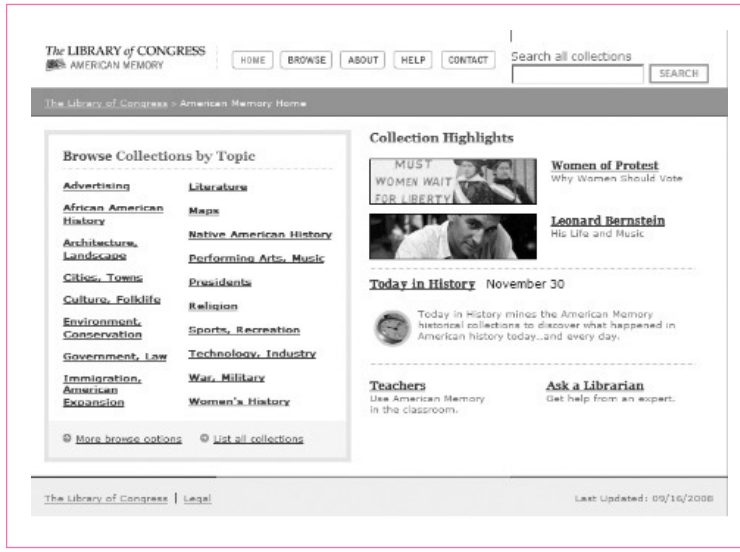
미국 부족도서관(tribal library)과 협력하여 지역정보보존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부족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술과 전략, 미국인디언자료에 대한 전시와 관리,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과 달성, 사진자료 수집, 이용, 관리, 인디언도서관서비스를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을 기억하다 미의회도서관의 "American Memory"

미국의 의회도서관은 "American Memory" 프로젝트를 통해 소장된 주요 향토 · 지역자료들을 주제별 구분하여 미국 전 지역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광고 · 아프리카미국인의 역사 · 건축 · 도시 · 문화 · 환경 · 정부 · 이민 · 문학 · 지도 · 인디언역사 · 무대예술 · 대통령 등 19개의 주제에 대한 검색과 1400년부터 현재까지 시대별검색, 지도 · 필사본 · 음악 등 형태별 검색과 지역별 검색이 가능하며 전자복사서비스와 도서자료 부분에 대한 원문서비

스를 웹상에서 제공하고 있다. 원고는 일반적으로 스캔작업을 거쳐 복사본으로 제공하며 그 중 자필원고 등 손으로 직접 쓴 자료의 경우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스캔 후 페이지 자체를 사진자료화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39〉 미의회도서관 "American Memory"

지역별 전문분야 장서를 구축하는 네덜란드 공공도서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2008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됐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네덜란드는 지리적인 거리,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해 3단계로 나눠 도서관을 설치했다. 암스테르담을 예로 살펴보면, 1개의 큰 중앙도서관이 있고,

암스테르담 시를 동서남북 구역으로 나눠 도서관을 설치하고, 지역중심도서관을 중심으로 4~5개의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했다. 여기에 43개의 소규모 도서관을 병원, 양로원, 은행 등에 설치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약 28,000m²에 달하고, 지역도서관은 지역실정에 맞게 작게는 약 2,500m²에서 크게는 4,000m²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은 라이브러리 포인트라고 지칭하는데, 크기는 약 50m²(15평)에서 500m²(150평)까지 다양하다.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 2명과 파트타임 6명을 쓰며, 별도 지역중심도서관 관장이 구역 내 작은 도서관까지 담당한다. 이는 농촌도 마찬가지다. 마을 안에는 교회와 도서관, 공원, 광장, 관광안내소, 공동묘지 등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인구 1만5천명의 알텐(alten)지역에서도 도서관은 그 마을 소재지(centrum) 한 가운데 위치해 있다.

2007년 7월 7일에는 네덜란드 중앙역 부근에 매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개관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앙도서관이 재개관했다. 지역도서관은 화요일, 일요일에 보통 쉬는데, 새로 여는 중앙도서관은 쉬는 날 없이 계속 운영한다. 이처럼 네덜란드 공공도서관은 시 · 공간적으로 모든 것이 빈틈없이 가까운 곳에서 또는 언제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또, 하나 네덜란드도서관의 특징은 각 28개 지역도서관마다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전문분야 컬렉션을 구축, 지역의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베이머에 있는 지역중심도서관에는 '수리남(SURINAME) 컬렉션' 이라는 전문분야 자료실을 구축했다. 이는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수리남 주민들이 베이머에 많이 이주해 와서 살기 때문에 마련된 코너이다. 이처럼 각 지역 소규모 도서관에는 각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전문분야의 장서를 집중적으로 모아서 개성있는 지역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06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특별해진 도서관

프로그램별 특화사례는 서울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과 인천중앙도서관의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두 곳의 사례 모두 앞으로 도서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기에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이들 소개는 프로그램 담당자의 인터뷰와 기타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인문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2007년 10월부터 '수요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다. 프로그램을 처음 제안한 이우정 관장은 이렇게 말한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 문화프로그램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일까? 혹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로 받아들이는 강박감과 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짊어져야만 하는 부담감으로만 남겨진 것은 아닐까? 또한 예산이나 공간, 인력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와 제약들로 골칫거리이자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현재의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에는 많은 문제들이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중에 가장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이 왜 문화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프로그램 전략이 함께 고민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서 가장 도서관다우면서 가장 훌륭한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실험으로 '수요 인문학' 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동대문정보화도서관에서 처음 이 프로그램을 고안했을 때 도서관의 핵심 가치에 대해 고민의 시간을 가졌고 고민 끝에 도서관을 '사색과 성찰의 공간', '배려와 나눔의 공간' 으로 설정하였다. 도서관이 사람들에게 더 깊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자 했으며, 도서관을 통해 서로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키워가길 바랐다. 이러한 가치 아래 제공할 프로그램에 대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 백화점 문화센터, 구민회관 등과 차별성을 가지고 타 도서관 프로그램과 가급적 중복을 피한다.
-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적(知的)으로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
- 프로그램의 대상과 내용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되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모든 프로그램은 자료(책, 잡지, DVD 등)와 독서 및 토론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외부의 상업적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도입한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 『희망의 인문학』이란 책이 그 무렵에 발간되어 우리 삶의 다양한 현장에 인문학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통해 세상을 성찰할 수 있는 사고의 힘을 길러줘 세상과의 소통과 참

여의 기회를 넓혀 주었다. 마침 도서관 연장 개관과 함께 새로운 야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던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도서관에서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직원들이 합의하였다. 문제는 『희망의 인문학』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고민이었다. 도서관이 처한 조건과 지역 주민들의 준비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인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방향은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생활 속 인문학'이라 정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강의를 기획하고 그에 맞는 강사를 하나하나 섭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만만치 않은 문제였다. 경험이 일천한데다 어렵게 주제를 정해도 섭외가 어려웠다. 이에 인문학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모임인 〈연구공간 수유+너머〉에 제안을 하기로 하였고 과연 이름 없는 도서관에서 섭외가 가능할지 망설여지기도 했으나 무작정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만나보기로 했다. 꼬불꼬불 용산의 산동네에 어렵게 찾아가 만나본 사람들은 생각과 달랐다. 자신들을 찾아주는 곳이 있다는 것에 무척 반겨주었고, 새로운 만남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었다. 일은 일사천리로 풀려갔다. 〈연구공간 수유+너머〉에서는 '생활 속 인문학'에 공감하고 다양한 주제를 제안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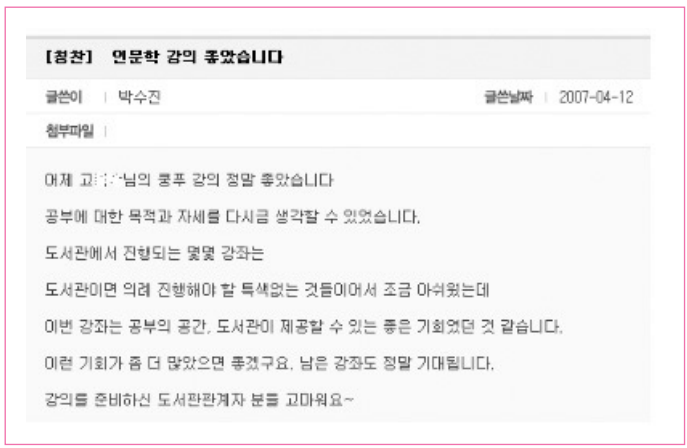
가장 두려운 부분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다고 이 관장은 말한다. 목표는 40~60명. 우선은 프로그램 대상이 일반인이긴 하지만, 야간 프로그램으로 평소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직장인들, 대학생들을 중심 타깃으로 정했다. 타깃에 맞춰 인근의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에 홍보물을 배포했고 직장인들이 인문학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찾아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그리고 지역신문, 케이블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사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더불어 기존 도서관 회원들에게도 이메일 마케팅 도구를 통해 전체 홍보를 진행했다.

반응은 더뎠지만 꾸준했다. 특히, 전업주부들이 마음 놓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강의시간 동안 보육사를 임시 채용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기로 하고, 이를 사전에 홍보하였다. 2주간의 모집기간동안 어느덧 4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한다.

진행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놀랐다. 중심 타깃은 직장인, 대학생이었지만 실제 수강생은 고등학생, 전업주부, 교사 등 다양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보이고 한자리에 모여 인문학 강좌를 듣는다는 것에 사서도, 강사도, 수강생도 놀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의 시작 전에 음식을 가져와 나누어 먹는 수강생도 생기고, 수강생들끼리 강의 후 자연스레 뒤풀이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도서관의 새로운 시도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해 주었다.


[칭찬] 인문학 강의 좋았습니다

글쓴이 | 박수진 글쓴날짜 | 2007-04-12

첨부파일 |

어제 고[illegible]님의 쿵푸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목적과 자세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몇몇 강좌는

도서관이면 의례 진행해야 할 특색없는 것들이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강좌는 공부의 공간,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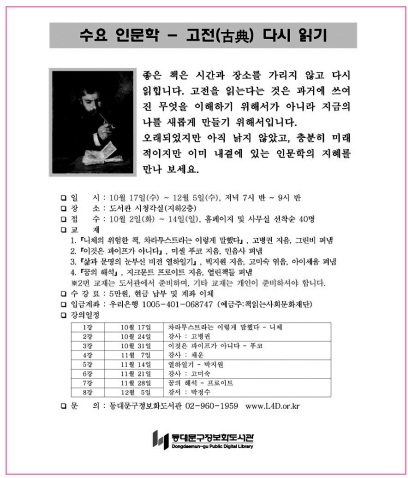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구요. 남은 강좌도 정말 기대됩니다.

강의를 준비하신 도서관관계자 분들 고마워요~

〈그림 40〉 인문학 강의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음을 증명했다. 강사였던 고병권 씨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인문학은 소통할 공간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긍정적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프로그램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곳은 지역 도서관 같은 공간이다. 인문학 운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한바 있다. 그들이 바라는 가장 도서관다운 프로그램이자 가장 훌륭한 독서 프로그램의 길이 다져진 것이다.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사서들은 말한다. "길은 걸어가야 이루어진다." 장자의 철학인 '道行之而成'(도행지이성)의 철학으로 길은 애초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우리가 걸어가는 것만큼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도서관계의 문화 프로그램의 길도 정해져 있지 않다. 걸어가는 만큼 새로운 길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진리를 확신한다.



〈그림 41〉 수요 인문학(2007년) 홍보 전단

〈그림 42〉 수요 인문학(2008년) 인터넷 홍보

이용자를 위해 취업의 장을 마련한 인천중앙도서관

인천중앙도서관의 사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제2회 도서관현장 발전 우수사례(2008년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은 프로그램이다.

인천중앙도서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성인 대상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안해 냈다. 바로 취업설계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의 열람실이라는 장소 또는 자료실의 소장 자료가 아닌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하고, 인근의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린 결과 이용자들에게는 취업과 관련된 맞춤형 정보를, 외부기관에게는 새로운 고객과 실적을, 도서관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영역 확대라는 길을 찾아 주었다.

(1) 발상의 전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인천중앙도서관은 먼저 발상의 전환을 시작했다. 처음에 일반열람실의 많은 이용자인 취업준비생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고민하다보니, 너무 막연했다.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나눈 끝에 자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생으로 오래전부터 연계를 하고 있는 인근의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용기를 내어 찾아가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먼저 공공도서관의 주 이용층이 누구인지, 그들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필요했다.

(2) 이용층 분석

이에 이용층에 대한 조사와 세심한 분석을 위해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점검키로 했다.

(3) 학습동아리 구성

2006년부터 각 과별로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였는데, 열람봉사과에서는 이용자를 직접 대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고객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열람봉사 관련 서비스를 점검하며, 민원을 분석하는 학습동아리(CS PLUS)를 조직했다.

(4) 취업설계지원프로그램 개발

'인천중앙도서관'과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관끼리 사회적 변화와 필요에 의해 연계하여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도서관이 주기관이 되어 홍보에서부터 인원 모집 및 장소를 제공하고,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는 전문강사인 직업상담사를 지원하여, 2006년 4월 도서관에서 취업에 관심이 많은 일반 성인 대상의 '직업진로지도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우선 도서관 일반열람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관부터 일반열람실 내부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새로운 서비스를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직원들은 우리의 새로운 시도를 이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것인지 그 결과에 초조하고 걱정이 많았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반응과 관심은 차츰 커져갔다. 접수 첫 날, 한두 명의 문의전화는 점차 늘어갔고, 신청자가 30명을 넘어섰을 때 직원들은 안심할 수 있었다. 직업진로지도상담 첫 날, 4시간 동안 검사와 상담을 받고 돌아간 이용자는 총 29명이었다. 직업진로지도 상담이 직업상담사와 참가자의 일대일 면담으로 모든 검사와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였으며, 참가한 이용자들도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 선택 및 정확하고 신속한 직업정보로 많은 도움이 받았다며 만족해했다.

(5) 청년층, 어르신, 주부 재취업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와 월 1회 프로그램 진행을 계획하고 5월에 다시 직업진로지도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2회째의 직업진로지도 상담에서는 1회 때의 2배나 되는 이용자가 참여했다. 보다 전문적인 취업설계 지원프로그램에 도전하기 위해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인 CAP(Carrier Assistant Program)을 선택해 구직을 희망하는 만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기이해, 직업탐험, 직업정보탐색,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그리고 마지막 미래비전 설계까지 실제적인 실습 위주로 이루어지는 전문 취업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15명 정도의 소수인원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했기 때문에 내실있는 시간이었고, 만족도 또한 최고였다. 회를 거듭할수록 도서관의 이용자들도 취업설계 지원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제 지원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적인 '직업진로지도 상담' 프로그램에서 시작해 해를 거듭하면서 청년, 어르신, 저학력 청소년 등의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고, 연간 8회 정도의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08년에는 그 대상을 보다 넓혀 일반 학부모에서 전업주부 대상의 '주부 재취업 프로그램'까지 제공할 계획으로 이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참가자는 이후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취업상담 서비스 및 희망분야의 취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6) 자관의 프로그램 강조

일반 이용자들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계획하면서 직원들은 한편으로 만족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의 부족함을 느꼈다. 전문적이고 유능한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지만 도서관에서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혹시 경인종합

고용지원센터에서 강사지원을 중단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었다.

이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애쓰던 중 부족한 예산을 교육청이라는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 강사를 섭외할 수 있었다. 이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채용시험을 검토할 수 있었고 취업설계 지원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대상과 분야, 제공방법 등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는 인천중앙도서관만의 취업설계 지원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천중앙도서관의 사례를 보면 '발상의 전환'이 떠오른다. 필자들이 서문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특별한 서비스, 특화서비스는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보편성에서 특수성을 찾듯이 각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 가작 적합하고 양성해야될 부분을 골라내고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며 그것이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첩경이다.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텍사스주도서관기록보관소위원회

일반 도서관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주 도서관은 도서관 자동화, 아동청소년 서비스, 도서관 경영, 자원봉사자 관리, 대외 홍보활동, 지역 내 학교 등을 위한 도서관 내 서비스,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홍보, 지역주민들에게 포괄적으로 또한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 아웃리치 도서관 서비스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담 담당자가 맡고 있는 분야를 소개한다.

(1) **정보기술 적용** 교육적인 목적의 도서관에 적용되는 디지털 자료의 비용

과 정보기술 이용을 계획하며 지역의 도서관시스템들을 관리하고 자동화프로젝트를 상담, 인터넷교육, 비도서 자료의 기술적 적용방법 등을 지원한다.

(2) **계속 교육 상담** 도서관의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도서관 사서들과 관심 있는 주민들을 위해 도서관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조언을 한다. 담당자는 도서관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분야와 평생교육 워크숍을 계획하고, 적용하며, 실행 및 제시하고, 평가한다.

(3) **원거리 교육 상담** 사서들에게 원거리 교육의 기회를 주고, 교육실행을 위한 파트너를 찾아 연계하며 교육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사서들에게 제공한다.

(4) **특수서비스** 담당자는 더 개선된 도서관 경영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소속된 도서관 사서, 공공도서관 사서, 도서관 시스템, 도서관이 소속된 모(母)기관, 그리고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언 한다. 예를 들면 도서관 관련 기금정보원이나 도서관 재정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교육, 특수 이용자군과 기관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 성인정보활용능력(Literacy)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육 등이 이에 속한다.

(5) **어린이 서비스** 담당자는 텍사스주 도서관 사서, 도서관 시스템, 도서관 위원회, 그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을 위해 아동 청소년 서비스 분야에 대한 조언을 한다. 담당자는 아동, 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전 주(State)차원의 평생교육기회를 계획하고, 조정하며, 적용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평가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사랑과 용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샌디에고공공도서관

사랑과 용서 캠페인(Love and Forgiveness Campaign)의 일환으로 샌디에고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웃, 학교, 직업, 흥미 있는 주제나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CD나 DVD에 담아 기록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미시건의 비영리 교육단체 페처 연구소가 지난해 하반기 시작한 이 캠페인은 미국 10여 개 대도시와 영국 지역사회가 손잡고 토론, 강연, 행사를 통해 용서의 메시지를 전파한다. 사랑과 용서 캠페인이 미국에서 주목받게 된데는 미 공영방송 PBS의 3부작 다큐멘터리가 영향을 끼쳤다. 2006년 12월 방송된 1부는 카미사 씨를 비롯해 9 · 11테러의 유가족들이 테러범을 용서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담아 큰 반향을 일으켰고 캘리포니아 소노마대는 다큐멘터리 방송 후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생존자가 나치 전범을 용서하는 내용의 강연을 개최하였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시민단체 '퍼스트 싱스 퍼스트' 도 직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 조정을 위해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용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샌디에고공공도서관에서는 이 캠페인의 웹사이트(http://loveandforgive.org)를 이용해 초보자를 위한 '용서의 편지' 를 쓰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캠페인으로 도서관에서도 적용한 사례로 눈여겨 볼만 하다.

〈그림 43〉 사랑과 용서 캠페인

〈그림 44〉 디지털 스토리 스테이션

도서관의 장벽을 뛰어넘는 멀트노마시립도서관

미국 오리건주에 위치한 멀트노마시립도서관은 아웃리치서비스를 위한 사무실을 따로 두고 도서관의 벽을 넘어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하는 이용자 집단은 노인이용자,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 장애자, 일시적 장애자, 양로원 주민, 낮 시간 동안 노인들을 돌봐주는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 교도소 죄수, 집단 거주소 거주민 등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서비스는 다음과 있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 로비 서비스

각종 시설에서 거동하기 힘든 이용자들을 위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시설 로비에 도서관의 각종 장서를 카트에 담아 방문하는 서비스이다. 장서는 일반장서를 포함하여 큰활자본과 각종 페이퍼백 도서 그리고 녹음도서 등을 제공한다.

• 밴 서비스

밴은 노인들과 장애인 등 도서관에 방문하기 힘든 이용자들을 위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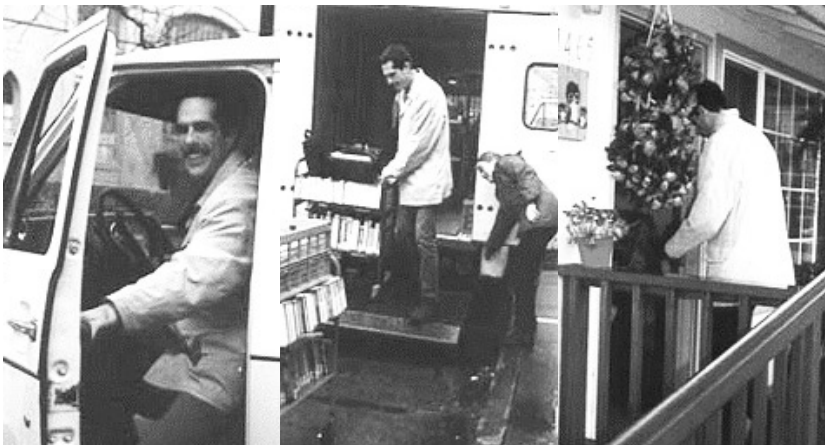
한다. 도서관 장서가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달이 되며 사서는 이용자들이 어떤 자료가 얼마만큼을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우편으로 전달되는 큰 활자본

도서관의 아웃리치 담당부서는 큰활자본이 필요한 이용자들(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에게 우편으로 무료배달을 해 주며 자료선정은 사서가 이용자들의 관심사에 유의하여 결정한다.

• 우편으로 전달하는 일반자료

일반자료(도서, 녹음테이프, 비디오) 등을 우편으로 배달한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을 위해서 시행하며 이용자는 원하는 자료를 신청할 수도 있고 사서에게 선택을 일임할 수도 있다. 우편을 통한 반납은 도서관의 부담으로 시행되며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45〉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교도소 서비스

교도소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의 교도소에 오락적 기능을 만족시키는 독

서 자료를 제공한다. 오리건주립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 및 기술법안(LSTA: 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에서 배분한 예산을 바탕으로 도서관으로 하여금 교육적인 정보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죄수들이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전달하고 자녀들 역시 자신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녹화하여 부모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사서가 이 활동을 조정, 관리하고 있다.

집단 거주소 서비스

지역 내 도서관 서비스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 거주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매달 30개의 집단 거주소와 임시 가정에 도서관 장서를 배달하고 있다. 도서 1,000권 이상과 500 종류의 잡지를 2,200명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왔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이용자 밀착프로그램 체트윈트공공도서관

1959년 작고 오래된 교실과 기증받은 장서들로 시작한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주의 소규모 도서관은 현재 다양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춘 훌륭한 도서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Nighthawks at the Library"프로그램은 밤에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도서, 잡지, 인터넷 등에 대한 이용 외에도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개인이 즉흥연주의 시간을 갖고 악기 외에도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도서관의 밤을 환영

하는 다른 행사를 준비할 수 있다.

"Positively Pregnant" 프로그램은 가족의 양육에 대해 생각 해보는 시간으로 임산부와 그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고 임신을 계획하거나 출산을 이제 막 경험한 초보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밀착프로그램 프린스턴공공도서관

관공서 및 지역사회의 행정, 문화행사 정보 안내

프린스턴공공도서관은 보건 당국과 같은 관공서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안내문에서부터 지역의 버스 노선 안내책자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에게 통지되거나 홍보되어야 할 각종 유인물들이 도서관 곳곳의 빈 공간을 이용해 배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각종 민간단체나 개인이 개최하는 문화행사, 공연 등에 대한 안내문이나 소책자들도 도서관을 통하여 배부되고 있다. 대부분 소규모 도시의 공공도서관들은 중심가에 시청 및 경찰서 등의 행정기관들과 함께 위치하고 있어 행정적으로 통지되거나 공지되어야할 문서들이 도서관의 게시판에 부착되어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각종 공공업무를 보조하는 서비스

• 여권발급신청 대행 서비스

도서관은 주정부로부터 여권발급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승인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 여권발급기관까지 직접 가지 않고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면 도서관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도서관은 여권발급에 필요한 양식들을 구비하고 신청서의 작성을

도와주며, 이 서비스는 도서관이 휴관하는 금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내내 계속된다.

• 공증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하여 서류의 공증업무(유언과 부동산에 관한 공증은 제외)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료서비스이다.

• 인턴십 및 사회봉사, FWSP

FWSP(Federal Work-Study Program) 혹은 Work-Study라고도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미국연방정부가 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고용 프로그램이다. FWSP를 통해 연방정부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임금을 50~100% 지불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학생을 고용하는 고용주나 일거리를 찾는 학생들에게 편리하다.

PLLS(Princeton Library Literary Services)는 인턴십이나 사회봉사를 수료해야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며 PLLS는 웨스턴스테이트대학 법학과(Wester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와 캘리포니아주립대학 풀러톤(California State University in Fullerton)과 협력하여 FWSP를 운영한다. 여기서 승인된 학생들은 FWSP에 지원할 수 있다.

취학 아동들과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프린스턴공공도서관에서는 1981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학습보조서비스(California State Library Literacy Services)와 협력하여 PLLS(Princeton Library Literacy Services)를 개발하였다. 이 서비스는 성인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인지도를 하거나 영어 학습을 도와주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한다.

• 과제 도와주기 서비스

PLHC(Princeton Library Homework Club)를 두고 아이들이 학교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되며 유치원생으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와 같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임은 도서관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클럽에 따라 모이는 장소나 시간, 대상 학생이 서로 차이가 있다.

• 아동 및 성인들을 위한 개인지도

도서관은 개인교사를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일정 시간 "개인교사 훈련 워크숍"을 통해 훈련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개인지도가 필요한 성인 혹은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

이 지역은 인종이 다양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이민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 저조한 아이들이나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개선해 줄 필요성에 따라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 교사들은 학생과 일대일 혹은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학습하기도 한다. 모든 학습은 학생들의 목표와 요구에 맞게 진행되 학생과 개인교사는 처음만 도서관 내에서 만나고 그 이후에는 도서관 밖, 즉 다른 도서관이나 교회, 기타 지역사회의 기관, 개인의 집 등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개인교사를 훈련하기 위한 자료는 시 로터리클럽과 주도서관보조금에서 제공된다.

• 캠프 도서관(camp library) 개최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서비스의 하나로 1년에 1번씩 캠프도서관을 개최하고 있다. 캠프는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되어 다음날 8시에 아침을

먹고 9시에는 도서관을 나가도록 되어 있다. 캠프에는 4세부터 12세사이의 아이들이 참가하고 어른이 동참할 수 있다. 참가하는 아이들은 도서관 열람실 안에서 야영을 하듯 텐트를 치거나 침구를 사용하여 숙박을 한다. 이를 위해 편안한 복장, 담요, 매트리스나 침낭, 베개와 같은 침구를 준비하고 음식은 도서관에서 제공한다.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연주회나 게임 만들기, 영화감상과 같은 행사들이 진행되며 아이들은 부모, 그리고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하룻밤을 도서관에서 보내게 된다. 이러한 캠프 도서관은 아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놀이와 책읽기,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유도함으로써 어린 시절부터 도서관과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행사는 유료로 $5의 등록비를 받고 있으며 참가 인원은 50명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도태현 2006).

07

이용자와 눈높이를 맞춘 도서관

계층별 특화사례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본서에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서비스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서비스는 현재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해야 할 중요한 서비스중 하나로 생각되어 담당자 인터뷰 및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해 본다.

다문화서비스를 개발하는 청주기적의도서관과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2007년 8월 24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의하면, 한국에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이 100만 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한국사회가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사회가 단일한 인종, 언어, 문화, 관습을 공유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피부색과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의 정보 커뮤니티인 도서관이 다문화서비스에 대해 논하는 것은 그 시기가 오히려 늦었는지도 모른다. 다문화서비스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은 그동안 사회복지과와 같은 다문화계층을 위해 주도적으로 서비스하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업무의 중복

〈표 7〉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

(2008년 9월 30일 기준, 단위: 명)

구분	총체류자	구분	총체류자	구분	총체류자
중국(한국계포함)	582,037	대만	24,609	캄보디아	7,015
미국	118,701	우즈베키스탄	22,309	호주	6,362
베트남	83,119	캐나다	17,672	네팔	5,872
필리핀	49,513	스리랑카	14,971	영국	4,808
태국	45,116	방글라데시	12,583	독일	4,367
일본	37,763	파키스탄	9,851	미얀마	4,010
몽골	33,374	인도	7,663	기타	43,849
인도네시아	30,530	러시아	9,335	총	1,175,429

을 피하고 효율성을 키우기 위해서란 이유 등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다. 2004년부터 다문화계층을 지원하는 민간시민단체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그들을 위한 도서관의 필요성을 깨닫고 기관 안에 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다문화계층과 도서관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우리 사회에 더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렇듯 다문화서비스는 공공도서관보다 민간도서관이 더 먼저 시작하고 뿌리를 내렸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파장력을 고려해볼 때 결혼이민자가 많은 농촌지역이나 이주노동자가 많은 산업지역의 경우 공공도서관에서 그들에 대한 다각도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해 보인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다문화도서관서비스분과에서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를 "봉사지역이나 대상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도서관서비스를 총칭하며, 그 대상은 주로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소수자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모든 주민이 상호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 정보제공도 그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은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Multiculturalism 정의

Defining "Multiculturalism"

Final Report submitted by Clara M. Chu
March 18, 2005
Members: Clara M. Chu (Chair), Ekaterina Nikonorova, Jane Pyper

"Multiculturalism" is the co-existence of diverse cultures, where culture includes racial, religious, or cultural groups and is manifested in customary behaviours, cultural assumptions and values, patterns of thinking, and communicative styles.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include both the provision of multicultural information to all types of library users and the provision of library services specifically targeted to traditionally underserved groups.

도서관이 다문화서비스를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가이드라인

1. 도서관의 사명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는 다문화적이고 다언어적이거나 문화적으로 점차 다양해지는 경우가 많다.
2. 다문화적이고 다언어적인 도서관 서비스는 정보에 대한 서비스와 접근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3. 국경을 초월하는 의사소통과 여행이 보다 수월해지는 세계화 시대에 개인은 다른 문화, 언어, 민족 등에 관해 알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색다른 경험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게 된다.
4. 여러 언어 및 다양한 이용자 커뮤니티들과 닿아 있는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시민 사회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자신의 문화유산은 물론 타인의 문화유산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자신의 문화가 견고해지고 다른 문화에 대한 경험과 관점이 각기 증진되며 보다 조화로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6. 여러 언어 및 다양한 이용자 커뮤니티들과 연결되는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되는 정보는 복합적인 가독능력을 증진하여 새로운 정보와 기능의 습득을 촉진함으로써 시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다.
7. 세계의 지식, 창의적인 표현 양식, 문화적 관행 등이 다양한 형식과 언어로 문서화되므로 복합문화적 문헌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색다른 형식의 창의적인 표현, 작업, 문제해결 방식 등을 배움으로써 참신한 통찰력과 견해를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하고, 행동하며,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9. 도서관의 복합문화적 지역사회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그 문화가 존중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10. 도서관은 지적, 여가선용적 참여를 위한 공간이자 복합문화적이고 복합 언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며, 소장 자료는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커뮤니티의 공간이다.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7. 100만 외국인 시대, 다문화 사회와 도서관 서비스. 『지금도서관에서는 |Now@Library』, 2. 9월 15일.

IFLA 다문화도서관서비스분과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는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소수자의 도서관서비스가 보통의 서비스와는 별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며 다문화서비스는 도서관의 관종을 불문하고 도서관 업무 전반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주민 요구의 파악, 장서를 들고 있어 간략히 소개해 본다(p.131 참조).

앞에서 도서관에서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살펴 보았다. 이제 실제로 다문화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 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도서관들의 노력과 현재 안고 있는 과제와 고민을 공유해보도록 하자.

2004년에 개관한 청주기적의도서관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최근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 현

다문화서비스의 주요 내용

주민 요구의 파악

·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에서는 우선 지역의 소수 주민의 현황과 도서관에 대한 요구 파악이 중요함
  – 도서관 방문 이용자의 요구 파악 : 소수 주민의 요구에 철저한 대처와 개별 요구에 대한 기록, 분석을 직원 전체와 공유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함
  – 지역조사 등을 통해 현재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도 파악 :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에서는 특히 강조되어야 함
· 소수 주민은 자료,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도 도서관에서 자신이 바라는 언어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기대하지 않거나 도서관서비스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직접 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이러한 주민의 요구파악의 방법으로
  – 이미 자치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수 주민에 관한 통계조사나 설문조사, 인터뷰 조사 등의 이용 또는 도서관 자체가 직접 조사 실시
  – 지역의 소수 주민이 조직한 단체나 그 지원그룹의 방문이나 의견 수렴, 소수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의 방법이 있음

장서구성

다문화서비스를 하기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핵심은 장서로,
· 소수 주민의 모국어로 된 자료
· 거주국의 소수 언어(다국어), 공용어 습득을 위해 필요한 어학자료
· 그 나라나 사회의 소수 언어(다국어), 공용어로 된 소수 주민에 관한 자료가 주된 자료임. 중요한 점은 이용자의 언어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위의 자료들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에 필요한 자료라는 점이며,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류 사회문화에 관한 자료
  – 체류 국가에서 생산된 소수주민의 사회문화에 관한 자료
  – 소수 주민 출신국의 사회문화에 관한 자료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7. 100만 외국인 시대, 다문화 사회와 도서관 서비스. 『지금도서관에서는 |Now@Library』, 2. 9월 15일.

재 도서관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서비스를 어떻게 접근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를 고심하였는데 다문화서비스의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에 집중하여 서비스를 기획하였다. 또한 그들의 자녀, 더 나아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역민에게 도서관을 통한 만남의 장을 열어 다문화에 대한

접근점을 높일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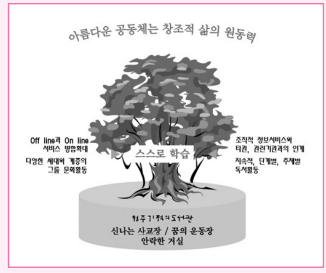
도서관은 다문화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본과정으로 다문화서비스를 도서관의 보편적 서비스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이용자 현황과 요구분석 및 이용행태가 반영된 자료, 시설, 설비, 인적서비스를 구축하여 다문화서비스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점진적 · 지속적으로 제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기획은 청주기적의도서관 운영원칙과 '엄마랑아기랑' 팀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연계 봉사자와 다언어경험자, 약 1,577점의 다언어자료(영어 1,487점, 중국어 70점, 일본어 10점, 베트남어 10점), '엄마랑아기랑' 팀을 멘토 역할로 확보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프로그램에 지원해 예산 등을 지원받았으며 이러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청주기적의도서관 운영원칙

청주기적의도서관은 기본에 충실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어린이도서관 표준을 목표로 한다.

- 자료관리의 표준화로 네트워크와 정보서비스 확대의 기반 형성
- 도서관 특성화 정책으로 '과학특화' 지향
- 영유아 프로그램의 정착으로 도서관 문화 확대
- '성장 중' 어린이의 독서능력 증진을 위한 단계별 독서지도
-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전시를 통한 역동적인 도서관



〈그림 46〉 청주기적의도서관 다문화 안내자료와 다국어 동화

- 청주시 평생 학습지원센터의 예산 지원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의 예산 지원
- 청주기적의도서관 자체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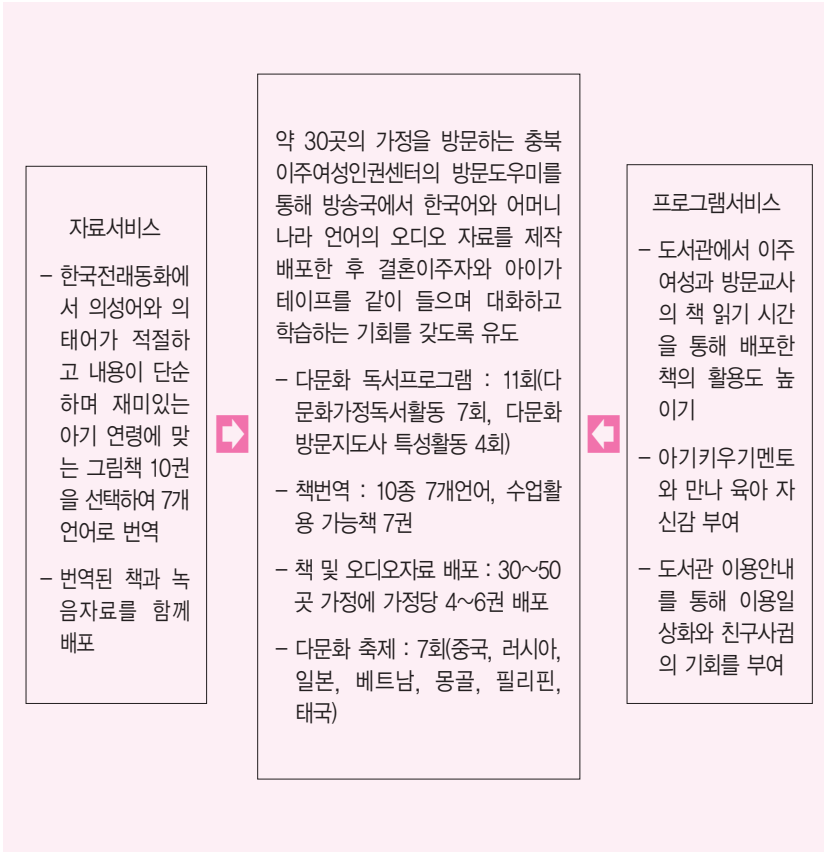
- 결혼이주여성 접근 통로 확인
- 책과 번역 언어 선택
- 저자, 출판사에 이야기번역 (녹음자료 제공 협조 요청)
- 방송국에 녹음 가능성 타진

- 다문화 북 스타트 : 다문화 가정에 그림책과 이야기를 통한 언어적 · 문화적 지원
- 다언어 안내서 : 도서관 이용의 일상화를 목표로 제작 · 배포
- 이중언어의 오디오 제공 : 매체 변화를 통해 책과 함께 자료 활용도가 높은 오디오 자료로 서비스 확대
- 다문화 축제를 통한 다양성 인정 : 다문화를 보편적 현실로 인식하기 위한 행사
- 다문화가정 교육봉사자에 도서관 교육
- 다문화가정 방문서비스 : 다문화 가정의 접근점에 대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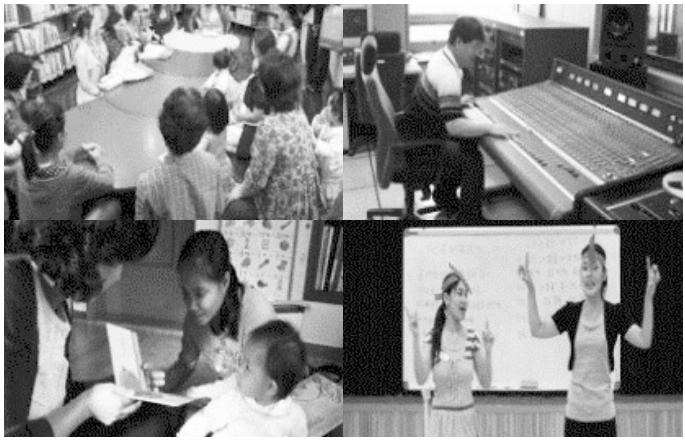
〈그림 47〉 청주기적의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계획

도서관의 중심인 자료를 서비스 대상자의 이용행태에 맞게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으며 자료서비스로 다문화북스타트, 저자 · 출판사 협의, 책 번역과

녹음, 다언어 안내서 제작, 다언어자료 구입 등을 시도하였고, 프로그램 서비스로는 다문화가정 관련 강사를 교육시키며 다문화가정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다문화행사와 멘토와 멘티의 만남, 방문서비스를 통한 다언어자료 배포 등을 선보였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결혼이주여성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도서 번역과 녹음, 다문화 축제 주재, 도서관 이용 안내서 제작 등의 난관을 해결해나감으로써 참여를 통한 교류의 장이 되었다.



〈그림 48〉 청주기적의도서관 다문화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서비스



〈그림 49〉 청주기적의도서관 다문화 자료와 프로그램 서비스

그 중에 다문화 환경의 '멘토와 멘티의 만남'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한글교육담당 방문지도사가 도서관에 와서 독서활동을 위해 책 읽어주기, 구연동화 해보기 등의 교육을 한다. 또한 월 1회 다문화가정 강사와 가정을 위한 도서관 안내 및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이주 여성들의 출신국가별 프로그램을 진행해 문화교류를 시도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의 도서관 대출증 만들기에서부터 도서관 이용안내하기, 이야기 그림책 듣기, 짧은 동화 읽어보기, 동요부르기, 전래 놀이하기, 만들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서비스의 경우, 극소수의 가정에 소량의 자료를 통해 짧은 시간동안 시행되는 제약과 직원들이 다언어와 다국어 자료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한계로 판단된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첫째, 외국 자료의 선택과 수집을 위한 출판유통이나 수서목록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둘째, 다국어자료의 정리방법을 확립하여 다언어 주제접근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등 현재 도서관의 프로그램

〈그림 50〉 청주기적의도서관 '멘토와 멘티의 만남'

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다언어에 대한 유지 ·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료의 수집 · 정리의 집중과 분담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결혼이주여성의 한글교육을 위한 미디어 변환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5], 마지막으로 다문화자료를 전담하는 담당 사서에 대한 재교육 등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과제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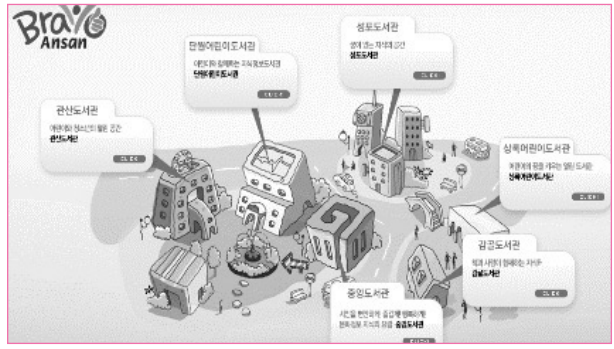
또 다른 사례로 얼마 전에 개관한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이 있다. 안산시는 불과 20여년 만에 '농어촌 문화'에서 '공단 도시문화'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곳이다. 특히, 1990년 이후에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모인 반월 공단 공장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맞이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며 살아가는 도시이다.

---

5) 다언어 도서관서비스가 발달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미국에서는 자료 수집과 정리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출판단계에서 자유이용마크부착으로 녹음과 기타 자료 변환을 통해 이용 장애가 감소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취하고 있음.

현재 안산시 원곡본동의 경우 3만여 명 주민의 70% 정도가 외국인이며, 약 18개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30여 개의 외국인 상점들이 입주해 있으며, 20여 개의 지원 단체와 민족 공동체, 종교기관이 이들에 대한 상시적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국경없는거리' 원곡동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공공도서관으로는 처음으로 다문화 전용도서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안산에는 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6개의 도서관이 건립되었고, 2008년 12월에 작은도서관이 2곳 더 신축될 계획으로 안산 시민을 위한 도서관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안산의 도서관 건립은 일정 수준까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이용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초점을 맞춰 그 일환으로 다문화도서관이 건립된 것이다.



〈그림 51〉 안산 소재 도서관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안산시 직영의 안산외국인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와 단원보건소운영의 원곡보건지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입지 선정에 있어 주 이용층이 될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주민센터와의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었다. 주민센터에서는 체육, 컴퓨터, 한국어, 방과 후 지도 등 실 생활에 필요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도서관의 향후 계획으로는 독서지도 등 도서와 관계가 있는 교육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으로는 다양한 언어의 외국장서와 관련이 있다. 도서의 구입은 동남아지역의 특화된 대행사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분류는 대행사의 구입담당자가 동남아의 여러 언어를 습득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인이기 때문에 입수된 각국 도서의 제목을 그 나라 언어로 입력하는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주민센터 내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언어의 통역지원을 하고 있는 '이주민통역지원센터'가 있어 도움을 받고 있으며 부적절한 주제의 도서와 목록에 대한 감수를 받을 수 있어 그나마 장서의 질이 적절한 선에서 유지하고 있는 듯 보이나, 이러한 지원기관이 없는 도서관의 경우 다언어 장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도서입력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관리프로그램은 다국어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일단 한자와 영어, 한글 위주로 등록하고, 그 외에는 들리는 음대로 한글로 입력하는 여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도서관의 방식과 비슷하게 도서를 등록하고 있었다. 물론 그로 인해 컴퓨터를 통한 도서검색서비스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대안으로 국가별 파일을 만들어 각국의 언어로 도서명, ISBN, 출판사를 정리한 엑셀 파일을 인쇄본으로 출력하여 비치하고 있었다. 정리부분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러 국가의 생소한 언어의 도서들로 장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치기호가 필수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실제 한국, 아동, 중국, 중/아(중국/아동의 의미), 영미, 영/아, 태국, 태/아, 인디, 베트남, 필리핀 등 다

양한 별치기호가 사용되고 있었다.

장서는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구 순위를 기준으로 중국〉영어권〉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언어로 입수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비도서자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우선 비도서자료와 이를 재생할 수 있는 필요한 기기들을 구매하고, 단행본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원곡동 주변에 관산도서관이 있으나 거리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원곡동에 거주하는 내국인들을 위해 국내서 역시 확충할 계획에 있다.

전문적인 다문화도서관에 대한 사례는 지금껏 공공도서관계에서 이렇다하게 소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개관하기까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며 이용자에게 접근해야하는지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이다. 아래는 담당 사서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본 것이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현황

- 초기에는 타깃으로 다문화가정을 선정하였으나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용률이 더 높았음
- 안산의 도서관들은 근교 4개의 타 지역 주민들(수원, 시흥 등)에게만 제한하여 도서를 대출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다문화도서관만은 예외 규정을 두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도민에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결혼한 이주민보다는 주말에 타 지역의 외국인근로자들이 방문하여 도서를 대출해 가고 있으며 가장 아쉬운 점은 아직 언어별 장서들이 다양하지 않아 일부러 시간을 내어 방문하였으나 자국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용자들의 수가 적지 않아 안타까웠음.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여기며 장서개발에 참고할 것임. 현재 이용자는 외국인6 대 내국인4 정도의 비율임
- 한국어교재에 대한 문의가 있으나 국내 출판사나 동남아의 출판사에서 제작하는 언어권이 아직 한정되어 있어(베트남어로 된 한국어교재는 보유) 이에 대한 개발이 시급함

- 현재 안산은 한 장의 회원카드로 시의 모든 도서관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으나 도서의 반납은 꼭 빌린 도서관에 가야만 처리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시정해달라는 민원은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지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함으로 여력이 부족함
- 무료로 도서를 대출해주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입구 쪽에서 서성거리며 안을 들여다만 보고 있는 외국인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들을 도서관 안으로 이끄는 역할은 사서의 중요한 소임 중에 하나라고 여겨짐
- 도서관이 자리를 잡기까지 우선적으로 외국인들에게는 도서관의 문턱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이 시급하며 회원가입에 대한 설명부터 참고봉사를 시작해야 하고, 외국인들이 주로 자리에 앉아 도서를 읽기 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방문하여 대출해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참고봉사계획이 필요함

– 담당사서와의 인터뷰(2008) –

현재 도서관계는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전국의 공공도서관 관계자에게서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으로 많은 문의전화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문했거나 전화문의를 해 온 도서관 사서들의 질문을 몇 가지로 압축해보면 장서구입, 장서 관리 프로그램, 장서 검색, 이용자 반응에 대한 것이다. 그 중 특히 장서부분에 대해 사서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 필자들이 몇몇 도서관의 사례를 조사하여 다언어 장서관리 현황 비교표를 제시해보았다(p.141 참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다문화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 지역적 특색에 따라 이용자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안산시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이 더 많이 방문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정 혹은 결혼이주민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경우, 홍보는 개관 전까지 신문, 방송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개관 이후에는 외국인에게 주력하여 홍보하였는데 이들은 어떤 큰 집단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주민센

〈표 8〉 다문화 장서관리 현황

도서관	장서	입수방법	목록	배가	앞으로 계획
광양시립도서관 (2008년)	도서 900권 이상 영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대행사	대행사로부터 도서 제목, 내용 등 전달받음 음역하여 등록 및 검색 가능	국가별 분류	문학(소설)류를 중심으로 구입하고, 어린이와 성인용 자료의 비율은 5대 5 유지
아우내도서관 (2008년)	도서 약 300권 및 소량의 DVD 중국, 태국, 러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대행사, 대사관기증, 개인기증	대체로 아동문학 도서라 세부적인 분류는 하지 않음 엑셀파일로 정리 방문하는 이주여성의 도움으로 한글음역 하여 작성	국가별 분류 (실을 구분)	아동도서 (특히 그림책) 중점 수집 DVD · 음반 등 비도서자료 확보
안산다문화 작은도서관 (2008년)	도서 약 4,500여권 중국, 영미, 태국 , 인도네시아, 베트남 , 필리핀 도서	대행사, 기관기증유도	언어지원이 안될시 음역하여 등록 목록DB 엑셀파일을 정리하여 출력 · 비치	국가별 분류 (유아, 일반 구분)	현재 없는 국가언어 도서, 비도서 및 국가별 한국어교재 입수 주력
홍성도서관 (2008년)	도서 약 400여권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일본도서	대행사, 일부 외국인에게 직접 구매요청	도서관리프로그램에 등록	다문화 가정 및 센터	동화책 읽어주기 및 상담 병행, 다문화도서코너 등
민간도서관 '모두' (2008년)	도서 약 8,000여권 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영어, 이집트,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폴란드, 프랑스 등	후원기관, 지인을 통해 입수 대행사와 접촉하여 추진여부 타진 중	언어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한글과 영어제목을 제외하고 기타언어의 도서 제목을 한글로 번역하여 등록	국가별 분류 (유아, 어린이, 일반 구분)	어린이와 성인용 자료의 비율은 7대 3으로 구입
민간도서관 '꼬마' (2005년)	도서 약 5,000여권 네팔, 몽골, 러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란,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영미 등	지인을 통해 입수	도서관프로그램을 통해 한글음역하여 DB 구축	국가별 분류	문학류와 같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자료 중심

※ ( )년도는 서비스 실행연도임.

터 곳곳에 도서관 관련 리플릿을 놓아두거나 틈틈이 센터에 방문하는 단체 및 교회 등을 통해 면대면 홍보를 하는 것으로 접근하였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한쪽 벽면에는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다. 이는 다문화도서관다운 디자인으로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도서관에 방문하여 자신의 조국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서 도서관에 대한 흥미나 친화력을 쌓고 자국의 언어로 된 책을 찾아 보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장치로 도서관 건립에 관여했었던 모든 이들의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다.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국내 최초의 외국인을 위한 공공(작은)도서관으로서 아직 서비스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부족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주민센터 관계자는 "다문화서비스는 시간을 들여 기다려줘야 한다. 당장 무언가 변할 것이란 기대는 커다란 실망만을 가져올 것이므로 그들이 조금씩 받아들이고 변화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해주었다. 다문화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 담당자들이 귀기울여 볼 만한 이야기이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하는 인천화도진도서관[6]과 대전한밭도서관[7]

최근 들어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개발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며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인천화도진도서관 황숙경 사서가 제시한 공공도서관 10곳의 장애인서비스 직무사례분석 표를 통해 1988년 개관 이후 특성화사업으로 시각장애인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화도진도서관과 개관직후인 1990년에 시각장애인실을 개실한 대전한밭도서관이 활발한 장애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표 9〉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직무 분석

	정독	구포	효목	화도진	한밭	울산 중부	경기 도립	전주 시립	목포 공공	김해 시립장유
특수자료조직		O	O		O			O		
장애인실운영			O	O	O	O		O	O	O
특수자료장서관리		O			O		O		O	
특수자료서비스		O		O	O	O	O		O	O
정보자료서비스	O					O		O		O
장애인 독서활동서비스	O		O	O		O				
장애인 문화 · 평생교육			O	O				O		
장애인서비스관련 시스템관리										
장애인서비스 대외협력				O						
특수자료제작				O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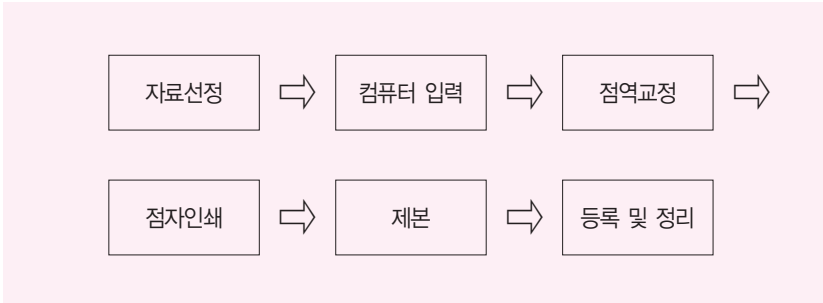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8. 『2008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교육(제2회) 및 협력망 워크숍』.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참고 수정

6) 도서관연구소가 발간한 2007도서관현장발전우수사례와 2008년 도서관장애인서비스교육및 협력망 워크숍 자료를 참고함.
7) 본 사례는 2008년 도서관연구소가 선정한 우수사례사례임.

인천화도진도서관은 면적 30.8㎡, 총 좌석수 8석 규모의 시각장애인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특수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를 제작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실은 점자도서를 제작하기 위한 시설로 컴퓨터 2대, BOOKMAKER(점자프린터기) 1대와 소음방지기 1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녹음 도서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방 2실과 오디오 2세트, 카세트테이프 데크 2대, 고속 복사기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실 내부에는 저시력인을 위한 독서확대기와 브레일노트, 입체복사기가 있어 장애인에게 이용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실은 도서관의 출입문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이용자를 위해 점자유도블록 및 점자 안내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 등을 준비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좀 더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처음 시각장애인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다. 가입신청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학력, 실명원인, 실명년도, 점자해독 유 · 무,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가입한 뒤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신간도서 목록을 포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목록을 보내주고 있다.

시각장애인이용자는 무엇보다 점자 및 녹음 도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수 자료를 도서관에서는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어 그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에 필요한 의학도서, 도서대출 통계, 회원희망도서, 자원봉사자의 추천도서 등을 고려하여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자도서로 제작할 도서를 선정한다. 그 후 컴퓨터입력기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컴퓨터를 통해 입력하며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점역 출력하여 교정을 보고 이후 점역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쇄 및 제본 후 정리를 위한 분류 · 등록 · 점자서명부착 등을 한다.



〈그림 52〉 점자도서 제작 과정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8. 『2008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교육(제2회) 및 협력망 워크숍』.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참고 수정

녹음도서 제작의 경우, 주제별 국내외 명작 및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회원의 희망도서나 비소장 도서를 위주로 선정하여 도서내용과 낭독자원봉사자의 음색에 맞추어 녹음 한다. 전문도서인 경우 활자중심으로 표, 그림, 전문어를 낭독중심으로 재편집하고 녹음이 완성된 도서는 다시 편집해 원본 테이프로 완성한다. 이중 보존용 테이프와 대출용 테이프를 구분하고 1테이프 당 1개씩 복사하여 녹음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대출시킨다. 대출용 녹음도서는 따로 정리하여 목록으로 발행하고 분류별로 대출서가에 배가하며 회원의 서신과 전화 신청에 따른 우편대출을 실시하고 반납된 녹음테이프에 관련해서는 녹음상태와 청결도 등을 확인하여 서가에 재 배가 한다. 녹음도서는 앞면에 도서명, 저자, 자원봉사자 명, 뒷면에 출판사, 출판 년도를 묵자 및 점자 스티커(앞면만)로 붙여 정리한다. 그 외에도 개인 제작의뢰가 들어올 경우 자료 신청을 받아 반드시 신청자와 작업에 대한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하며 도서내용과 낭독봉사자의 전공에 맞추어 녹음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특수 장서를 제작 및 구축하기까지 도서관과 담당직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984년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도서관 내에 장애인서비스 업무를 맡아보던 종로도서관의 시각장애인실이 4년 8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시각장애인실의 운영하기 시작한 화도진도서관은 많은 고민과 부담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앞선 사례의 실패를 거울삼아 직접 장애인이 되어 현장 감각을 느끼려고 노력하였으며 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도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특수학교, 복지기관, 사설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설명과 장애 영역 서비스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것 역시 시각장애인실에 꼭 필요한 노력으로 언론매체, 홍보매체, 각 기관의 사회단체, 대학교의 관련 학과,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등을 활용하여 모집하고 있으며 낭독봉사(모니터), 컴퓨터입력을 위한 도서입력기법 및 점역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분야별 심화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고취를 위해 4월 도서관주간과 9월 독서의 달을 활용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인열람자가 도서관내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강좌가 있다면 필요한 자료를 제작 · 지원하기 위해 힘쓴다. 또한 강좌가 시작되는 첫날 담당직원은 비장애인회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인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강좌의 대표자와 교류를 통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핀다. 강좌가 끝나면 어떤 부분에서 장애인이 불편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알아보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

며 강사와 상의하여 교육 내내 심리적 · 교육적으로 배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림 53〉 화도진도서관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은 우선적으로 시각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내용을 구상하여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담당자의 의도가 돋보인다.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통합 프로그램의 시발점은 1997년 어린이 백일장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동 · 하계에 운영하는 어린이독서교실에는 3~6명의 시각장애학생이 참여하며 장애학생을 위한 모든 자료는 점자, 녹음도서로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마음음악교실'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 보육원생과 비장애인 보육원생을 대상으로 총 15명이 오카리나, 플룻, 리듬악기, 핸드벨 등을 연주하여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응모에 당선되었으며, 2001년 전국평생학습축제에서 동상, 2008년 인천평생학습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민관협력의 사례로 번역가(김숙)가 직접 본문 내용을 녹음하여 CD로 책과 함께 선보인 『앞 못 보는 하얀개 이야기』는 출판사가 직접 녹음도서로 제작해 화제가 되었으며 장애인 체험교실, 자원봉사자 교육 및 협의회 운영, 어린이독서교실 책자 '손끝에 마음으로 읽는 점자' 코너 신설, 큰 활자 도서 제작 등 끊임없이 진화해나가는 화도진도서관 시각장애인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더불어 오랜 기간 열정적으로 시각장애인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밭도서관의 사례도 소개해보려고 한다. 한밭도서관의 사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제2회 도서관현장 발전 우수사례(2008년도)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받은 프로그램이다.

한밭도서관은 1991년부터 녹음, 점자도서를 자체 제작해 방문대출과 우편대출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시각장애인들에게 자료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소외계층에게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자료서비스도 예전과 다르게 제공되고 있는데 개관 초에는 주로 녹음도서와 점자도서를 방문 및 우편대출서비스로 제공하던 것이 주요 서비스였으나 현재에는 컴퓨터의 발달 및 보조기기, 각종 프로그램의 발달로 파일형태나 CD 형태의 자료매체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자료매체의 변화는 점자도서처럼 공간을 많이 차지하

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주는 장점과 동시에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빠르고 많은 양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료제작, 자료우편대출과 방문대출, 장애체험학습, 전자도서관 자료구축, 학습 희망자료 제작 등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 서비스

점자도서와 녹음도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료다. 녹음도서는 시각장애인실 녹음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제작에 참여한다. 점자도서는 문학과 침술관련 도서가 주로 이용되며, 녹음도서는 주로 문학, 종교분야가 대출된다. 맹아학교 학생들과 젊은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은 컴퓨터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읽거나 들으면서 자료이용의 폭이 넓은 편이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중년층에서는 주로 녹음도서를 대출하여 이용하고 있다. 녹음도서는 정상적인 독서가 불가능한 환자, 노인까지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자 2005년부터 병원에 녹음도서를 기증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독서편의를 제공하는 등 편리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작된 녹음도서는 대전 시내 평화노인전문병원, 을지대학병원 도서실, 대전중앙병원, 남영노인전문병원, 대전선병원, 대전보훈병원 등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카세트테이프로 기증되다가 2008년부터는 CD 녹음자료로 만들어 기증하고 있다. 기증한 녹음자료는 문학과 일반교양, 건강관련분야 자료들로 1년에 두 차례 도서관에서 직접 제작한 10종의 자료로 병원담당자가 관리한다.

또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희망 자료를 제작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다. 특히 시각장애수험생이 필요한 희망학습 자료를 원하는 형태(녹음자료, 텍스

트자료)로 제작 지원해주고 있다. 학생들은 학습 자료인 문제집이나 특수교육, 전공분야에 관한 의뢰가 많고, 일반인은 종교서적, 수지침, 취업과 직장 관련된 자료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희망 자료들은 정해진 기한까지 만들고자 여러 명이 나누어 워드로 직접 입력하기도 한다. 희망학습 자료를 제작 서비스하는 것은 비장애인들이 희망 자료를 신청하듯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으로 보통 15일에서 두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넉넉한 제작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인근교회에서 필요한 주보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오면 점자프린터로 출력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2) 도서관 장애체험학습

2005년 7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시각장애 상황을 연출해 실제 경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소외계층을 이해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마련한 행사이다. 도서관 주변 초등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과 엮어서 실시하는 본 행사는 인근 초등학교에 안내공문을 보내고 원하는 학교에서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접수를 받아 시각장애인실에서 매년 진행한다.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험학습은 먼저 시각장애인실 소개와 손으로 점자도서 읽어보기를 한 다음, 2개조로 나누어 한 조는 점자관련 안내와 음성지원 컴퓨터체험을, 다른 조는 녹음도서, 점자도서 제작과정을 알아보기, 저시력자용 확대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소리로 듣는 인터넷 등 시각장애인들이 시각대신 다른 감각을 활용해 어떻게 정보습득을 하는지를 체험하게 한다. 또한 흰 지팡이를 사용해보고 안대를 착용해 보는 시

각장애인 행동 겪어보기와 점자도서 읽고 쓰기, 화면해설비디오 감상 등 체험하는 과정으로 구성한다.

인천화도진도서관과 대전한밭도서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그들만의 자료제작 및 이용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은 매우 미약하다. 자료 제작하는 곳도 적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드는 것이다. 도서관이 '누구나 다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자료제작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해 노력하는 미국의 공공도서관

미국의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정보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어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잭슨빌공공도서관

플로리다 주 잭슨빌공공도서관은 4개의 분관(Brentwood, Graham, Eastside, Westbrook Branch library)에서 6~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ASPIRE(After School Programs Inspire Reading Enrichment)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적인 게임과 과제를 위한 인터넷교육, 비판적 사고를 위한 놀이, 간단한 수공예, 과제 돕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림 54〉 잭슨빌공공도서관의 ASPIRE 프로그램

필라델피아공공도서관

1891년에 설립된 필라델피아공공도서관은 45개 분관, 장애자용 도서관, 지역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45개 분관에는 Bits and Bytes Tech Team Assistant 프로그램을 통해 120여명의 기술 전문가들이 아동,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개인지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전문기술을 익혀 장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청소년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박온자 2005).

버클리공공도서관

버클리 지역주민들은 인종, 경제여건, 문화적 배경이 다양하여 이 지역의 10% 이상의 청소년들은 ESL(English-as-a-Second-Language)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버클리공공도서관과 4개의 분관은 청소년담당 전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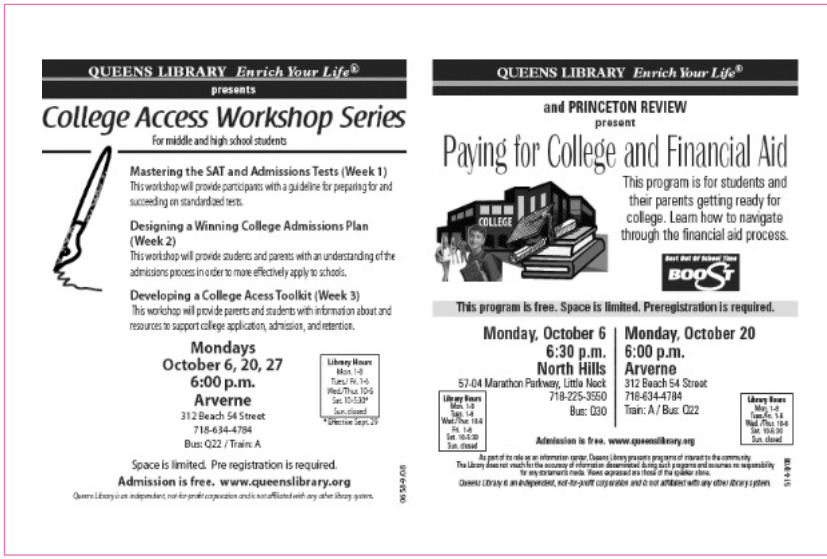
서가 있어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한 예로 청소년담당 부서는 버클리고등학교 ESL과와 협력하여 영시 짓기 대회인 ESL Poetry Reading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ESL교육과정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와 도서관, 학생들을 연결시키고 있다(박온자 2005).

카멜클레이공공도서관

인디아나주 카멜클레이공공도서관의 Couch Central 프로그램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청소년들이 와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해주었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소설, 잡지, 만화책, 비소설 등이 준비되며 주중에도 청소년들이 이곳을 이용한다. 담당을 맡은 청소년담당사서는 장서개발과 청소년서비스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청소년도서관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다(박온자 2005).

퀸즈공공도서관

뉴욕 주의 퀸즈공공도서관에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많으나 그 중 학생과 부모를 위한 입시프로그램이 주목할 만하다. "Paying for College and Financial Aid" 프로그램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과 부모를 위한 학비보조금 설명회이고 "College Access Workshop Series"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한 워크숍으로, 첫 주는 표준화된 테스트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와 입학테스트를 준비시키고 가이드라인을 참가자에게 제공하며, 두 번째 주는 가고 싶은 대학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부모와 학생들에게 설명한다. 셋째 주에는 대학지원서를 통해 입학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55〉 퀸즈공공도서관의 입시관련 강좌

미의회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미의회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서비스센터(NLSBH, 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Handicapped)는 전국에 57개의 지역 도서관들을 지정해 NLSBH가 마련한 장애의 기본 조건에 맞는 이용자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 도서관은 국가도서관서비스와 연계하여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시력에 대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텍사스주도서관기록보관소위원회의 Talking Book Program

텍사스주 도서관이 국립장애인도서관서비스센터(NLSBH)와 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Talking Book Program(TBP)은 일반 정보자료를 시각,

청각, 읽기 장애가 있어 읽을 수 없는 전 연령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료를 읽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자료로 바꾸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TBP에서 제공하는 도서는 카세트테이프, 점자, 다른 형태의 디스크, 그리고 큰 활자본 등이 있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NLSBH에서 제공하며 소설 · 비소설류의 베스트셀러, 고전, 미스터리, 서부극, 과학소설, 아동도서, 전기, 그리고 다른 장르의 자료 등을 포함한 60,000개의 타이틀이 TBP의 장서로 구성하고 있다. 도서뿐만 아니라 《내셔널지오그래픽》, 《뉴스위크》, 《리더스 다이제스트》 등의 전국적으로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잡지 또한 읽을 수 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텍사스 지역에서 발간된 지역 잡지들 또한 카세트테이프로 전환해 제공한다.

TBP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서비스를 한다. 텍사스 독서클럽에 참여하여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들이 TBP가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텍사스 독서클럽을 통해 TBP가 제공하는 자료 서비스를 각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음을 홍보한다. 이용자들은 각 지역 공공도서관의 주제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TBP로부터 제공받아 독서클럽에 참여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인디애나주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인디애나주 도서관은 미의회도서관의 NLSBH가 지정한 57개의 지역 도서관 중의 하나로서 주 도서관은 NLSBH가 제시한 기본 자격 요구사항에서 장애의 조건을 갖춘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 서비스하기도 하지만 지역적으로 서비스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인디애나주 소재 4개의 공공도서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운영한다. 즉, 동서

남북 네 구역으로 나누어 한 구역 당 하나의 지역 도서관, 즉 네 개의 공공 도서관들과의 계약을 통하여 구역별로 소속된 카운티의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지정된 각 도서관은 다음의 네 가지의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점자도서, 녹음도서, 큰 활자본 도서 등 대출과 특수한 형태로 제작된 연속간행물 제공,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참고 도서 세트 유지 및 참고봉사와 추천 서비스 시행, 특수 서비스에 관한 뉴스레터 'Hoosier Highlight'를 제작하여 모두 8,000개의 기관과 개인들에게 배포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나가는 글

이 책을 쓰면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처럼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의 꿈을 실현 가능하게 해 주는 공공도서관들이 있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그러한 도서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별인지 새삼 확인했다.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살아 숨쉬게 하는 심장이 되게 하기 위해 헌신하는 도서관 현장 직원들, 특히 사서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그들은 별들이 하늘에서 밝게 빛나게 하는 빛의 원천이다.

사람들은 보통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실제로는 세상을 잘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공공도서관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 문화와 교육을 공평하고도 적극적으로 제공하지만 그 가치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한 교포는 도서관에 갔다 오면 부자가 된다고 했고, 세계 최고 갑부인 빌 게이츠는 자신을 만든 것은 어릴 적 다녔던 마을 도서관이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어릴 적 지독하게 책을 읽었다고 하며 보도들에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도 분명 그 많은 책을 읽을 때 도서관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책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다만 아직 우리는 개개인의 노력에 공공도서관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 다시 책을 읽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도서관의 친구가 되고 있다. 여전히 문제가 적지 않고, 나아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끼리만 이야기하고 고민하던 때와 다르다. 이제 도서관도 사회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생긴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사회가 도서관을 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때이지만, 그럴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도 지역사회의 핵심인 주민들이 친구가 되고 있으니 한 번 도전해 볼 만하다. "Yes, We Can",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천 노력이 있다면 한 번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해 볼 때가 되었다.

도서관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찾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제대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고를 넘어, 이제 다시금 힘을 내야 한다.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들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우리 도서관 사람들의 몫이고 책임이다. 그동안 관심을 주지 않았던 주민들이 지금은 도서관을 쳐다보고 있으니 다시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도서관과 사서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제대로 하면 주민들의 호응과 지지, 격려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다시 동력으로 삼아 계속 질주해야 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다. 이제 도서관과 사서들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자주 만나고 서로 이해 폭을 넓혀간다면 도서관은 지역사회 속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의 지지를 받는 도서관은 힘이 세다.

책을 마무리하려다보니 도서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좋은 서비스들 가운데 겨우 몇 가지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도 아쉽다. 그러나 한 편으로 이 책을 통해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고, 또 특별해야 한다는 것, 그 특별함은 계속된 시행을 통해 도서관의 내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에 공감할 수 있

다면 다행이다. 그러한 일은 결국 도서관과 사서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도서관의 역량을 최대한 조직하고 활용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독자, 특히 도서관 사서들께서 이해해주신다면 그것으로 필자들은 만족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당장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완성된 자료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우리 필자들 보다는 도서관 현장 사서 여러분이 다른 도서관 사서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도서관들은 하나의 큰 도서관으로 서로 연대해야 한다. 사서들도 그렇다. 계속 다른 도서관 사서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다. 경기도 도서관들은 그동안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연대와 협력 활동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각 도서관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동함으로써 도서관과 사서 활동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 계기가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그래서 더욱 특별한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면 좋겠다. 그 때 이 책이 각 도서관의 실천과 도서관간 대화를 촉진하고 서로의 손길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 특화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것이 무언가 새로운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안에 이미 존재하는 '오래된 미래'의 모습을 찾고, 그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을 내 보이는 행동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미 도서관 안에 존재하는 '오래된 미래'는 사서들이다. 사람만이 희망이자 도서관 활동의 원천적 힘이다. 도서관 경영자들은 사서가 도서관을 지역사회 속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공기관으로 만들어 도서관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그

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즉 주민을 만나고 주민들의 삶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꼭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는 쉽지 않다. 우리가 선택해서 소개한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 평가는 내용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소중하다. 잘했다고 생각하면 더 발전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개선책을 강구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제시한 여러 사례들은 각자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참고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찾아주시기를 바란다.

필자들이 다 담지 못한 무수히 빛나는 하늘의 별 같은 도서관들의 활동을 담아낼 더 큰 그릇이 만들어 지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책을 맺는다.

참고문헌

강미혜. 2003. 외국학술지 분담수서에 관한 연구: 서울동북부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덕성여대논문집』, 32: 61-79.

강흥순. 2005. 환경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도서관을 위한 제언.『환경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환경도서관 어떻게 만들것인가?』. 2005년 7월 13일. [여수: 문수종합사회복지관].

곽동철. 2000.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서관 관리자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1): 167-186.

곽승진. 2007.6.28. 『전문도서관의 Librarian 2.0과 정보서비스』.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2007년 학술세미나 초청강연자료. 대전: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곽승진. 2008. 다문화 정보서비스와 협력망 구축. 『2008 디지털도서관 컨퍼런스』, 11: 107-121.

곽철완. 2002.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구입자료 중복율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4): 147-155.

곽철완. 2007. 미국 주 도서관 서비스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2): 203-218.

광주시민환경연구소. 2007. 『문화경관.생태환경보전지구 조성전략 정책연구』. 광주:(사) 광주시민환경연구소.

경기도,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2008. 『2008 경기도 도서관대회』.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기도,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2007. 『2007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및 장애인서비스 세미나』. 수원: 경기도,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표준안 개발 TFT. 2007. 『2007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표준안』. 수원: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08.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의 블루오션을 찾아라! 청소년과 직장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2008 경기도도서관 정책개발 작은 세미나.

국립중앙도서관. 2007.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8. 『2008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교육(제2회) 및 협력망 워크숍』.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7.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2007』.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8. 영국 지역사회 도서관 프로그램 평가. 『도서관연구소 웹진』, 14. 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7. 100만 외국인 시대, 다문화 사회와 도서관 서비스. 『지금도서관에서는 |Now@Library』, 2. 9월 15일.

권복기, 황민호. 2007. "대한민국하고도 그 작은 면, 여기가 '자치 1번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life/181742.html〉. [cited 2008.9.5.]. 1월 2일.

김갑현.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인적자원 정책전공.

김성규. 2005. 『대학도서관간 외국학술지 공동 이용을 위한 효율적 분담

수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서울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태현. 2006.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미국의 P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37(3): 131-150.
박미영. 2007. 공공도서관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독서활성화 방안.『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38(1): 315-339.
박온자. 2005.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서비스에 관한 연구: 미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2): 5-33.
박온자. 2006. 공공도서관의 특수장서 현황 조사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79-101.
박용남. 2006.『꿈의도시 꾸리찌바』. 서울: 녹색평론사.
방준필. 2008. "도서관 역사". 〈http://www.bangjunpil.pe.kr/lec/histo.htm〉. [cited 2008.9.6].
배경재 외. 2006.『독서 장애인을 위한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축 - LG 상남도서관 사례 연구』.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72ND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20-24 August 2006, Seoul, Korea.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서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공철. 1996.『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손근방. 2007. "충남 옥천 안남 배바우작은도서관 개관".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10546〉.

[cited 2008.9.5]. 7월 21일.
스가야 아키고. 2004.『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서울: 지식여행.
안찬수. 2005. 여수 환경도서관이 열어나가야할 미래.『환경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환경도서관 어떻게 만들것인가?』. 2005년 7월 13일. [여수: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안찬수. 2008. 마을공동체와 도서관.『진안 마을축제, 학습교류회』. 전라북도: 진안.
이란주. 2002.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한국비블리아학회』 13(2): 183-195.
이소연. 2004.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문화 서비스 활성화 방안.『한국문헌 정보학회지』, 38(3): 23-43.
이우정. 2007. 길은 걸어가야 이루어진다. -D공공도서관 인문학 강좌를 통해 본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전략-.『도서관문화』, 48(10): 24-27.
이연옥. 2002.『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이장영, 강효민. 2008. 도시규모에 따른 여가와 생활만족도. KGSS 심포지엄『한국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현황과 시사점』. 서울: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 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 2008. 가구 형태에 따른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KGSS 심포지엄『한국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현황과 시사점』. 서울: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 삼성경제연구소.
이진민. 2003.『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여수환경운동연합. 2005.『모범적 환경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 전라남도: 여수.

전창호. 2007. 지구를 지키는 도서관. 『도서관계』, 153: 21-29.

정미경. 2007.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美 ‘사랑과 용서’ 캠페인 확산”. [cited 2008.9.8.].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n=200701260084〉. 1월 26일.

조상원. 2007.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 〈http://203.241.185.12/asd/read.cgi?board=news&y_number=324&nnew=1〉. [cited 2008. 9. 10]. 11월 14일.

조용완. 2007. 이주민을 위한 국내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38(2): 245-269.

조용완. 2008.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를 위한 효과적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39(3): 429-456.

차연호. 2005. 『공공도서관 서비스 특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2007. 『민관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홈페이지. 2004. “기적의도서관 소개”. 〈http://www.book.reader.or.kr〉. [cited 2008. 9. 5.].

청주기적의도서관. 2008. 『청주기적의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례』. 청주: 청주기적의도서관.

최호남. 2006. 웹 2.0과 미래 도서관. 『도서관문화, 47(5): 2-3. 카렌 M. 벤추렐라. 2002. 『도서관을 통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서울: 한울출판사.

하영식. 2003. 신피라미드 알렌산드리아도서관 개관. 『너울』, 14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지역 지식정보서비스 활성화 지원 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한국문화정책연구소. 2006.『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서울: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국여성개발원. 2003.『도서관 서비스 기획을 위한 워크숍 개발에 관한 연구』. 수원: 경기문화재단.

홍순길. 2004. 헤세도서관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헤세연구』, 11(0): 1-5.

황민호. 2007. "농촌 지역 작은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실태, 그리고 미래". 〈http://kr.blog.yahoo.com/pleamore/4662〉. [cited 2008.9.5.]. 5월 30일.

Chelton, Mary K.,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Association. 2000.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Associatio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Evans, Edward G.. 2000.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Gill, Phillip. 2002.『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혜란 옮김.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Grunig, James E., Hunt, Todd T.. 1984. Managing Public Relation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Markuson, Evans B., Woolls, Blanche, ed. 1980. networks for networkers: critical issues in cooperative library network development. New York: Neal-schuman press.

MLA, UK. 2008. Community Libraries Program Evaluation : an overview of the baseline for community engagement in libraries.

Reed, Sally Gardner Reed, Beth Nawalinski and Alexander

Peterson. 2004. 101+Great Ideas for Libraries and Friends.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Inc.

Robertson, Deborah A.. 2005. Cultural programming for libraries : inking libraries, communities & cultur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Vaillancourt, Ren'ee J.. 2000. Bare Bones Young Adult Services: Tips for Public Library Generalist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William, Chait. 1980. The role of the public Library in networking. networking. New York: Neal-schuman press.

참고한 인터넷 국내 사이트

(사)아시아공동체
http://asiaschool.or.kr

2008함평세계나비 · 곤충엑스포
http://hampyeongexpo.org

개인블로그21세기 민중자서전 '눈-길
http://beforesunset.tistory.com /153

개인블로그21세기 민중자서전 '눈-길'
http://beforesunset.tistory.com/11

개인블로그 소나무집에서
http://blog.aladdin.co.kr/760753173/2109079

개인블로그 일본, 일본어, 일본이야기!
http://blog.daum.net/bkseok/ 14938887

고척도서관
http://www.gocheok.or.kr

금산기적의도서관
http://library.geumsan.go.kr

도쟁이 & 슬미
http://203.241.185.12/asd/read.cgi?board=news&nnew=2&y_number=319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http://www.l4d.or.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t.go.kr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http://www.yeonsanlib.kr

부천예술정보도서관 '다감'
http://lib.bcf.or.kr

북수원도서관
http://buk.suwonlib.go.kr

서수원도서관
http://seo.suwonlib.go.kr

선경도서관
http://sk.suwonlib.go.kr

속초도서관
http://www.sokcholib.or.kr

수원시도서관사업소
http://lib.suwon.ne.kr

수원중앙도서관
http://ct.suwonlib.go.kr

순천기적의도서관
http://www.scml.or.kr

순천시립도서관
http://www.sclibrary.or.kr

아시아인권문화연대
http://happylog.naver.com/asiansori/post/PostList. nhn?pcatno=123

아시아평화인권연대
http://www.sopra21.org

안산시도서관
http://lib.iansan.net

안산이주민센터
http://www.migrant.or.kr

어린이도서관 '모두'
http://www.modoobook.org

여수시립환경도서관
http://enlib.yeosu.go.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제천기적의도서관
http://www.kidslib.org

진해기적의도서관
http://www.jhml.or.kr

책날개를 단 아시아
http://www.beautifulfund.org/foundation/files/08_event/book/main.jsp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http://bookreader.or.kr

천안시중앙도서관
http://www.jungang.or.kr

청주기적의도서관
http://www.cjmiraclelib.com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푸른시민연대
http://www.epurun.org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http://www.migrant114.org

함평천지
http://inabi.or.kr/uw/hampyeong/korea/index2.html

화도진도서관
http://www.ihl.kr

참고한 인터넷 국외 사이트

개인 flickr
http://flickr.com/photos/48600091327@N01/481762321

개인 flickr
http://www.flickr.com/photos/thesmileinn/2755845097

개인블로그 쉿
http://insidexino.tistory.com

국제도서관협회연맹
http://www.ifla.org

리드 네팔
http://www.readglobal.org/nepal.asp

멀트노마시립도서관
http://www.multcolib.org

메릴랜드주도서관
http://www.slrc.info

미의회도서관
http://www.loc.gov/nls

사랑과 용서 캠페인
http://loveandforgive.org

샌디에고공공도서관
http://www.sandiego.gov/public-library/ pdf/070913storytellingpr.pdf

샌디에고공공도서관
http://www.sandiego.gov/public-library

세리토스도서관
http://www.ci.cerritos.ca.us/library/childrens.html

시애틀공공도서관
http://www.spl.org

시애틀공공도서관재단
http://www.foundation.spl.org

아리조나주도서관
http://www.lib.az.us/archives/collections.cfm

알렉산드리아도서관
http://www.bibalex.org/English/index.aspx

오리건주도서관
http://www.oregon.gov/OSL

인디애나주도서관
http://www.statelib.lib.in.us

잭슨빌공공도서관
http://jaxpubliclibrary.org/lib/aspire.html

체트윈트공공도서관
http://www.chetwyndpubliclibrary.com/ phpnuke2/modules.php?name=Special_Programs

캘리포니아주도서관
http://www.library.ca.gov/calhist/collections.html

퀸즈공공도서관
http://www.queenslibrary.org

텍사스주도서관
http://www.tsl.state.tx.us/tbp

프린스턴공공도서관
http://www.princeton.lib.nj.us

alspector architecture
http://www.alspectorarchitecture.com/sibl.htm

coquille indian tribe
http://www.coquilletribe.org/coquille-indian-tribe-library.htm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http://www.clir.org/pubs/issues/issues53.html#read

Regional museum, library and archive agencies
http://lmal.org.uk/lmal/index.cfm

Wikimedia Commons
http://commons.wikimedia.org/wiki/Image:New_York_Public_Library_-_Panorama_21112004.jpg

Young Adult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http://www.unt.edu/slis/students/projects/5320/williams.htm

부록자료

※ 부록은 책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필진들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문에 기술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으나, 현장에 계신 사서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덧붙인 내용이다.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길 바란다.

〈1〉 예술정보전문도서관 다감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

먼저 다감의 사례는 앞의 본문에서 장서별 특화부분에서 소개가 되었으나,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 소개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순수예술을 향유하는 계층이 한정되고 제한되어 있어 이용자대상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용자에게 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과 교육을 선행하여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예술전문도서관으로서 기본 목표라 하겠다. 프로그램은 크게 지역의 예술가와 관련시설의 자원활동가로 강사진이 구성된 예술교육프로그램(멘토와 멘티, 토요미디어감상)과 서비스 확장의 의미로 학교연계예술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지역기관인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PISAF),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들은 일반대학교수보다는 지속적으로 다감과

함께하며 성장해나갈 수 있는 부천시의 전문예술인과 기존의 문화예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관련 시설의 자원활동가들이다. 현재 다감은 문화자원동아리 2%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에게 미디어감상실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대관해주고, 감상작품(CD, DVD 등)을 지원하며 신착 및 양질의 작품을 추천한다. 이들은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거나, 감상작품 선정 및 발간물을 작성하거나, 프로그램 해설 등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함으로써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트멘토는 다감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중 문화예술분야 전문가중에서 선발하며 토요미디어감상의 진행은 부천문화재단의 열린문화학교를 이수하고 공연장 하우스매니저, 공연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자원활동가 모임의 회원들이 담당한다.

공연예술마니아를 문화자원활동가로 육성

· 성격 : 문화자원활동가 모임 2%
· 창립 : 2003년 7월
· 회원 : 50여명
· 주요활동 : 공연장 자원활동 및 모니터링, 미디어를 활용한 감상프로그램 (토요미디어감상, 찾아가는 예술감상) 해설

예술전문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이란?

우선 위치적으로 다감은 같은 건물 안에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문화예술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 프로그램관련 특화에서 고민을 하였다. 그 결과 장서와 연계한 프로그램, 특히 비도서와 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토요미디어 감상 프로그램, 정기심포지

엄, '오늘의 음악' 선정, '아트멘토(예술[Art]과 조언자[Mentor]를 합친 말) 감상석' 등이 있으며 영상미디어제작교실은 지역미디어 활동으로 2007년에 30여명의 지역정보생산자를 교육시켰다.

부천문화재단 VJ '캠36.5'

· 성격 : 미디어자원활동가 모임
· 창립 : 2007년 8월 25일
· 회원 : 30여명
· 주요활동 : 부천시 6대 문화사업 등 지역 문화행사 영상기록화

〈표 1〉 다감 문화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프로그램	회수(참가자 수)	실시기간	주요 내용
영상미디어제작교실	총 23회 (회당 20명)	6.26~8.18	· 영상기획 및 편집 등 전 과정 교육 · 캠 36.5 재단 미디어활동가 모임으로 전환
멘토와 멘티의 만남	총 7회 (250명)	4.14~11.11	· 아트멘토가 선정하여 명반 및 영상작품 추천하여 교육 – 기획공연물 사전 교육 · 부천예술정보도서관 아트멘토 3명 진행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
토요미디어감상	총 10회 (240명)	3.24~11.24	· 공연 실황 등 영상물을 해설과 함께 감상 · 문화활동가 모임 2% 진행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2시
찾아가는 예술 감상	총 8회 (510명)	10.23~11.1	·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감상프로그램 · 문화활동가 모임 2% 진행 · 초등학교 및 결혼이민자 센터
다감 스크린 특강	총 21회 (420명)	8.9~12.27	· 매주 목요일 우수 다큐멘터리 공개 상영 · 번스타인의 클래식 특강 영상물 상영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다감 영화 산책	–	–	· PiFan 상영작 또는 추천작을 매주 정기적으로 상영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부천필 오픈 강좌	총 2회(60명)	4.11~6.13	· 부천시립예술단 클래식감상프로그램 연계 · 클래식감상반 공개광좌 마련
도서관주간	총 4회(80명)	4.12~4.17	· 프랑스 뮤지컬의 공연실황 DVD를 공개 상영
총 7개 프로그램 75회 진행(2,000여명 참여)			

〈그림 1〉 다감 문화프로그램 홍보전단
(멘토와 멘티의 만남, 토요미디어감상, PiFan 연계〈다감영화산책〉, 스크린 특강)

이용자 개발과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예술 감상'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2006년부터 부천의 4개 학교(총 8회, 2시간)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예술에 대해 교육을 하고 2008년부터는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여 결혼이민자센터와의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표 2〉 다감의 이용자 개발과 서비스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회수(참가자 수)	실시기간	주요 내용
찾아가는 예술감상	총 8회(510명)	10.23~11.1	· 내용 : 다감의 자원활동가가 직접 초등학교에 방문, 해설을 곁들여 재미있는 영상물 및 음반 감상 · 방법 : 부천 초등학교 4곳을 선정, 각각 4회 프로그램 진행(총8회) · 진행 : 문화활동가 모임 2% 회원 · 대상 : 신흥초, 동곡초, 동산초, 대명초
다감 영상초대	총 6회(240명)	연중	· 내용 : 다감의 공동감상실 무료 대관 서비스 · 방법 : 이용신청서 제출 · 이용 : 내동중, 경기예술고, 일신중, 범박고 등 · 방법 : 이용신청서 제출
비도서 기관대출	–	연중	· 내용 : 영상물 및 음반을 부천 관내 학교도서관에 기관 대출 · 방법 : 비도서자료 기관대출신청서, 이행서약서 · 대상 : 부천지역 초 · 중 · 고등학교 · 선정 : 상시모집

그 외에 다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부천지역문화예술정보DB' 구축이 있다. 지역문화예술정보DB는 1999년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역문화에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2004년) 활용보다는 인프라구축차원에서 지역예술인정보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있다. 초기엔 예술인 개인정보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1)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예술을 소개하고 있고, 2) 그 검색된 내용이 공통된 서식으로 잘 정리되어 질적으로 우수하며, 3)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부천 시민들에게 뉴스레터 및 소식지를 통해(부천문화예술DB에 등록된 800여명의 예술인, 단체, 공간은 물론 부천문화재단 회원 8,000여명이 이 소식지를 받음) 자신의 작품 활동을 홍보할 수 있다. 4) 외

부에서 필요에 의해 예술인에 대한 추천 및 정보를 요청시, 수집된 정보에 근거하여 도서관에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여러 이점들이 있어 현재는 예술인이나 문화단체가 먼저 행사 및 전시에 대한 정보를 다감에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자료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소설가 헤르만 헤세를 기억하다 목원대학교 헤세도서관

본 서에서는 주로 공공도서관의 특화사례만을 소개했는데, 대학교도서관 중 오래전부터 특화자료실은 운영한 목원대학교 헤세도서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본다.

처음 헤세도서관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유명한 인물의 전문도서관인 만큼 우리에게는 희소한 일이다보니, 많은 화제가 됐었다. 또한 대학의 한 교수가 관심을 가지고 모았던 귀중한 자료들을 기증하면서 생긴 일이니 더욱 관심을 받았었다.

목원대학교 헤세도서관은 1997년에 이 대학 홍순길 교수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 130여점, 연구서적 1천여점 등을 기증해 전국 유일의 '한국헤세학회 자료 도서관'이 개관하였고, 1999년 목원대학 내에 '헤세 자료실'을 개실하였으며, 2000년 '헤세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

헤세도서관은 한국헤세학회와 목원대학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헤세도서관은 1997년 홍순길 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헤세 관련 서적을 바탕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책 구입이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스스로 조달하였고, 처음에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연구실을 도서관으로 사용하였다. 헤세

책을 출판하는 국내외의 출판사와 헤세 관련 친지로부터 상당한 양의 도서를 기증받은 것도 계기가 되었다. 그 후 홍 교수는 도서관을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 1999년 목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도안동 새 캠퍼스로 학교가 이전하면서 중앙도서관 안에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이때부터 학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헤세도서관의 자료는 주로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제1차 문헌 및 제2차 문헌으로서 헤세 자신의 글과 헤세에 대하여 쓰여진 글이다. 제1차 문헌의 경우에는 원서와 번역본을 말하는데, 헤세가 주고받은 서간문과 헤세가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한 평론을 포함해 거의 모든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제1차 문헌의 경우는 대출이 빈번해 다양한 편집본 뿐 아니라 같은 책을 여러 권 준비하고 있다. 2) 제2차 문헌의 경우 원서는 약 1,055종이며 1950~1960년대의 구입할 수 없는 논문들은 때로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때로는 복사본으로 만들어 소장하고 있다. 제2차 문헌 중 절판되어 복사본으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 서점을 통해 정판으로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다. 3) 초판본 및 희귀본으로서 이런 책들은 자료관이나 박물관에 전시되는 책들이다. 특별히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앞으로 도서관을 위해 특별히 구입한 것이다. 4) 시청각 자료로써 직접 현지에서 촬영 제작한 슬라이드 및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이 있으며 이 자료들은 주로 전시용이며 헤세 홍보나 수업을 위해 특별히 대여되는 것이다. 5) 헤세와 관련된 문헌 및 자료이다. 헤세를 연구함에 있어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료를 모아서 연구의 편의성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수집한 문헌이다. 동양에 관한 책, 특히 헤세가 읽고 언급했던 동양의 철학과 종교에 관한 책, 니체에 관한 책, 심리학에 관한 책 등이다. 그 밖에 헤세 문헌의 서지학적인 보조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들은 2008년 현재 헤세초판본 20권, 제1차문

헌 (헤세의 글) (원서 323권/ 번역서 403권), 제2차문헌 (헤세에 관한 글) (외국서 1147편/ 국내서 398편), 헤세관련문헌 136권, 시청각 자료 429점, 기타 자료 120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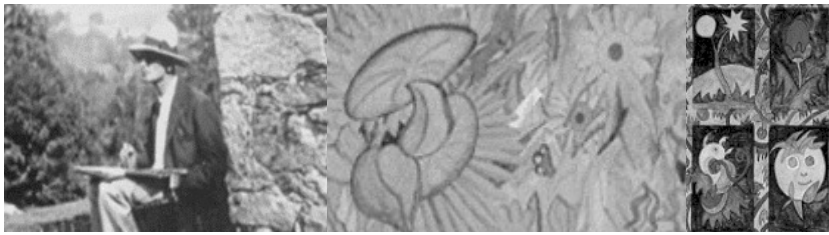
도서관 운영을 위해 현재 서가 12개, 대형 열람탁자 2개, 진열장 1개, 의자 10개, 컴퓨터 2대, 복사기 1대, 프린터기 1대, 스캐너 2대가 있다. 현재 공간은 좀 협소하나 더 큰 공간을 마련중이다.

현재 도서관 운영은 4명이 맡고 있는데 홍순길 교수(목원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과 교수, 전 헤세학회 회장)가 운영자, 송임섭 교수(목원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과 겸임교수, 현 헤세학회 홍보이사)가 전문연구원, 아르바이트생 1명 사이트작업 학생 1명이 일하고 있다.

도서관은 물리적도서관과 인터넷도서관의 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물리적도서관은 기존 도서관과 같이 직접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서를 열람 · 대출해주고 있으며 2004년에는 학교의 지원을 얻어 소장 자료를 콘텐츠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후 홈페이지도 개선하고 4~5개국의 언어로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구축 중에 있다. 헤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 소장 자료 및 도서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생애와 작품', '금주의 명인용문', '헤세 사랑방', '헤세의 그림 세계'와 '인터넷 헤세링크'의 하부 페이지를 운영하여 헤세 및 그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헤세도서관은 홍보를 위해 일반 대중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몇 가지 예를 들면 헤세 관련 출판이나, 헤세 전용홈페이지 경진대회, TV 출연이나 음반제작 등이 있다.

앞으로 헤세도서관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헤세에 대한 자료를 더 많이 갖추고 많은 자료를 이용 가능한 자료형태로 제작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림 2〉 헤세도서관 자료(그림을 그리고 있는 헤세의 모습, 해바라기 화단, 픽토르의 변신1)

〈3〉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

본 서에서는 계층별 특화사례에서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주민을 위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을 알게 되었다. 다문화 서비스는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아직 개발중인 서비스로 발굴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그동안 민간에서 진행해온 다문화서비스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는 주로 일반 공공도서관보다는 민간의 시민단체에서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사회에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고려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범주에는 아직 그들은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적인 상황은 이처럼 미흡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단지역과 결혼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 사할린 귀국 동포 노인들이 정착한 지역 등의 일부 공공도서관들은 선구적으로 이주민 서비스를 개척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인천과 전라도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

농어촌 거주 이주민들의 경우, 도서관 이용에 있어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도

서관까지의 거리가 멀고 도서관 이용을 위한 교통수단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흥평생교육관에서는 이주민 전용 승합차를 대여하여 이주민들의 한글교실 이용을 지원하고 있었고 인제도서관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한글교실 수업이 있는 금요일에 한해 학교 통학차량을 결혼이주여성 전용 차량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홍성도서관은 '햇살가득 다문화 순회문고'를 통해 이주여성의 언어권 도서 및 희망도서를 지역이주민센터와 가정에 직접 100여권의 책을 3개월간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주민들의 도서관 내 한국어 장서 이용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이주민들의 한글수준이 낮아 한국어 장서의 이용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매우 낮은 실정이었지만 일부 이주민들은 한국어 장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한국계 러시아인 또는 조선족 중국인인 경우이거나 한글교실을 오래 다니면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주민들이었는데 비교적 읽기가 쉬운 한국어 동화책이나 어학교재 등을 대출하였다. 다른 이주민들은 한글교실이나 문화교실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면서 학령기의 자녀들을 위해 한국어로 된 어린이 책을 대출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국내 최대의 외국인 활동지역인 서울 이태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도서관은 지역거주 외국인 자녀를 위해 어린이실에 1천여권 규모의 영어동화책 장서를 구비하였다.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이주민들이 자녀의 동화책을 대출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면서 이들이 도서관의 고객이 되어 한글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2007년 5월부터는 한글교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비록 영어 동화책에 국한된 측면이 있지만 이 사례는 이주민의 언어 장서 구비가 그들을 도서관의 고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써 이주민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거나 시행중인 도서관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조용완 2007).

이주민을 위한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시행을 위한 팁(tip)

1) 도서관 봉사대상 지역에 어느 나라 출신 이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지역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한다. 이 과정에서는 이주민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관내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 그리고 관할 경찰서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2) 지역에서 이미 이주민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가 있다면 그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프로그램 시행 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3)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이 지역주민과 이주민을 병행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이동도서관의 장서구성은 국내 자료에 한정시키지 말고 가급적 주요 이주민의 언어로 된 자료를 구비하도록 노력한다. 만일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여러 이주민 언어로 된 『외국인노동자 문화가이드북』[1]과 이주민 언어와 한국어로 된 사전이나 한글학습 교재, 인터넷을 통해 출력한 해당국가의 언론기사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읽을 만한 어린이 도서도 구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4) 이동도서관 차량을 확보해야 한다. 차량의 선택은 도서관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실성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형버스의 경우 도서관 장서 외에 각종 컴퓨터와 인터넷 장비[2]와 도서대출 등 도서관 업무 관련 장비. 열람좌석 등을 구비할 수 있지만 많은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다. 반면, 미니버스나 승합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장점이 있지만 도서관 장서를 비치하고 나면 여유공간이 별로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만일 차량의 구입이 어렵다면 장기 임대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5) 주요 이주민 거주지역을 포함하는 방문 스케줄을 계획하여야 한다. 스케줄은 지역과 도서관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예정된 방문일정은 가급적 지켜야 한다.

6) 주요 이주민 언어로 된 이동도서관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벌여야 한다.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해당 언어 전공학과나 해당국가 대사관, 기타 언어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제작할 수 있다. – 조용완. 2007. 이주민을 위한 이동도서관 서비스. 『도서관문화』, 48(4): 43-49.

---

1) 이 책에는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 의식주 및 의료 · 교통 등 일상 편의사항, 한국에서의 볼거리 · 먹거리 · 놀거리 · 살거리, 나라별 문화 · 종교적 특징과 차이점 등이 실려 있으며, 한글판과 영어판 외에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이란 등의 언어로 제작되었음. 향후 문화관광부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문화 웹사이트와 관련 영상물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음.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2007년 3월 12일 접속.

2) 농어촌 지역의 이동도서관이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방식은 이동통신을 활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방식으로 HSDPA(High-Speed Downlink Packet Access)이나 CDMA 2000 1x EV-DO(Evolution Data Only) 등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상용화되어 있음.

①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다문화어린이도서관은 현실에서 다문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모습이다. 이것은 다문화를 우리사회에 안착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지표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로, 전 사회로 다문화가 확대되어가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또한 하게 될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여성이나 2세 자녀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어린이도서관은 다국어를 손쉽게 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서관 자체의 다문화적 구성요소를 통해 다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 공간이 아닌 사회적 공간으로서 이들 다문화가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스템이자 다문화를 안착시키는 이들 주체의 중요한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예로부터 품앗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최근 한국 주부들 사이에 '공동육아' 라는 긍정적인 사회적 육아모델도 대안적인 보육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것을 적용하여 육아를 고민하는 다문화가정의 주부와 한국인 주부가 '육아' 라는 공통의 관심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기능을 다문화어린이도서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어린이도서관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육아교육모임을 통해 각종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어린이도서관은 긍정적인 사회적 돌봄과 품앗이 보육을 키워내는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에서 제시하는 다문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이다.

프로그램 운영안

: 개관 후 초기에는 책을 읽는 프로그램과 기본적인 보육 프로그램이 안착되도록 하는 한편 결혼이민여성의 자조모임을 통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나 다문화체험 문화행사와 아버지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 프로그램 세부 계획

①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보물찾기'

자원활동가와 어린이의 1:1 책 읽어주기를 통해 아동의 언어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책읽기 습관을 형성

② 유아교육 전문가의 보육 프로그램 '또래오래'

보육전문 교사가 아동의 연령에 맞는 보육활동을 지원

③ 자원활동가를 활용한 동화구연 프로그램 '동화 나와라 뚝딱'

동화구연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시간

④ 다문화가정 및 내국인 아이들 대상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두손내밈'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의 어울림과 인권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

⑤ 특별행사 프로그램 '마음나눔'

⑥ 그 밖의 프로그램

- 다문화책읽기 : 1일 도서관 이용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다문화책을 1권씩 읽어주는 것을 습관과 필수가 되도록 함
- 다문화 체험 : 분기별 1회, 자조모임을 통해 다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테마별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음식/ 사진/ 의상 등)

• 지역사회 소통 : 반기 1회,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전면 개방하고 다문화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과 소통의 기회 마련, 이 프로그램 구성도 자조모임을 통해 기획, 실행, 평가가 이뤄지도록 구성

2) 이중언어능력교육을 위한 운영방향

① 이중언어교육의 원칙

유아나 아동들에게 이중언어교육을 무조건 프로그램화하여 실행하기 보다는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

② 향후 운영방안

• 가정 내 모국어교육의 중요성을 도서관 회원인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알리고 자주 모임을 통해서 이를 깊이 인식하도록 함. 또한 가족에게 보내는 안내문과 아버지 모임을 통해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획득
• 도서관에 비치된 어머니 나라의 도서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읽히는 과정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달되도록 함
• 이중언어교육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고 이를 국내에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는 우선 지역적인 특수성보다 관리 · 운영을 맡은 시민단체 〈푸른시민연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푸른시민연대〉를 알아야 한다. '모두'의 주이용자는 현재 〈푸른시민연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현재 다문화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자녀양육이다.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선은 못사는 나라의 여성들이라는 편견이 있으며 한국의 가족들은 이들을 동화시키고자 우선 한국말부터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러한 상황이 거듭될 수록 결혼이주여성들은 서투른 한국말로 아이를 양육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자녀에게서 언어발달장애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주여성들에게 고국의 책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면 자녀에게 이를 읽어주면서 자연스레 엄마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자부심을 키워주며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하여 어릴 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경험을 체득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고국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도서관이 생겨난다면 시설을 통해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어머니들과 자연스레 만나는 장을 얻을 수 있으며 그와 함께 교류를 통해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것이다.

〈표 3〉 결혼이민자 통계

(2008년 9월 30일 법무부 통계)

·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결혼이민자는 08년 9월말 현재 120,705명(남성 14,494명, 여성 106,211명)으로 출신국은 한국계중국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으로 시 · 도별 체류현황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순임

· 결혼이민자 통계

인 원 수	성 별	
120,705	남	14,494
	여	106,211

· 지역별 결혼이민자의 통계

구분	결혼이민자 수(명)		
	총계	남자	여자
	120,705	14,494	106,211
경기도	31,173	4,518	26,655
서울특별시	29,481	5,925	23,556
경상남도	7,094	367	6,727
인천광역시	7,073	1,013	6,060
경상북도	6,167	240	5,927
충청남도	5,578	272	5,306
부산광역시	5,355	513	4,842
전라남도	5,338	110	5,228
전라북도	4,868	180	4,688
충청북도	3,767	230	3,537
대구광역시	3,614	339	3,275
강원도	2,923	142	2,781
대전광역시	2,690	261	2,429
광주광역시	2,346	170	2,176
울산광역시	2,232	140	2,092
제주특별자치도	1,006	74	932

'모두'는 장서 기증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외국도서는 기증과 구입이 절반의 비율을 보인다. 후원사인 STX는 해외에 여러 지사가 있어 외국도서를 구매해 기증해 주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교보문고나 문지사 등과 같은 출판사나 대형 서점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하며 '모두'를 돕고 있다. 규모는 현재 약 8,000여권으로 국내서는 5,000여권정도 되며 외국도서는 10여 개국을 목표로 현재 6개국 각 500여권씩을 소장하고 있다. 나머지 해외국가의 장서들은 현재 서울로 배송되고 있는 상황이다(해외국가들은 네팔, 몽골, 러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란,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등이다).

해외도서 분류가 다소 어려운 부분인데 이주 외국인들과 인근 대학의 언어를 습득하고 있는 대학생자원활동가의 도움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도서관의 학교도서관지원과와 경희대학교도서관 사서팀의 지원으로 장서 DB구축의 도움을 받고 있다.

② 아시아평화인권연대의 민들레 도서관

부산시 전포동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평화인권연대'는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인권신장 그리고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활동가들이 모여 2003년에 결성한 시민단체이다. 결성 이후 이주노동자와 아시아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아시아와 친구하기〉와 이주노동자 상담, 한국어교육, 무료진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이 단체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및 가족,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아시아 국가간의 이해를 드높이고자 이 단체 사무실 내 독립된 공간에 아시아인의 도서관을 지향하는 '민들레 도서관'을 2006년 9월 개관하였다.

부산지역의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하여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주여성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네팔, 스리랑카, 몽골 출신의 이주노동자들도 방문하고 있다. 도서관은 상시적으로 개방되어 있지만, 다문화 가정 모임의 한글교실이 열리는 목요일과 이주노동자들이 근무를 쉬는 일요일에 도서관 이용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외 국가별 이주노동자들의 모임이 있는 날도 도서관 이용이 빈번한 편이다.

도서관에는 평화와 인권 등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서 700여권과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에서 출판된 그림책과 동화책, 신화, 일반도서 약 300여권 등 총 1천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국내 장서는 쌈지도서관으로 지정되면서 예산지원을 통해 구입된 도서와 회원이나 활동가들의 기증으로 마련되었으며, 외국 장서는 도서관 쪽에서 개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 단체와 친분이 있는 이주민들이 모국방문 후 돌아오면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외 한국에서 국제인권운동을 하다가 현지에 유학을 간 활동가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가 도서를 선정, 구입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

도서관의 장서들은 대부분 도서대여점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DB를 구축했는데, 베트남 등 외국도서들은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장부에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 도서의 대출을 위해서는 도서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가입비 1천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 일상적인 도서대출 외에 민들레 도서관에서는 아시아인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평화와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아시아 각 국 동화와 신화를 소개하는 슬라이드쇼인 '빛그림전'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영화 프로그램, 대화 프로그램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책 마을 등 소규모 민간도서관 등과 조

금씩 협력을 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 등과는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도서관의 업무는 관장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이 단체의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공공 보조금, 그리고 쌈지도서관 지정으로 인한 한시적인 교육청의 지원 등으로 마련되고 있다.

〈4〉 국내 도서관 특화서비스 내용

도서관	특화서비스	홈페이지
강원남산도서관	• 농어촌도서관, 농업관련도서 및 특용작물 관련자료 확보	http://www.iccl.or.kr/iccl/nsl
강원춘천소양정보도서관	• 지역 내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배후시설로서 관련 산업정보에 대한 특성화사업을 추진 • Bio산업특화자료실 : 생명공학관련 세계자료 검색 및 열람, 원문 db제작 등 • 애니메이션특화자료실(문화관광부 지정) : 자료편집코너, 세계공용비디오코너, 영상음향실, 영상자료감상, 강원영상문화센터	http://www.i-soyang.org
경기가평군립도서관	• 군부대 도서대출 확대서비스	http://www.gaplib.or.kr
경기고양아람누리도서관	• 예술, 외국자료	http://www.goyanglib.or.kr/www2/aram
경기고양주엽어린이도서관	• 세계 옛이야기 자료	http://www.goyanglib.or.kr/www2/ju_ch
경기고양행신어린이도서관	• 생태, 환경자료	http://goyanglib.or.kr/www2/heng_ch
경기고양화정어린이도서관	• 조형, 예술자료	http://goyanglib.or.kr/www2/hwa_ch
경기과천정보과학도서관	• 정보과학나라는 1층에 과학놀이동산, 지하1층에 과학체험동산, 2층에 과학탐구동산, 5층에 천체 관측장으로 비교적 큰 규모. 과학놀이동산과 과학체험동산은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신나게 이용하고 오감으로 체험 · 터득할 수 있는 학습마당 • 모든 계층의 지역 주민이 운영자와 참여자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http://www.gclib.net
경기광명시중앙도서관	• 향토,행정사료관 : 광명의 역사와 인물, 유적, 미래상에 대해 다양한 전시물과 광명시 관련 자료 전시	http://www.gmclib.or.kr
경기광명시하안도서관	• 행정논문코너 운영, 행정통계자와 연구자료 보유	http://www.gmclib.or.kr
경기구리인창도서관	• 향토자료실 : 지역과 관련된 문제, 사업, 풍속, 문화, 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인물의 저작물, 지역신문동인지, 단체나 기업 등의 간행물(유람사보 등), 신문에 끼워놓은 광고지, 각종 행사안내물, 각급 학교출판물(교지, 앨범 등), 시의 의회록, 예산결산서, 통계보고, 행정홍보용자료나 시 관련 각종 사진자료 등 수집	http://www.gurilib.go.kr

도서관	특화서비스	홈페이지
경기구리인창도서관	• 독서치료 : 구리시 거주 발달장애아 독서진단결과에 따른 수준별 학습반 구성,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교육 병행 실시	http://www.gurilib.go.kr
경기군포당동도서관	• 영상과학체험관 : 특수영상을 통해 환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뉴스 앵커, 연기자, 카메라맨, 연출자가 되어 방송을 직접 체험, 이해, 학습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	http://www.gunpolib.or.kr
경기군포대야도서관	• 대야동지역은 공해가 없는 청명한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천문관측 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천문교육장으로 최적 • 기존 도서관의 기능과 차별화를 이루어 군포시 최초로 천문관측시설을 갖춘 최첨단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 • 누리천문대 : 단체관람은 초등학생 이상의 학생에게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허용되며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일반관람은 예약 없이 유치원 및 일반 가족단위로 자유 관람이 가능	http://www.gunpolib.or.kr
경기남양주시립도서관	• 실학자료관 : 실학분야 특화도서관으로 실학관련 자료들을 총망라하여 고서, 논문집, 단행본 등 4,386권의 장서를 보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연계하여 실학연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	http://www.nyj.go.kr/lib/index.jsp
경기도립중앙도서관	• 교과서, 교육자료 등 4만6735권(도서 4만5735권, 비도서 1,131점) • 소외계층 방문 독서지도, 어르신을 위한 이야기쓰기 • 순회문고 : 학교,기업체,군부대 등 32개소 운영	http://www.gglib.or.kr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상호대차, 이웃대출, 두루두루서비스 • 찾아가는 도서관 시각장애인서비스 : 재택서비스, 우편서비스, 인터넷목록검색서비스, 도서목록및이용안내제작배포(점자녹음도서) • 경기도 향토, 행정, 문화 등 관련 원문 DB구축 6,115권	http://www.library.kr
경기부천꿈빛도서관	• 어린이 서적	http://bcl.go.kr/bc2004/mini4/b_01.asp
경기부천시립도서관	• 청소년학습자료실과 기술과학자료실 운영	http://www.bcl.go.kr

도서관	특화서비스	홈페이지
경기부천시립도서관	• 중앙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가 매주 2,000권을 구입해 부천의 각 도서관 특성에 맞게 책을 배분	http://www.bcl.go.kr
경기부천심곡도서관	• 역사 주제전문자료실 운영	http://bcl.go.kr/bc2004/mini3/b_01.asp
경기부천예술정보도서관 '다감'	• 예술전문도서관 • 부천문화예술DB를 마련하고, 온라인뮤직라이브러리 Naxos Music Library를 오픈하고, 다감소식지를 창간해서 배포 • 예술체험행사 진행 • '찾아가는 예술 감상', '멘토와 멘티의 만남', '부천문화예술DB 뉴스레터', '다감 소식지' 서비스를 진행	http://lib.bcf.or.kr
경기부천책마루도서관	• 인문 · 사회과학	http://bcl.go.kr/bc2004/mini5/b_01.asp
경기성남도서관	• 음악자료관	http://www.snlib.or.kr
경기성남분당도서관	• 논문자료실 운영	http://bd.snlib.net/2006/default.asp
경기성남수정도서관	• 곤충 • 족보자료관 : 문헌정보실, 성씨별 족보 및 관련자료 소장, 족보특강	http://sj.snlib.net/sujeong
경기성남시중원도서관	• 여행 · 지역자료코너, 입시정보코너(입시 관련자료제공, EBS 수능강의시청)	http://jw.snlib.net/jungwon/index.asp?sc=jungwon
경기성남중앙도서관	• 독서치료 3,167권(도서 3,126권, 비도서 41점) • 독서치료상담실, 시문학자료실 운영	http://ct.snlib.net
경기수원바른샘도서관	• 멀티미디어	http://bkid.suwonlib.go.kr
경기수원북수원도서관	• 미술	http://buk.suwonlib.go.kr
경기수원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 한국 식물 및 식물학과 관련된 자료전반	http://seo.suwonlib.go.kr
경기수원선경도서관	• SK그룹에서 건립하여 수원시에 기증한 도서관으로 1995년 4월 27일에 개관하여, 수원시민을 위한 문헌정보제공, 문화활동, 평생교육 증진에 힘씀 • 화성, 성곽 특화자료 2,514권(도서 2,397, 비도서 117점) • 화성능 행차도 등 관련 자료를 활용, 'GO GO! 화성행궁' 등 독서프로그램	http://sk.suwonlib.go.kr

도서관	특화서비스	홈페이지
경기수원선경도서관	• 향토자료실 : 수원시 향토자료와 개인문고, 족보, 고서/세계문화유산 “화성” 및 성곽 테마자료코너/월드컵자료코너 611종 1,591점 전시	http://sk.suwonlib.go.kr
경기수원슬기샘도서관	• 천문우주	http://skid.suwonlib.go.kr
경기수원영통도서관	• 한국학	http://yt.suwonlib.go.kr
경기수원중앙도서관	• 노인복지	http://ct.suwonlib.go.kr
경기수원지혜샘도서관	• 환경에너지	http://jkid.suwonlib.go.kr
경기안성시립도서관	• 혜산박두진자료실 : 박두진 시인의 자료 221권(도서167권, 비도서 54점)	http://www.apl.go.kr
경기안양시립석수도서관	• 멀티미디어 체험실 운영, 미니천체관 설치	www.anyanglib.or.kr
경기안양시립평촌도서관	• 사서들의 도서요약 정보서비스,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독서정보 소식지 발간(계간)	http://py.anyanglib.or.kr
경기안양호계도서관	• 문학 및 논술 5만8539권	http://hg.anyanglib.or.kr
경기양주덕정도서관	• 임산부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엄마학교, 태교동화, 영화감상, 독서토론 등)	http://www.yangju.gyeonggi.kr
경기양평군립도서관	• 화서 이항로 등 향토자료 136권	http://www.yplib.or.kr
경기용인시수지도서관	• 미래정보관 : 버추얼타임 스페이스 등 26개 과학체험활동	http://www.yonginlib.or.kr/suji
경기의정부시지식정보센터	• 천문우주체험실 : 우주체험 및 천체관측 프로그램 운영 공간 • 자연과학실 : 순수과학과 기술과학 분야 및 청소년 도서를 열람·대출하실 수 있는 공간 • 문헌정보실 : 의정부 역사인물, 지역문인특성화코너(박세당, 천상병 등) 46권	http://www.uilib.net/information/index.jsp
경기이천시립도서관	• 도자기 789권	http://www.icheonlib.go.kr
경기파주문산도서관	• 콩, 인삼 자료 121권 등	http://pajulib.or.kr
경기파주시립금촌도서관	• 향토자료실, 행정자료실 운영	http://pajulib.or.kr
경기파주시립중앙도서관	• 천문우주체험관 운영, 천체관측 우주체험 등 가능	http://pajulib.or.kr
경기평택시립도서관	• 테마 영어회화 교실 (미군부대 자원봉사자와 한국 민간인의 문화교류 및 주제별 영어회화 강좌)	http://www.ptlib.net
경기평택안중도서관	• 평택 역사인물 140권(도서 60권, 비도서 80점), 우수 만화 상설전시관 1801권	http://www.ptlib.net/guide/guide2_3.asp
경남남지도서관	• 수석전시실 운영	http://njlib.or.kr

도서관	특화서비스	홈페이지
경상거제도서관	• 만화자료코너, 법령집코너 설치	http://www.geojelib.or.kr
경상경주시립도서관	• 경주역사문화자료코너	http://www.kjlib.or.kr
경상김해도서관	• 족보, 향토자료, 환산문고 및 논문자료 등을 소장한 족보자료실을 운영	www.kimdo.or.kr/design04/user/index_intro.php
광주금호교육문화회관	• 교육학	http://kumho.ketis.or.kr
광주무등도서관	• 향토자료, 아메리칸 코너 운영	http://citylib.gwangju.kr/webnet/library_mudung01.htm
광주사직도서관	• 시문학	http://www.citylib.gwangju.kr
광주산수도서관	• 미술자료관	http://www.citylib.gwangju.kr/home/citylib/doc.php?doc=15
광주송정도서관	• 농업, 환경	http://songjung.ketis.or.kr
광주시립사직도서관	• 시문학 특화자료 서비스 제공	http://city.gwangju.kr/webnet/library_sajic01.htm
광주일곡도서관	• 민주인권실 운영	http://ligoklib.bukgu.gwangju.kr/index.php
광주중앙도서관	• 청소년	http://jungang.gen.go.kr/2004/index.asp
광주학생교육문화화관	• 아동도서	http://gecs.gen.go.kr:8080/htdocs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 광주학생독립운동 사료실 운영	http://student.ketis.or.kr
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	• 지도전문자료코너 운영, 각 국의 지도, 지리서, 지적도, 팸플릿 등 1,000개 이상의 지도 전문 자료 비치	http://www.nbl.or.kr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 대구 · 경북에 관한 신문 스크랩 자료 및 기관홍보자료, 향토자료코너 운영	http://www.dongbu-lib.daegu.kr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 관광정보실 운영, 웹DB(국내관광안내, 교통, 숙박 등), 지도, 안내책자, 지역별 관광자료 열람 가능	http://www.bukbu-lib.daegu.kr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 대구 · 경북지역 향토 문인들의 도서, 동인지등으로 장서가 구축된 향토문학관 운영	http://www.seobu-lib.daegu.kr
대구두류도서관	• 족보자료실 : 족보교실 운영(학교교과과정 지원), 웹상에서 100여권의 족보 원문db 구축 • 부업정보코너 운영	http://www.duryu-lib.daegu.kr
대구시립달성도서관	• 영농관계자료코너 운영	http://www.dsl.daegu.kr
대구중앙도서관	• 섬유산업정보실 : 지역 주종산업인 섬유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도서와 시청각자료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	http://www.tglnet.or.kr/home/default.html

도서관	특화서비스	홈페이지
대구중앙도서관	• 공산권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특수자료실과 독학 및 육아정보 등 자료코너 개설 • 우리고장문화유적 메뉴를 통해 1997년 이래로 대구광역시청에서 발간하는 대구문화재사랑의 원문DB제공 • 낙육재에 관한 귀중본 및 고서 소장	http://www.tglnet.or.kr/home/default.html
대전남부도서관	• 청소년문화극장 개설 :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감상 제공	http://www.nbl.or.kr
대전북부도서관	• 학위논문자료실 : 분야별 석박사학위 논문 1만 5천여권 비치 • 관관정보자료실	http://www.bukbu-lib.daegu.kr
대전한밭도서관	• 과학기술특화도서관 • 과학특화분야의 자료를 전체도서구입의 10%정도 수서하고 있으며, 과학관련문화행사(과학도서목록 배부, 과학관련독후감 모집 등)를 실시 • 관광과 과학 등 지역특성을 연계한 지역정보서비스 거점으로서 자치단체와 활발히 협력	http://hanbat.metro.daejeon.kr
대전효목도서관	• 점자도서실 : 점자도서 475종 1,547권, 녹음도서 7,582권 등을 우편으로 빌려주고 맹인 열람자에게 도서낭독서비스 실시	http://www.hyomok-lib.daegu.kr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 건강 특화도서관	http://www.guducklib.busan.kr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 사학(역사) 자료실 운영	http://www.bansonglib.or.kr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 진학지도정보자료실 운영	http://www.bjl.go.kr:8080/design03/user/index.php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 취업정보자료실 운영	http://www.sahalib.busan.kr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 고문헌자료실 운영, 한 · 일 외교 관련 자료 원본 비롯해 해방 전 일서 등을 수집하여 향토사와 분야별 근대사를 연구	http://siminlib.go.kr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 관광 · 여행정보자료실 운영	http://www.haeundaelib.or.kr
부산광역시서동도서관	• 환경관련자료코너 운영	http://www.seodonglib.or.kr
부산금정도서관	• 영상자료실	http://library.geumjeong.go.kr/design05/index.php
부산시립구포도서관	• 공업자료를 수집 보존	http://www.gupolib.or.kr

도서관	특화서비스	홈페이지
부산시립중앙도서관	• 향토자료실 운영	http://joonganglib.busan.kr
부산연산도서관	• 해양 · 수산자료실 운영	http://www.yeonsanlib.kr/design13/index.php
서울강서도서관	• 허준 및 한의학	http://www.gangseolib.kr
서울고덕평생학습관	• 특수교육(장애인)	http://www.godeok.or.kr
서울고척도서관	• 다문화가정	http://www.gocheok.or.kr
서울남산도서관	• 외국인을 위한 한국안내자료, 한국고건축, 독서치료	http://www.namsanlib.or.kr/index.aspx
서울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 수요인문학강좌(고전, 예술, 역사 등)	http://www.l4d.or.kr
서울마포평생학습관	• 미술 · 시각장애인	http://www.mapollc.go.kr
서울서대문도서관	• 일제강점기 역사	http://www.sdmlib.go.kr
서울어린이도서관	• 교과학습지도, 아동독서지도자료	http://www.childrenlib.or.kr
서울영등포평생학습관	• 한강관련	http://www.ydpllc.or.kr
서울정독도서관	• 족보, 문화재, 향토자료 • 족보실 : 뿌리찾기의 일환으로 족보 및 족보해설집 등의 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족보학에 조예가 깊은 상담자 지원 • 서울 지역특성 반영 • 학교교과과정 지원 : 1일 족보교실	http://www.jeongdoklib.go.kr/korea/index.jsp
서울종로도서관	• 노인관련자료, 고령화시대상 반영	http://www.jongnolib.go.kr
울산 남부도서관	• 장애아동 1일도서관 체험학습 • 장애인의 날을맞아 “더불어사는세상, 우리가만들어요!”, “구족화가 체험행사” • 향토자료실	http://www.usnl.or.kr
인천계양도서관	• 환경 • 지역발전전력과 연계된 특색사업 : 지역문제인 계양산살리기와 식품안전특강, 어린이환경교실 등 실시	http://gyl.or.kr
인천부평도서관	• 발명, 특허자료	http://www.bpl.go.kr

도서관	특화서비스	홈페이지
인천부평도서관	• 연간물 분담제본 : 동아일보,코리아타임즈, 서울경제 • 특허정보자료실 : 부평지식재산센터는 특허정보의 원활한 보급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확산과 발명장려에 기여하고자 특허청으로부터 부평지식재산센터로 지정 • 특허정보서비스제공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종합민원상담, 변리사 무료변리상담, 지식재산권 실무교육 및 설명회, 지식재산권 모의재판, 에디슨 발명특허교실, 인천 발명아이디어 공모	http://www.bpl.go.kr
인천북구도서관	• 경제학 • 연간물 분담제본 : 국민일보, 세계일보, 스포츠서울 • 지역발전전력과 연계된 특색사업 : 은퇴한 교육자 등을 활용한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운영, 남자 64명 여자 61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76개기관에 212회 교육봉사를 실시하여 상담, 학습지도, 장애인도우미, 전통문화교육 등 어른들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파	http://www.ipl.or.kr
인천서구도서관	• 중국어 • 연간물 분담제본 :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신문, 스포츠조선, 경기일보 • 지역발전전력과 연계된 특색사업 : 섬지역을 중심으로 이동도서관 운영	http://www.sgl.go.kr
인천연수도서관	• 정보학 • 지역발전전력과 연계된 특색사업 : 엄마와 함께하는 영유아교실 운영, 향후 영유아 발달적 특성에 따른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 예정	http://www.yslib.go.kr
인천주안도서관	• 물리학 • 연간물 분담제본 :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중앙일보, 수도권일보 • 지역발전전력과 연계된 특색사업 : 실버학당	http://www.ijuanlib.or.kr
인천중앙도서관	• 동양철학, 기독교 • 연간물 분담제본 : 한국일보, 코리아헤럴드, 한국경제, 경인매일 • 지역발전전력과 연계된 특색사업 : 책사랑교실	http://www.ijlib.or.kr/new4

도서관	특화서비스	홈페이지
인천화도진도서관	• 예술전분야 • 연간물 분담제본 : 인천일보, 인천신문, 기호일보, 경인일보 • 지역발전전력과 연계된 특색사업 : 일일향토교실(학교 교과과정 지원), 향토역사연구회 운영 • 향토자료 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인천 개항 자료 수집 • 향토개항문화자료관을 홈페이지로 옮겨, 인천의 개항유래정보와 풍물사진을 전시하는 개항역사관, 경제개발시기 인천지역의 사진자료를 전시하는 근대자료관, 개항시기 역사적 사료를 모아놓은 학습자료관을 통해 특성화된 디지털자원서비스를 제공 • '조선신문'의 마이크로필름을 일본 국회도서관으로부터 구입해 최근 디지털자료(CD)와 영인본으로 제작 • 향토역사연구회 : 지역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년 4회 분기별 지역내 역사와 문화답사 및 연구결과물 생산, 자료 구축 • 향토 · 지역 사학자 및 지역원로위원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있어 자료발굴 및 구입시 자문역할 담당	http://www.hwadojinlib.or.kr
전남나주공공도서관	• 마한, 백제 역사문화 관련 자료	http://najulib.or.kr/index.html
전남나주공공도서관	• 영산강유역의 고대 마한, 백제 문화관련 자료실 운영	http://www.najulib.or.kr
전주시립완산도서관	• 행정자료실에 통계, 연감, 행정간행등 비치	http://mlib.jeonju.go.kr/default.aspx
제주도서관	• 향토자료실	http://www.jejulib.or.kr/design01/user/index_intro.php
제주성산일출도서관	• 관광과 과학 등 지역특성을 연계한 지역정보서비스 거점으로서 자치단체와 활발히 협력	http://dongbulib.jeju.go.kr/introduce/s_m1.html
제주시립탐라도서관	• 향토자료실	http://tamna.jejusi.go.kr
제주표선도서관	• 학교교과과정 지원 : 향토문화탐방(지역명승지답사, 연구물 제출)	http://dongbulib.jeju.go.kr/introduce/p_m1.html
제천시립도서관	• 의병활동자료	http://www.jclib.or.kr
창원시립고향의봄도서관	• 이원수 문학관	http://www.cwcl.or.kr

도서관	특화서비스	홈페이지
창원시립도서관	• 환경자료실	http://www.cwcl.or.kr
충남부여도서관	• 백제문화관	http://124.0.165.5:8080/main/main.php
충청연기도서관	• 연기군 지역자료실 운영	http://www.ygl.or.kr/intro.htm
충청제천시립도서관	• 의병특화자료실 운영	http://www.jclib.or.kr
건국대학교	• 멀티미디어정보센타	http://appsvr.konkuk.ac.kr
경상대학교	• 남명학고문헌시스템	http://nmh.gsnu.ac.kr
국민대학교	• 디자인도서관	http://libweb.kookmin.ac.kr/design
대구가톨릭대학교	• 신학도서관	http://myhome.cu.ac.kr/theolib
동국대학교	• 불교학자료실	http://buddhism.dongguk.edu
동덕여자대학교	• 여성학도서관	http://ddlib.dongduk.ac.kr/women/center_index.html
동서대학교	• 디자인전문도서관	http://libcenter.dongseo.ac.kr/design.htm
목원대학교	• 헤세도서관	http://hesse-library.mokwon.ac.kr/hesse-main.htm
부산여자대학교	• 어린이도서관	http://magic.pwc.ac.kr
서울여자대학교	• 한국여성저작정보센터	http://kwic.swu.ac.kr
성공회대학교	• 민주자료관 • 대한성공회 역사자료관	http://library.skhu.ac.kr
성균관대학교	• 존경각	http://east.skku.ac.kr
세종대학교	• 패션디자인도서관	http://sjulib.sejong.ac.kr/fashion
숙명여자대학교	• 세계여성문학관	http://wowlic.sookmyung.ac.kr
순천향대학교	• 향설기념중앙도서관 음영자료실	http://asan3.sch.ac.kr/~media/index.html
숭실대학교	• 미디어센터	http://mediaroom.soongsil.ac.kr
전주교육대학교	• 어린이도서관	http://lib.jnue.ac.kr/CNUE
청강문화산업대학 정보관	• 만화영상도서관	http://anilib.chungkang.ac.kr
한국교원대학교	• 교육정보자료실	http://libsvr.knue.ac.kr

도서관	특화서비스	홈페이지
한국해양대학교	• 해양자료실	http://library.hhu.ac.kr/library/dlsearch/dllocal/loc/HTML/kmul/html_ko/guide_07_frame.asp
한양대학교	• 취업 Collection(서울캠퍼스) : 미취업 졸업생과 예비 취업생에게 취업관련 종합정보를 제공 • 시(詩)자료실(안산캠퍼스)	http://library.hanyang.ac.kr/paiknam/index.jsphttp://information.hanyang.ac.kr/ansan/index.jsp

※ 본 표는 방문 및 전화, 이메일인터뷰와 수집한 자료를 통해 정리함(기간: 2008.7~8월)

〈5〉 국내 도서관 다문화 장서개발

1. 고척도서관(2008년)

※ ( )년도는 서비스 실행연도임.

자료형태	• 단행본, 비도서
장서규모	• 국내서 887권(자국민이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 이주민이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 • 동양서 926권(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의 역사, 문화, 동화, 등 자국 문화 향수를 위한 자료, 결혼 이민자들의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자료) • 비도서 119점(DVD : 이주민 출신 국가들의 여행, 영화, 음식문화 등을 다룬 자료 117점, Web-contents : 이슬람 바로 알기 강좌, 어린이를 위한 구연동화 2)
예산	• 서울교육청에서 지원 2,200만원
입수지침	• 베트남 : 베트남 이주자의 많은 부분이 결혼이민자임을 감안하여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자료에 중점을 두어 입수 • 중국 등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많은 국가의 경우, 한국어회화가 가능한 이주자들을 위한 한국문화 습득 자료에 중점을 두어 입수
입수방법	-
등록	• MARC 외부 반입 • 음역하여 등록 및 검색 가능
배가	• 별치기호를 사용 • 종합자료실에 별도 배가
기타	•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고 있음 • 도서 등록중에 있음
앞으로계획	-

2. 광양시립도서관(2008년)

※ ( )년도는 서비스 실행연도임.

자료형태	• 단행본
장서규모	• 영어, 일어 외에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3개국 870권 가량의 자료를 입수
예산	• 1,250만원
입수지침	• 문학(소설)류를 중심으로 구입 • 어린이와 성인용 자료의 비율은 5대 5로 구입할 것을 요청
입수방법	• 국내 대행사(태국, 베트남)를 통해 입수 • 외국자료 대행사(영어, 일어, 중국어)를 통해 입수
등록	• 자료구매대행사의 직원으로부터 제목과 간략한 주제 및 내용을 전달받음 • 음역하여 등록
배가	–
기타	•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개별적인 자료구입은 어렵고 입찰을 통해 자료구입 계약 • 국내 주요 외국서 대행사에 문의하였지만 동남아 지역 자료는 대행하지 않았고 동남아 지역 대행사가 거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음 • 언어 문제로 인해 자료의 주제 적합성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대행사에 의지하고 있으며 현재 신뢰하고 있음
앞으로계획	• 내년에도 다문화자료 추가 구입 예정

3. 안산관산도서관(2008년)

※( )년도는 서비스 실행연도임.

자료형태	• 단행본
장서규모	• 도서 540권 • 영미, 일본외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5개국 자료
예산	• 600만원
입수지침	• 어린이용 자료를 중심으로 하면서 실용 도서와 교양 도서, 그리고 한국도서 중 외국어로 번역된 도서 등으로 자료를 주문하되 최신성있는 자료들로 구성하도록 요청
입수방법	• 대행사(주로 공공/ 대학도서관에 국내/ 외국서를 납품)를 통해 입수
등록	• 자료구매대행사의 직원으로부터 제목과 간략한 주제 및 내용을 전달받음 • 음역하여 등록 및 검색 가능
배가	• 현재는 실을 따로두고 이용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별치기호를 부여하여 종합자료실에 배가할 계획으로 확정되진 않음
기타	• 다문화자료 입수방법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았으나 동남아권 출판사나 관계자는 거의 찾을 수 없었음 • 사서의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혼자서 모든 자료구입업무를 수행하고 별도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기에 어려움
앞으로계획	• 향후 도서구입비 예산에서 1천만원 가량 투입해 총 8개국으로 확대예정

4.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2008년)

※ ( )년도는 서비스 실행연도임.

자료형태	• 단행본
장서규모	• 도서 4,590권 • 국내서 1,421권, 중국 747권, 영미 732권, 태국 607권, 인도네시아 569권, 베트남 455권, 필리핀 59권
예산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사회봉사기금 도서구입비를 3천만 원 지원받음 • 2009년 : 도서구입비 2천만원, 비도서구입비 3백만원(아직 확정전)
입수지침	• 국가별 한국어교재 비치에 주력 • 성인 : 어린이 자료의 비율은 7대3으로 구입할 것, 다양한 주제분야 비치 • 내국인 이용자를 위한 국내서 비치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임
입수방법	• 대행사를 통한 도서 입찰계약 • 유관관계기관 및 개인의 도서기증
등록	• 저자기호는 영미원서인 경우 커터샌본 • 그 외 국가의 저자기호는 저자의 이름 한국어로 발음하여 이재철5표 사용 • 현재 사용중인 도서관리프로그램(KOLASⅡ Light)의 다국어지원 불가 • 제한적 등록(일부 데이터 한글화, 영문화) 및 검색(제목 한글화 및 한글음역) : 검색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제목 번역의 개인차) • 각국의 언어로 도서명, ISBN, 출판사 목록DB를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출력, 비치
배가	• 국가별 별치기호를 사용 배가 • 다문화 전용 도서관
기타	• 생색내기(?)에 주력할 다문화자료 서비스라면 시작하지말 것 • 외국인에게 도서관 이용은 생계와 관련된 일이 아니므로,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은 보기 힘드나, 꾸준히 적극적인 서비스에 주력한다면 조금씩 변화를 느낄 수 있을것임
앞으로계획	• 비도서 및 정기간행물 입수에 주력 • 현재 비치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도서도 확충할 계획

5. 아우내도서관(2008년)

※ ( )년도는 서비스 실행연도임.

자료형태	• 단행본, DVD
장서규모	• 도서 273권, DVD 5개 • 중국 16권, 태국 46권, 러시아 8권, 몽골 9권, 필리핀 7권, 베트남 10권, 방글라데시 5권, 우크라이나 2권, 우즈베키스탄 10권
예산	• 300만원
입수지침	• 어린이 문학도서 위주 선정
입수방법	• 대행사를 통해 구입 • 대사관 기증
등록	• 대체로 아동문학도서라 세부적인 분류는 하지 않고 있음 • 엑셀파일로만 정리 • 방문하는 이주여성들이 읽어주는 발음을 참고
배가	• 나라별 국기표시로 구분 배가 • 다문화사랑방에 별도 비치
기타	• 도서구입이 쉽지 않은 관계로 뜻있는 분들이 외국여행시 구입하여 기증해주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을 듯 함
앞으로계획	• 아동도서 중점 수집, 특히 그림책 우선 비치 • DVD · 음반 등 비도서자료 확보 • 구입예정 : 일본 42권, 중국 224권

6. 홍성도서관(2008년)

※ ( )년도는 서비스 실행연도임.

자료형태	• 단행본, DVD
장서규모	• 도서 411권 • 필리핀 92권, 중국 105권, 베트남 70권, 일본 89권
예산	• 500만원
입수지침	• 어린이 도서 위주, 한국을 알 수 있는 일반도서로 우선 구입(요리, 문화 등)
입수방법	• 대행사를 통해 입수 • 직접 수서(구하기 어려운 베트남도서는 베트남분께 구입요구)
등록	• 도서관리프로그램(kolas II)으로 관리
배가	• 『햇살가득 다문화가정 순회문고』명칭으로 순회이용 • 홍성이주민센터, 지역 다문화가정 4곳 포함, 총 5곳에 비치
기타	• 다국어 도서로 구성된 순회문고 지원(1가정 1회 100책 3개월 이용) • 자녀를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 추진 • 이주여성 가족 상담프로그램 추진
앞으로계획	• 홍성이주민센터, 홍성가정폭력상담소, 동화읽는어른모임 홍성지부와 단체 연계 • 동화책 읽어주기 및 상담 병행, 다문화도서코너 등

7. 아시아공동체학교 부설국제어린이도서관(2008년)

※ ( )년도는 서비스 실행연도임.

자료형태	• 단행본
장서규모	• 외국 아동도서 3,600여권, 한국 아동도서 4,500여권 영어, 일어 외에 태국, 중국,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러시아, 방글라데시
예산	–
입수지침	• 다양한 어린이 도서, 전래동화, 세계명작동화, 교과서, 유명 어린이/청소년 소설 번역서, 사전 등을 구입 요구
입수방법	• 개인적으로 구입 부탁한 후 송금 • 도서관과 외국소재 출판사와 서점을 연결 • 러시아의 경우, "보따리 무역상"을 거쳐 자료입수 • 중국의 경우, 학부모가 도서리스트를 작성하여 부산 영사관을 통해 상해 공무원과 연결되어 만족할 만한 자료입수
등록	–
배가	• 다문화 전용 도서관
기타	• 먼저 아시아 각 국 대사관에 도서후원 협조요청과 도서구입의뢰 협조요청을 했으나 거의 도움 받지 못함 • 일부 국가의 경우, 입금액수보다 훨씬 적은 양이 들어와 해당 국가출신 학부모의 확인을 거쳐 차액을 환불받음 • 현지에서 도서구입을 위한 교통비와 잡비, 국내운송료, 구입 상황 점검과 환불요청을 위한 국제전화비용 등 부대비용이 상당히 소모 • 몇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르는 외국인에 의존하므로 입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부실한 자료입수 우려
앞으로계획	–

8. 푸른시민연대어린이도서관 '모두'(2008년)

※ ( )년도는 서비스 실행연도임.

자료형태	• 도서, CD, DVD
장서규모	• 도서 8,000여권 • 국내어린이 책이 5,000여권, 해외 어린이책은 11개국(네팔, 몽골, 러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란,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을 목표로 현재 6개국의 각 500여권을 소장, 나머지 해외국가들의 장서는 현재 서울로 배송되고 있음
예산	• 연 300만 원 내외
입수지침	• 어린이와 성인용 자료의 비율은 7 대 3으로 구입 • 다문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입수해 줄 것을 요청
입수방법	• 다문화자료를 이미 입수한 민간영역의 도서관들의 경험에 대해 조사하고 도서관들의 거래업체와 입수자료 리스트에 대한 입수 • 출판협회의 지인을 통해 주요 이주민 국가의 출판협회에 메일로 협조요청 중 • 국제협력단의 지인을 통해 해외 거주 자원봉사자에 자료구입 협조요청 중 • 귀환 이주노동자와 파견되어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에 협조요청 중 • 최근 다문화자료의 국내 대행사와 접촉하여 추진여부 타진 중 • 지인을 통해 입수
등록	• 도서관에 방문하는 이주어머니들과 인근의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언어자원봉사자들과 연계 • 한글 및 영어제목 도서를 제외하고 기타언어의 도서 제목만 한글로 번역하여 등록
배가	• 국가별 분류(국가 내에서는 대상자 – 유아 · 어린이 · 일반별 분류) • 다문화 전용 도서관
기타	• 이주민 국가의 출판협회에서는 신속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음. • 국제협력단에서는 한국 내 기관과 단체에 대한 협조는 불가능함 • 국가적 차원에서 다국어 입력 DB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 희망
앞으로계획	• 국가별로 일정수량 이상 보유할 계획임

9.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꼬마도서관(2005년)

※ ( )년도는 서비스 실행연도임.

자료형태	• 단행본
장서규모	• 도서 5,000여권 • 네팔, 러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영미 등
예산	• 설립 초기에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그 외에는 후원회비 등으로 이루어짐
입수지침	• 문학류와 같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중심
입수방법	• 단체와 친분이 있는 귀국한 이주노동자에게 기존 도서목록을 보내고 중복되지 않도록 구입 부탁 • 타 시민단체 활동가가 국제회의 참석차 동남아 지역으로 갈 경우에 부탁
등록	• 도서관용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음역하여 DB 구축
배가	• 다문화 전용 도서관
기타	–
앞으로계획	–

10.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드림도서관(2004년)

※ ( )년도는 서비스 실행연도임.

자료형태	• 도서, vcd
장서규모	• 도서 1,500여권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러시아, 몽골, 베트남, 영문도서 등
예산	•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기본시설을 마련했으며 자체적인 도서관 운영예산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여러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예산을 마련할 계획
입수지침	• 자료구입 과정에서는 귀국 후 정착에 도움이 될 자료, 언어습득 등 실용적 도움을 줄 자료, 이주노동자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 전집류가 아닌 자료 등과 같은 선정기준을 제시 • 매일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이주 노동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가급적 가벼운 주제의 도서를 선정 • 도서 외에도 영상자료나 만화자료 구비 노력 • 소설류 및 학습서 등을 중점으로 입수
입수방법	• 현지로 귀환한 신뢰관계가 있는 이주노동자를 통한 입수 • 담당자가 현지로 가서 직접 구입 • 러시아어 도서는 한국 내 출판사 도움 • 인도네시아어의 경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네시아학과의 지원을 받아 구입
등록	• 각국 공동체 인자들의 도움으로 자료 분류 • 도서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글음역하여 등록
배가	• 각 국가별로 정리 • 다문화 전용 도서관
기타	• 도서관 협력과 관련해서는 인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은 이루어진 적이 없으나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단체들과 도서관 운영과 자료 상호대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음 •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욕구조사를 통한 장서 구입이 중요함
앞으로계획	• 이주노동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꾸준히 장서를 비치할 예정

※ 본 표는 방문 및 전화, 이메일인터뷰와 수집한 자료를 통해 정리함
(기간 : 2008.9~11월, 단 꼬마도서관의 경우 장서현황은 현재시점이나 그 외의 내용은 2006년 자료를 참고함)

| 경기도도서관총서 1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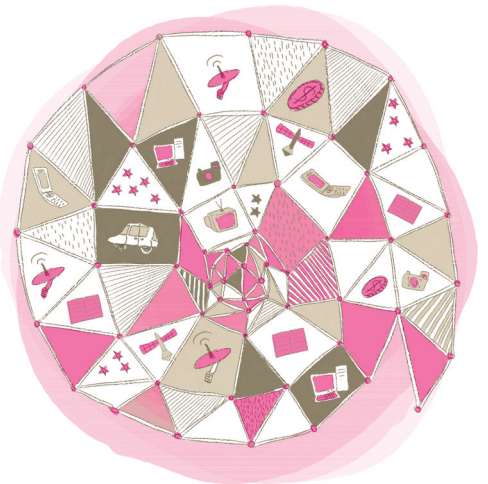
2009년 1월 20일 발행
지은이 | 심효정 · 이용훈 · 박효주
발행처 | 경기도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경도서관길 19(신풍동 123-69)
연락처 | Tel. 031)249-5237 Fax. 031)246-4021
제작 · 편집 | 예원디자인 (031-898-6755~6)

※ 이 책의 판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031)249-5237로 연락주십시오.

ISBN 978-89-93395-08-2 14010
978-89-93395-06-8 (세트)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아니 특별할 수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특정한 지역과 주민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해야 한다. 모든 도서관은 자신이 서 있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그래서 어떤 도서관도 다른 도서관과 같을 수 없다. 요즘은 누구나 자기만의 독특함을 무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도서관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더욱 더 특별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오직 그 도서관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필자들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서 모든 도서관은 특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만의 독특함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 저자의 말 中에서 –

비매품
14010
9 788993 395082
ISBN 978-89-93395-08-2
978-89-93395-06-8(세트)